

THE COMET

코메트

空軍本部政調監室發行
(曆紀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特輯 · 共產主義 理論과 現實

共產主義 體制의 脆弱性

● 共產國 內部는 이렇다!

◇ 소련篇 ◇ 北韓篇 ◇ 中共篇
◇ 東獨篇 ◇ 洪牙利篇 ◇ 其他

共產主義策動의 敗北

이제 오르기! 戰爭의 精神的 挑戰

國際反共機構의 새로운 檢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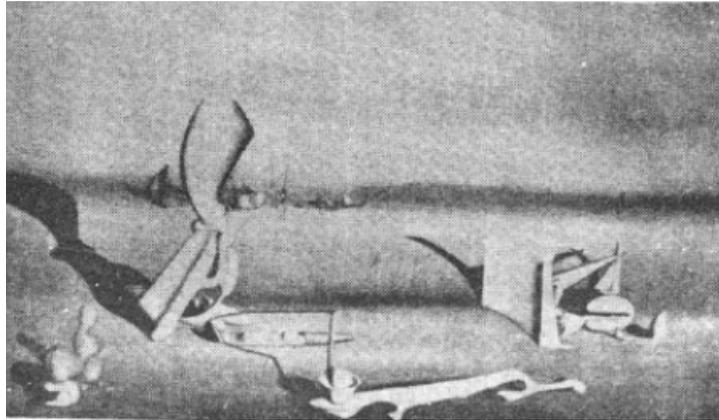
7.17 精神과 5.16 精神의 歸一點

運動 民主主義 原理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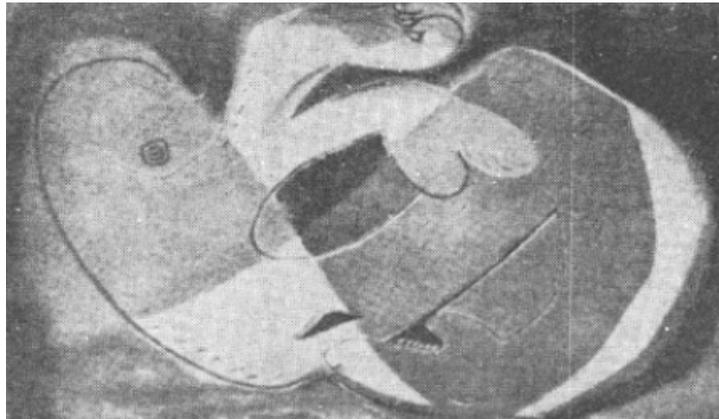
제 47 호



지난 7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의장 박정희(朴正熙) 장군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시찰(視察)하였다.
동(同) 10전비단(戰飛團)에서 공군의장대를 사열(查閱)하는 박(朴)의장과(상) 시승 차 T-33 제트기 상에 오른 박 의장.



술의 배당(配當) 탕키-작(作) (1937년)



상수(傷獸) 맛송 작(作) (1926년)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훈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리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운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코메트 47호 목차

〈목차(目次) 컷〉 이희세(李喜世)

〈현대 미술감상〉 슈리얼리즘에 대하여

화 { △ 누구의 짓이나?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
본 { △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입증하느냐? 동독(東獨) 탈출자 하루에 2,000여 명!!

권두언(卷頭言) · 인간상(人間像) 주정호(朱貞鎬) (2)

7精정신과 5恬정신의 귀일점(歸一點) 박일경(朴一慶) (4)

승공(勝共)을 위한 경제번영(經濟繁榮) 이동욱(李東旭) (122)

시사해설 소(蘇) · 중공(中共) = 북괴(北傀) 군사동맹의 분석 (101)

소(蘇) 공산당(共產黨) 신(新) 강령(綱領) 초안(草案)에 대하여 (20)

폭발 전야(前夜)의 동독(東獨) 사태 (127)

민주주의의 강인성(強韌性) 이상조(李相助) (80)

〈기행문〉 뉴스 · 스포트를 찾아서 이규현(李揆現)(90)

특집 ·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공산주의 체제의 취약성(脆弱性) 한재덕(韓載德) (24)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소련 편〉
소련(蘇聯) 정치 생활의 편모(片貌) 신찬(申瓚) (66)

소련(蘇聯) 경제성장률의 정확한 판단 K.크라크 (54)

소련(蘇聯)의 소비생활 F.A 본드 (47)

〈북한 편〉
북한(北韓)의 신문 이동준(李東濬) (36)

맹동(盲動)과 맹종(盲從)의 지역 정낙현(鄭洛賢) (131)

북송자(北送者)의 편지 정강재 (28)

〈중공 편〉
20세기의 진시황(秦始皇) B.유루먼 (70)

진시황(秦始皇) 이래의 강제 노동이 중공(中共)에 연출되고 있다

〈동독 편〉
선물 빼옥스의 정체 R.하르트 (58)

공산당(共產黨)이 던져주는 낚시밥은 무엇인가?

〈홍야리(洪牙利)[항가리] 편〉
뉴턴의 위조 서한(書翰) 카 · 웨이 (65)

공산당(共產黨)은 역사까지도 위조하고 있다!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책동(策動)의 패배(敗北) 김창순(金昌順) (47)

◇ 영국 편 ◇ 미국 편 ◇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편
◇ 일본 편 ◇ 서독(西獨) 편 ◇ 불란서(佛蘭西)[프랑스] 편

공산주의 하(下)의 이모저모 외지(外誌)에서
△ 공산주의 하(下)의 경찰관 생활
△ 공산주의 하(下)의 대학 교육
△ 공산주의 하(下)의 민족 감정
△ 공산주의 하(下)의 인간 금고(金庫)

자유(堡壘) 국제반공기구(國際反共機構)의 새로운 검토 · 박중희(朴重熙) (86)

〈연구〉 냉전(冷戰) (상) 이창순(李昌淳) (100)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① ————— 인간의 존엄성 편 ————— 김낙봉 (115)

이태올로기 전쟁의
정신적 도전 토인비 (12)

시(詩) 폐허(廢墟) 황금찬(黃錦燦) (136)

〈창작〉

탁류(濁流)를 헤치고 김광주(金光洲) (137)

간행물 「코메트」와 「미사일」에 대하여

정훈감실(政訓監室)

- ……「코메트」를 애호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감실에서는 정훈교육적(政訓教育的) 요구에 따라 앞으로 「코메트」와 「미사일」을 아울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지(兩誌)가 어떠한 교육적 근거 밑에 어떠한 편집 방향과 체제로서 간행될 것인가를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코메트」= 반공(反共) 및 민주국가의 이념교육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국판(菊判) 150면(面), 계간(季刊)임.
- ……「미사일」= 생활 실천 교육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사륙배판(四六倍判), 월간(月刊)임.
- …… 이와 같은 우리의 시도가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느냐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聲援)과 지도편달(指導鞭撻)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 저희들 편집자도 있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현대미술 감상〉

슈·리얼리즘에 대하여

슈·리얼리즘(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이라는 명칭은 이미 아포리넬의 저서에 나타나 있었기는 하지만 하나의 예술상의 운동, 특히 회화(繪畵) 운동으로서 관념적 조적이 이루어진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슈·리얼리즘은 다다이즘과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부루톤에 의해서 최초로 슈·리얼리스트 선언이 행해졌던 1924년이 기점(起點)이 될 것이다.

부루톤에 의하면 슈·리얼리즘은 ‘구두(口頭), 기술(記述), 그 밖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사상의 참된 과정을 표현하려는 순수한 심리적(心理的) 오토마티즘’이라고 정의(定義) 지워져 있는데 그것은 이성(理性)에 의하여 일체의 통어(統御)가 없이 또 미학적(美學的), 윤리적(倫理的)인 일체의 선입관념(先入觀念) 없이 행하여지는 사상의 진실한 기술(記述)이라는 뜻이다.

종전(從前)까지의 예술은 모두 자연을 대상으로 그것을 의식적(意識的)으로 묘사(描寫)한다던가 재구성(再構成)하는 것으로 시종(始終)하였다면 슈·리얼리즘은 외계(外界)의 세계와 단절하고 자아(自我)의 의식 속에서 창조(創造)의 영역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상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精神分析學)이 작용한 바 큰 것으로 보이며 부루톤 자신이 정신병리학자(精神病理學者)인 것도 관계가 있다고 보아 지는데 우리들 내부 세계에는 무의식(無意識), 잠재의식(潛在意識) 속에 움직이는 욕망(慾望)이 있는 것이며 이 같은 무의식, 잠재의식에 명확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연의 물체를 묘사하는 이상으로 그것을 의식화(意識化)한다는 것이다.

또 그들 슈·리얼리스트들은 두뇌의 회전수보다 손의 동작 속도가 빠르다는 생리적(生理的), 심리적(心理的) 사실에 착목(着目)하여 오토마티즘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다리는 슈·리얼리즘을 정의(定義)하여 ‘손을 위한 이미지’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이 운동은 그 본래의 성격상 반예술적(反藝術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부루톤은 이에 대한 논문을 1925년 기관지(機關誌) 슈·리얼리즘 혁명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슈·리얼리즘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 1925년에는 슈·리얼리즘 제2선언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개한 것은 슈·리얼리즘과의 작품이다.

누구의 짓이냐?

→ 라오스의 공산지구(共産地區)에서는 여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지옥이 연출되고 있다. 남편과 가재(家財)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단신(單身) 공산지구(共産地區)를 탈출하다가 부상(負傷)하여 자유지구(自由地區)의 따뜻한 시료(施療)를 받았다.

↓ 사진만 보아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反民族的) 행위에 혈액의 역류(逆流)를 느낀다. 북괴집단(北傀集團)은 오직 하나, 그들의 야욕(野慾)을 위하여 이 강토 위에 차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생지옥의 연쇄극(連鎖劇)을 연출시키지 않았는가! (6·25 피난 광경)



↓ 공산주의자들의 의한 라오스의 비극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지구(自由地區)의 라오스로 탈출해 온 승려들에게 부녀자들이 식물(食物)을 제공하고 있다.



↓ 1956년의 헝가리 반공의거(反共義擧)는 공산주의가 인류의 적(敵)임을 웅변(雄辯)으로 말하였다. 사진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蠻行)을 피하여 조국을 버리고 자유세계(自由世界)로 탈출, 오지 마을에 있는 수용소에서 숨을 돌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증명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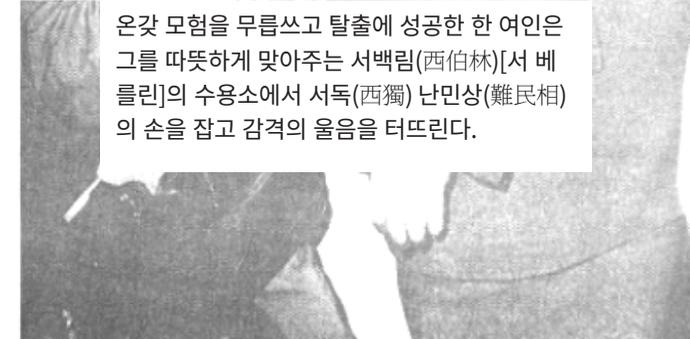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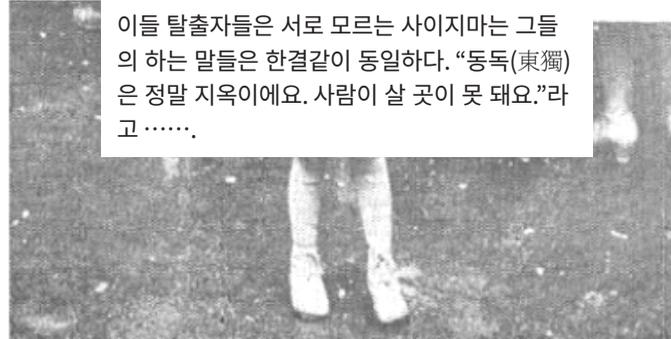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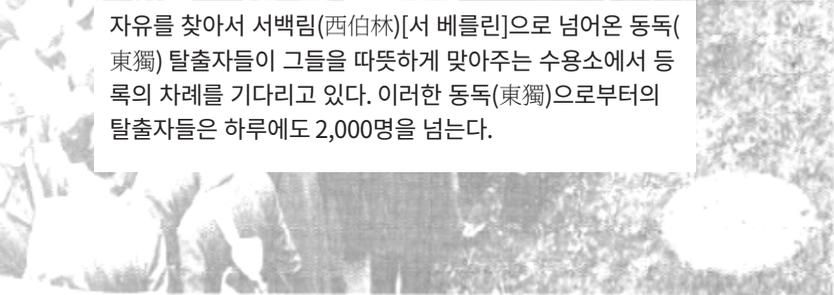


동독(東獨) 탈출자 하루에 2,000여 명!!

자유를 찾아서 서백림(西伯林)[서 베를린]으로 넘어온 동독(東獨) 탈출자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수용소에서 등록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동독(東獨)으로부터의 탈출자들은 하루에도 2,000명을 넘는다.

이들 탈출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그들의 하는 말들은 한결같이 동일하다. “동독(東獨)은 정말 지옥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라고.....

온갖 모험을 무릅쓰고 탈출에 성공한 한 여인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서백림(西伯林)[서 베를린]의 수용소에서 서독(西獨) 난민상(難民相)의 손을 잡고 감격의 울음을 터뜨린다.



코 메 트
THE COMET

第 47 號



표지 컷

Magnelli (1888-)의 “Groupe ferme”에서 큐피즘 평면구성(平面構成)의 이론에서 발전한 추상적이며 단순한 화면(畫面) - “감혀진 군형(群形)”이라는 화제(畫題)로 평면 ferme이며 이 ferme이 구심적(求心的)으로 결합응고된 것 같은 강한 구축성(構築性)을 보여준다.

인간상(人間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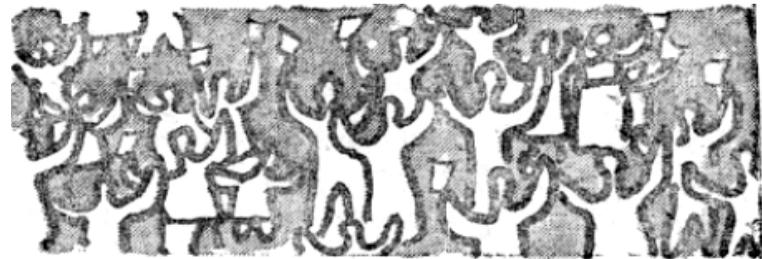
정훈감(政訓監) 주정호(朱貞鎬)

티토프의 25시간 지구순회비행(地球巡廻飛行)이 있어도 동백림(東伯林)[동 베를린]으로부터의 피란민은 여전히 매일 수천 명씩 헤아린다.

6·25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이 그러했고 인근의 예로는 오지리(奧地利)[오스트리아]나 월남(越南)[베트남]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내막(內幕)은 여하간(如何間)에 일본에서는 북한으로 지원(志願)해 가는 사람이 있으니 실로 인간상(人間像)은 천차만별(千差萬別)이 아닐 수 없다.

- 一. 독립(獨立)으로 자기 삶과 행복을 개척하려는 사람.
- 二. 자기 삶과 행복을 타(他)에 의존하려는 사람.



이렇게 홀로 인간상(人間像)을 분류해 보곤 한다.

사람은 자기의 삶과 행복이 자기 인생의 전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이 전체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 일신(一身)을 바친다.

이렇게 귀중하기에 사람은 이의 소유를 남에게 양보할 수는 없다. 홀로 뒹고 홀로 쌓고 하여 홀로 누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도 요구되는 자유가 필수(必須)되어야 하겠다. “나에게 자유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헨리의 말은 실로 이런 뜻이 아닌가. 이것이 첫째 인간상(人間像)이요, 그러나 삶과 행복이 이렇게 귀중한 나머지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를 얻어야 하겠다는 의욕(意慾)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이 본능과 본능의 경쟁에 있어 패배(敗北)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사회를 살피게 된다. 그러나 첫째와 같은 영원성(永遠性)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인간상(人間像)이다.

따라서 자기의 삶과 행복을 진실히 알고 타(他)에 의존하는 의타심(依他心)을 배제(排除)할 때 죽음과 바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반공(反共)의 터전은 굳어질 것이다.



7 · 17 정신과 5 · 16 정신의 귀일점(歸一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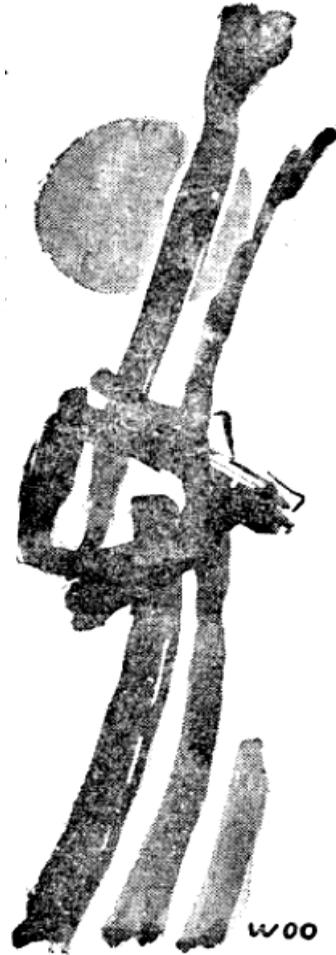
박일경(朴一慶)

一. 전문(前文)

단기(檀紀) 4281년 7월 17일에 공포(公布)된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의 제정의 근본 정신을 7·17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의 요점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前文)에 가장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前文)은 대별(大別)해서 다음의 사점(四點)을 명시하고 있다.

1.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를 재건(再建)하게 된 연원(淵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己未 三一運動)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독립 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4,000여년의



역사와 고유한 전통을 가지는 우리들 한국 국민이 기미년(己未年)에 독립운동을 일으켜 일본의 침략주의(侵略主義)에 항거(抗拒)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전적으로 어떤 타력(他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자주적(自主的)인 독립 국가의 재건을 명시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건하는 독립 국가가 전제군주국(專制君主國)이나 독재국(獨裁國)과 같은 비민주국가(非民主國家)가 아니고 국민주권(國民主權)에 입각하는 민주국(民主國)임을 선언한 것이고 이 원칙은 본문 제1조와 제2조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나) '정의(正義)·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鞏固)하'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이 정의(正義)·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단결하는 민족주의에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민족의 해체를 배격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타파(打破)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케 하며 각인(各人)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完遂)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래(舊來)의 봉건적(封建的), 전제적(專制的), 식민적(植民的) 기타 모든 비민주적인 일체의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특히 20세기적인 진보적(進步的)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첫째, 일제 강점기(日帝時代)까지의 비민주(非民主) 시대의 특권 정치 및 국민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국민자치 및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정제도(參政制度)(현 헌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7조의 2, 제98조 제1항, 제12장)와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현 헌법 제32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법치주의(法治主義)(특히 제2장, 그중에서도 제28조), 국민의 국법상의 평등(특히 제8조) 등의 민주주의 제(諸)제도의 채택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19세기까지의 극단적인 개인주의(個人主義),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初期資本主義)에 입각한 이른바 초기 입헌주의(立憲主義)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有産階級)의 이익에 치중한 폐해에 감(鑑)하여, 재산의 유무를 불구하고 근로대중(勤勞大衆)에게도 참정권(參政權)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그가 공공복리(公共福利)를 희생시켜서까지 유산계급의 축재(蓄財)의 자유에 남용(濫用)됨이 없도록 이를 조정(調整), 제한(制限)하는 동시에, 국민의 평등도 재산의 유무에 의한 차별대우의 금지는 물론,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실질적 평등을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케'하려는 것인 바, 이러한 20세기적 입헌주의의 채택은 특히 현행(現行) 헌법 제5조,

제2장 중의 제(諸)규정 및 제9장의 소위 경제조항(經濟條項) 등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끝으로 각인(各人)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은 운명공동체로서의 국가와 민중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시키려는 것인 바, 특히 20세기적 입헌주의의 입장에서 권리의 절대시(絶對視), 자유의 남용 등의 폐해를 없애고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국민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헌법 제16조, 제17조 참조).

3. 헌법 제정의 목적, 즉 대한민국의 기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까지의 극단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시정(是正)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침략주의를 부인(否認)하고 평화를 애호(愛護)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대한민국의 대내적 목적에 관하여서는 특히 헌법 제5조와 제84조에, 대외적 목적에 관하여서는 특히 제6조와 제7조에 구체화 되고 있다.

4. 헌법 제정의 경과(經過)를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정당(正當)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여, 헌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가 제정함으로써 헌법 제정권자가 국민이었다는 점(국민주권(國民主權)), 국민은 헌법을 직접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하여 제정하였다는 점(제한 국회(制憲國會)), 이 헌법의 제정 절차는 합법(合法), 정당(正當)한 것이었다는 점(헌법 제정의 합법, 정당성)을 명백히 하여 그 경과를 선언하고 있다.

二.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의 특징

우술(右述)한 바 기본 정신에 의하여 제정되고 정통적 민주입헌주의(民主立憲主義)를 표방(標榜)하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법 규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참정제도(參政制度)

입헌주의의 중심 사상의 하나인 국민자치의 사상에 입각하는 국민의 참정제도 또는 참정권으로서, 헌법 제3장에 의한 국회와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헌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제25조에 의한 공무원 선거권, 제26조에 의한 공무원담임권(公務擔任權), 제11장에 의한 지방자치 및 제7조의 2에 의한 국민표결제(國民表決制)와 제98조 제1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國民發)

안권(案權) 등을 들 수 있다.

2. 국민의 자유·평등

(a)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입법권(立法權)을 국회에, 제68조에서 행정권(行政權)을 국무원(國務院)에, 제76조 제1항에서 사법권(司法權)을 법원에 소속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 법치주의(法治主義)

우리나라 헌법의 법치주의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3장(제31조 제1항), 제4장(제58조, 제64조), 제5장(제70조 제1항), 제7장(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장(제83조의 3) 중의 제(諸)규정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제(諸)규정 그중에서도 국민의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최소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제28조의 규정은 법치주의를 가장 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c) 국민의 국법상(國法上)의 평등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前文) 및 제5조에서도 국민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거나와 특히 제8조에서 국민의 차별대우의 금지, 사회적 특수 신분제도의 불인정 및 그 창설(創設)을 금지하고 나아가서 훈장(勳章) 기타 영예(榮譽)도 여하(如何)한 특권도 창설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

20세기적인 문화국가·복지국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 헌법의 제(諸)규정을 개관(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a) 우리나라 헌법은, 기술(既述)한 바와 같이, 전문(前文)에서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케 하며 각인(各人)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할 것을 선언하고, 특히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자유, 평등과 창의(創意)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의 20세기적 진보성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즉, 동조(同條)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자유, 창의(創意)와 평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민주입헌주의의 국가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는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복지국가적(福利國家的)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前文) 및 제5조에 선언된 진보적 입헌주의의 원리를 구현(具現)하는 개별적 조문(條文)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b) 국민의 권리, 의무

제1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제2장의 제(諸)규정이다.

첫째, 자유권(自由權)에 관하여 말하면, 일면(一面)에서는 이를 어디까지나 보장하면서도 타면(他面)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술한 제28조가 일면(一面)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소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하면서도 타면(他面)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도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또 재산권(財産權)의 행사(行使)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제15조 제2항은 ‘권리의 의무화’를 시사(示唆)하는 진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익권(受益權)에 관하여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익권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여자와 소년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권리, 생활 무능력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등이 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희구(希求)되고 있다.

셋째, 참정권(參政權)에 관하여 보면, 제25조, 제26조는 그 행사(行使) 조건을 법률에서 정하게 하고 직접 규정하는 바 없지만, 전술한 전문(前文), 제5조, 국민 평등을 규정한 제8조 및 국회 양원(兩院) 의원 선거를 규정하는 제32조 제1항이 채택하는 ‘보통(普通)·평등(平等)·직접(直接)·비밀(秘密)’의 선거 원칙으로 보아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평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있음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c) 경제조항(經濟條項)

제2가 경제에 관한 현 제9장의 규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개헌 전의 경제에 관한 구(舊)규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장점을 경험한 바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너무나 통제적(統制的) 색채가 강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개헌에서 좀 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로 하여금 19세기까지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폐단과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진보적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需要)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기(期)함’을 목적으로 삼고 ‘각인(各人)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됨을 선언하고, 제85조는 광물(鑛物)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地下資源)·수산자원(水産資源)·수력(水力)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에 대하여는 사적(私的) 소유권을 용인(容認)치 않음으로써 천연자원(天然資源)의 사인(私人)에 의한 농단(壟斷)을 금지하였으며, 제86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대종(大宗)을 차지하는 농업에 있어서 농지(農地)는 농민에게

분배토록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지주(地主)에 의한 소작인(小作人)의 착취 또는 농업기업가에 의한 농업노동자의 착취 등의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외적 원칙

끝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내지 국제적인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약설(略說)하면 다음과 같다.

(a) 평화주의(平和主義)

우리나라 헌법은 기술(敍述)한 바와 같이 전문(前文)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표명하고 있거니와, 특히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주의를 대외적 근본 원칙의 하나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지 국토방위 전쟁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조는 국토방위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국토방위 의무수행을 위한 국군의 존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b) 국제법(國際法) 존중주의(尊重主義)

헌법 제7조는 ‘비준(批准) 공포(公布)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 존중주의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三. 5 · 16전(前)의 현실

그러나 5·16 군사혁명 전의 우리나라 현실은 우술(右述)한 바 헌법 제정의 근본정신과 진보적인 헌법의 제(諸)규정을 사실상 지상(紙上)의 공문화(空文化)하여 버렸다.

제1로 우리 헌법의 지향하는 바 민주주의는 실지(實地)에 있어서는 1인 독재정치(獨裁政治)(이 박사 집권 시), 부패정치(腐敗政治)(자유당(自由黨) 집권 시와 민주당(民主黨) 집권 시) 내지 약체정치(弱體政治)(민주당(民主黨) 집권 시)로 타락(墮落)하였다.

특히 첫째,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주요한 선거권은 자유당 시대에는 관권(官權)의 간섭과 매수(賈收)로 인하여, 4·19 이후의 7·29 선거, 기타에 있어서는 매수에 의하여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정 수단으로서 커녕 도리어 1인 내지 1당(黨)의 독재정치, 중우정치(衆愚政治), 부패정치의 일방편(一方便)으로 왜곡(歪曲)되어 버렸다.

둘째, 선거시에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써 국민의 충실한 대변자(代辯者)가 되기를 다짐한 국회의원들은 일단 당선만 되면, 그의 선거 공약을 폐리(弊履)와 같이 버리고 그 자신이 특권관료화(特權官僚化)하고 이권(利權) 쟁탈에만 급급하는 특권 부패정치 세력화하여 버렸던 것이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李)박사 및 그를 업고 나선 자유당 시대에는 관권(官權)에 의하여 억압될 대로 억압되었고

민주당 집권 하에서는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민주정치의 초보적 지식도 해득(解得)하지 못한 일부 국민에 의하여 남용될 대로 남용되어 급기야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질서를 극도로 문란(紊亂)시켰다.

넷째, 국민의 국법상의 평등도 과거 12년여의 헌정(憲政)을 통하여, 실(實)에 있어서는 집권자 및 이와 야합(野合)한 부정·부패세력의 특권층화(特權層化), 그에 대응하는 일반 국민의 불평등화(不平等化)와 빈곤을 결과하였다.

제2로 우리 헌법이 목적하는 바 20세기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념은 '화중지병(畫中之餅)화(化) 해버렸다.

첫째, 헌법의 지향하는 바 공공복리의 이익을 위한 국민(특히 유산자(有產者)들)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내지 조정의 요청은, 탐관오리(貪官汚吏) 및 이와 야합한 간상모리배(奸商謀利輩)의 발호(跋扈) 및 재산의 편중(偏重)으로 인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라는 부정·부패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상(紙上)의 공문화(空文化)하였다.

둘째, 민주정치의 미경험(未經驗)에 가(加)하여 집권자들의 부패·부정으로 일반 국민은 국가와 민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각인(各人)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는커녕 오로지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일삼는 그야말로 타락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대세가 되어 버렸다.

셋째, 우술(右述)한 바 결과로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期)하는 헌법이 의도하는 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실현되기는커녕 도리어 가장 부패 되고 가장 부정한, 말하자면 '열악(劣惡)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출현'되었던 것이고, 이리하여 일반 국민 대중은 무한의 민생고(民生苦)에 허덕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약화, 붕괴의 위협에 봉착(逢着)케 된 것이다.

제3으로, 상술(上述)한 바 제 현상이 악순환(惡循環)을 거듭하여, 민족의 단결과 민주입헌주의를 국시(國是)로 하여야 할 우리나라는 5·16 이전에 있어서는 흉악(凶惡)無比(無比)한 공산세력의 간단(間斷) 없는 침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실력을 약화·실폐하여 가고 있었고, 조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된 것이다.

四. 5·16 군사혁명과 7·17 정신의 소생(蘇生)

우술(右述)한 바와 같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선 우리 조국을 새롭고도 튼튼한 기반 위에 재건하기 위하여 꺾기(蹶起)한 5·16 군사혁명의 기본 정신은 혁명공약 6개 조항에 단적으로 명시되고 있거니와, 그 기본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바 그 제정의 기본 정신을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구현하려는 것으로 여기에 7·17 정신과 5·16 정신의 귀일점(歸一點)을 발견할 수 있다.

제1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려는 혁명공약 제1조항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사수(死守)하려는 헌법의 지고(至高) 목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제2로, UN 헌장(憲章) 및 국제협약을 충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자유우방(自由友邦)과의 유대(紐帶)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혁명공약 제2조항은 헌법이 기도(期圖)하는 국제평화주의, 국제법 존중주의를 충실히 준수하려는 것이다.

제3으로, 일체의 부패 구악(舊惡)의 일소(一掃)와 퇴폐된 국민 도의(道義) 및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淸新)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을 다짐하는 혁명공약 제3조항은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참다운 민주주의는 위정자(爲政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청신한 협동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종래의 '특권정치', '부패정치' 내지 '중우정치'를 타파하고 헌법이 목표하는 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제4로,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과 국가 자유경제 재건에의 총력 집중을 다짐하는 혁명공약 제4조항은 20세기적인 복리국가의 건설과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경제 질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제5로, 민족적 숙원(宿願)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全力)을 다 할것을 다짐하는 혁명공약 제5조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수호와 국토방위의 성업(聖業)의 달성 및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의 전역(全域)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여(제4조) 대한민국 주권 하에 국토통일을 기약하는 헌법의 목적을 구현, 달성하려는 것이다.

제6으로, 혁명 과업의 성취 후에는 언제든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移讓)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 것을 다짐하는 혁명공약 제6조항은 국민의 참다움고도 청신한 참정에 기본을 둔 민주입헌주의를 그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주의적 성격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필자·내각사무처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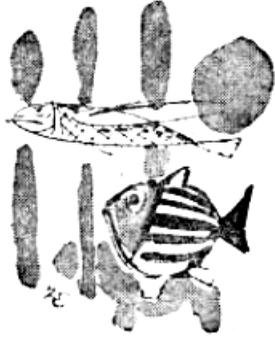
월간 「미사일」 4호

(8월 20일 발간 예정)

이데올로기 전쟁의 정신적 도전

- 무력에 의하지 않은 전쟁의 양상 -

J.A.토인비



1. 물질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행하는 적대 행위(敵對行爲)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이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서 행하는 정치 관계의 계속 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고방식은 일반화되어 있다. 백 년도 더 오랜 옛날에 철학자로서의 소질을 갖춘 프러시아의 군인, 전쟁의 연구가 크라우제비츠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급하였다. 또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말이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광보(廣報) 활동이나 전도(傳道) 활동 등 일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상이(相異)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전쟁인 것이

다. - 이러한 말은 사실로서 계몽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2.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서부터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제3차 세계전쟁은 원자병기(原子兵器)를 가지고서 싸우게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2회의 세계전쟁과 비교하여 훨씬 더 심한 황폐(荒廢)가 따르는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1945년 이래 우리는 2회의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것들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국지적(局地的)인 것이며 원자병기가 아니고 재래식(在來式)의 병기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전쟁과 베트남에 있어서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제3차 세계전쟁과 비교하거나 우리가 경험한 2회의 세계전쟁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재해(災害)로서는 소규모의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원자력(原子力)에 의

한 세계전쟁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2회의 구식(舊式)인 국지전쟁(局地戰爭)을 원자력 전(戰)으로 발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전(停戰)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쌍방은 극히 불만스러운 타협 조건하에 2개의 전란(戰亂) 지역에 있어서 평화를 마련한 것이었다. 여하튼 불만스러운 조건일지라도 원자력에 의한 제3차 세계전쟁보다는 훨씬 해악(害惡)이 적다고 느꼈으므로 쌍방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것이다.

3. 우리들은 이제 원자병기의 발명의 결과로서 인류가 스스로를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수단에 호소(呼訴)해서 정치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을 전폐(全廢)해야겠다는 희망을 품게된 것이다. 과학 면에 있어서의 원자력 혁명은 기술 면에 있어서 산업혁명이 19세기의 노예제도에 미친 것과 동일한 영향을 20세기의 전쟁에 대해서 미칠런지도 모른다. 원자력 혁명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전통적 수단을 절대로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凶暴)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할 런지도 모른다.

4. 그러나 물질적인 적대행위라고 하는 글자대로의 전쟁을 전폐(全廢)한다는 것은 경쟁이나 투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물질적 병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동시에 ‘아직 깃발의 색을 선포하지 아니한’ 인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들의 충절(忠節)을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또는 서방(西方)의 이데올로기 중 그 어느 쪽에서 차지하려고 비폭력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서방(西方)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오늘날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2조(組)의 이념 및 이상(理想)인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쟁은 1945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력전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명의 여명기(黎明期)부터 행하여져 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나 베트남에 있어서의 무력전쟁의 정지에 의하여서도 정지되지 않았다. 또한 무력전쟁이 완전히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지되지 아니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 뿐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더욱이 격화(激化)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끊임없는 투쟁성(鬪爭性)은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하여 주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마제국의 평화의 시대가 이데올로기 전(戰)의 활약기(活躍期)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시대는 그리스·로마적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그 당시까지 제(諸)국지적 국가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무력전쟁이 진압된 시대였던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경쟁이 인생과 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무력전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전(戰)은 불붙는 것이다. 우리들이 서로 투쟁하는 형태의 경쟁은 인간의 ‘원죄(原罪)’의

발현인 것이다. 혼(魂)이 스스로 투쟁한다는 형태의 경쟁은 사람이 '원죄(原罪)'와 싸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게다가 투쟁이라는 것의 전폐(全廢)를 피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목표로써 추구할 것도 못 된다는 의미도 있다. 만약 이것이 완전히 달성된다면 그것은 인생 자체의 종언(終焉)이 되는 셈인 것이다. "잉글랜드의 녹색의 마음 푸근한 땅에 신(神)의 왕국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나는 정신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나의 검(劍)을 함부로 놓히지도 않으리" 이것은 윌리엄 브레이크가 경쟁이라는 것을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의 기분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쟁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경쟁이란 것은 창조적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크리토스가 "전쟁은 만물을 낳는 아버지인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전쟁이라는 말을 이러한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무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쟁의 일종인 이데올로기 전(戰)이 본 고(稿)의 테마인 것이다.

5. 인류는 지금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데올로기 전(戰)은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의 총수(總數)의 4분의 3이 농민층에 속하고 있다. 그러한 농민층은 신석기시대의 초기 8,00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생활을 지금도 영위(營爲)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층은 아세아, 아프리카, 그리고 파라과이로부터 멕시코에 이르는 일련의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의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占)하고 있다. 인류의 나머지 4분의 1은 어느 정도까지 도회화(都會化)되고 공업화(工業化)되어 있다. 인류의 이러한 4분의 1이 지금 두 개의 진영, 즉 서방진영(西方陣營)과 공산진영(共產陣營)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다. 양(兩)진영은 동일하게 공업화된 도회적(都會的)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이 농민층의 생활보다 낫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兩)진영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깃발의 색깔을 선명케 하고 있지 아니한 인류의 과반수를 점(占)하는 농민층에게 공업화된 생활에 관한 자기들의 방법을 신봉(信奉)시키려 하고 있다. 대립 경쟁을 하고 있는 양(兩)진영은 어느 쪽도 과반수를 점(占)하는 농민층이 그 양자(兩者) 사이의 케스팅 보트(좌우하는 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兩)진영은 세계의 농민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상호(相互) 맹렬한 경쟁을 하고 있다.

6.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아니한

인류는 양(兩)진영의 그 어느 쪽을 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兩)진영 간의 계쟁점(係爭點)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그 계쟁점(係爭點)이 경제적인 것이다. 즉, 자유스러운 사기업(私企業)이 좋으나, 경제생활의 국가에 의한 통제, 규제가 좋으나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쟁점(係爭點)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강단(講壇) 이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구사회 및 공산주의사회를 포함한 기존 사회제도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통제와 사기업의 혼합이 은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사기업 대(對) 순수한 국가적 통제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나의 사회제도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 중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원리의 문제가 아니고 분량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분량의 문제는 타협하는 것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처리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사기업 대(對) 국가통제적 문제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 제도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당연히 혼합되는 것으로서 그의 혼합 비율이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응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답인 것이다. 비교적 유복한 사회에서는 사기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서도 동시에 그 사회의 전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높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교적 빈곤한 사회에서는 고도의 국가적 통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낮은 최저 생활 수준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제2차 대전 후의 미국의 경제기구나 영국의 경제기구가 틀리는 것이다. 합중국(合衆國)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半)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은 반(半)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는 이들의 두 개의 요소가 혼합되는 비율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분량상의 차이이며 정도의 차이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서로의 차이가 극복 가능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는 미국과 영국의 국민 간에 상호(相互) 친애와 신뢰의 감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가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이들 양(兩)국민은 상호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 실행 불가능으로 끝나 온 것은 무엇 때문일 것인가. 국가적 통제 대(對) 사기업이라는 문제가 양자(兩者)를 떼어놓는 사실상의 계쟁점(係爭點)이 그것뿐이라면 양자(兩者)는 영국과 미국의 국민처럼 용이(容易)하게 화합하였을 것이다.

8. 그렇다면 서구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사실상의 계쟁(係爭)

점(點)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고 도덕적 및 정신적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적인 자유와 공동사회에 대한 개인의 종속(從屬)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경제적 면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도 이것은 순수한 개인적 자유 대(對) 순수한 전체(專制)라고 하는 문제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하(如何)한 사회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어느 정도의 공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의 결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쟁점(係爭點)을 윤리적 및 정신적인 견지(見地)에서 볼 경우에는 경제상의 계쟁점(係爭點)과 달라 그것이 타협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분량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리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그 자체에 있어서 목적인 것인가 또는 끝벌이 벌집을 위한 수단이며 개미가 개미집을 위한 방편인 것과 같이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공동사회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9. 이것은 종교상의 문제인 것이며 경제상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서구와 공산주의 간의 현재의 이데올로기 전(戰)은 결정적인 계쟁점(係爭點)을 둘러싸고 사실상 의견을 달리한다. 대항적(對抗的) 입장에 있는 2개의 종교 간의 정신적 투쟁인 것이다. 이것이 양(兩)진영 간의 투쟁이 병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이 단지 선전(宣傳)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조차도 쌍방에게 대단히 강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10.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종교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종류의 종교를 일체 추방하여 버렸다고 주장하고 공산주의가 종교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와 같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공산주의는 틀림없는 종교이며 새롭게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낡은 종교인 것이다. 공산주의는 내셔널리즘과 같이 집단적인 인간의 권력을 숭배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이 1인칭 복수형(複數形)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로마제국에 있어서 여신(女神) 로마나 신성(神聖)하다는 씨자가 숭배되고 파라오 통치 하의 이집트에서는 신(神)의 현현(顯現)으로서의 국왕이 숭배되었다. 공산주의에 있어서 집단적 인간 권력에 대한 숭배는 이상에서 말한 것의 가장 새로운 변형인 것이다.

11. 금일의 서구의 종교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려낸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종교를 가려내는 것처럼 용이(容易)하지는 않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일의 서구인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이란 무엇인가. 희생(犧牲)하더라도 이것만은 전력을 다하여 싸워서라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답은 분명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집단적인 인간의 힘에 대한 숭배가 금일의 서구사회의 종교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금일의 서구사회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은 자기의 국가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人格)의 신성함인 것이다.

12. 이러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提起)한다. 서구사회인의 눈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이다지도 절대(絶大)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보잘 것 없는 미미한 인간이 인간 집단인 사회에 대항해서 인격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인간 집단인 사회는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아상(구약성서(舊約聖書)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13.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리바이아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를 아무것도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신(神)은 아니지만 리바이아상이 여하튼 자기네들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리바이아상에 봉사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러한 리바이아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의 일부가 이러한 데 있는 것이다.

14. 나의 이상(以上)과 같은 판단이 올바른 것이라면 공산주의와 서구는 인간에게 대단히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인간생활 가운데 상이(相異)한 요소를 중요시하는 점에서 의견이 상이(相異)한 것이다. 즉, 공산주의는 집단으로서의 인간의 권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서구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을 중요시하고 있다.

15.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과연 사실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의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우주(宇宙)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약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알고 있는 한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라면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어떠한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인류라던가 프롤레타리아라던가 또는 국민이라던가

에게 봉사(奉仕)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이 개인으로서의 남자, 여자 또는 어린이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보다 더욱 좋으며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숭고하고 그리고 훨씬 더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자기를 바쳐서 봉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이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점(占)한다고 하는 견해로 볼 것 같으면 공산주의의 이념 및 이상이 서구의 이념 및 이상보다 도리에 맞는 것이 된다.

16.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집단으로서의 인류에 종속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서구가 맹렬하게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구가 개인으로서의 인격의 신성함을 열렬하게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경우 오늘날의 서구는 공산주의 측이 그들의 신념의 기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의 확신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도 없다고 생각한다. 집단으로서의 인류라는 무상(無上)의 가치에 대한 공산주의 측의 신념은 우주의 성질에 관한 공산주의의 기본적 교의(教義)에서 오는 명백한 논리적인 결론인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라도 공산주의의 원리상 어찌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이 집단적인 인류라는 것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자기들이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신성시(神聖視)하는 근거를 설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상이(相異)한 대답들을 한다.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교와는 반대되는 자기들의 주의(主義)의 근거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두는 것처럼 서구 그리스도 교도(教徒)는 공통의 주의(主義)의 근거를 그리스도교 신학(神學)에 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구인의 대부분은 공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教徒)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서구인으로서 그리스도 교도(教徒)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어찌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신성시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서 현재의 그리스도 교도(教徒)가 아닌 서구의 다수자(多數者)가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신성시하는 점에서 그리스도 교도(教徒)인 소수자(少數者)와 일치하느냐 하는 데는 명백한 역사적 이유가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 교도(教徒) 아닌 다수자는 그리스도 교도(教徒)였던 조상의 후손들이며 그 개인으로서의 인격의 신성함에 대한 신념은 자기가 던져버린 그리스도교적인 배경으로부터 받은 유산(遺産)인 것이다.

17. 기초를 잃은 신념은 서서히 소모(消耗)되는 자산(資產)인 것이다. 서구의 신념이 그의 본래의 그리스도교적 기반에 또다시 의존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 인격의 신성함에 대한 서구 측의 신념이 영속(永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서구 측이 집단으로서의 인류의 지상(至上)의 가치에 대한 공산주의의 신념에 대항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서구 측의 인간에 대한 신념이 공산주의 측의 신념에 대항해서 그의 지위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둬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교도(教徒)는 개개의 인간의 영혼이 신의 눈으로 보아서 무상(無上)의 가치를 갖는다고 믿음으로써 집단으로서의 인류에 대립해서 개인으로서의 인격에는 침해(侵害)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증(實證)했다고 믿고 있다.

18. 만약 개인으로서의 인격의 신성함에 대한 서구의 신념이 이러한 본래의 그리스도교적 기반 위에 재차 서게 된다면 마르크시즘의 기반 위에 서는 공산주의적 신념과 적어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구가 그리스도교에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을 잡는 경쟁에 있어서 편리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만의 이유로서는 한번 버린 종교를 또다시 갖는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어떤 종교를 묵수(墨守)한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욕(私慾) 없이 성의(誠意)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다만 종교만을 목적으로 하고 부대적(附帶的)으로 얻게 될지도 모르는 종교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도 없고 미덕(美德)도 없으며 효과도 없는 것이다.

19. 서구가 또다시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의 견해로는 서구와 공산주의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정신적 도전인 것이다.

20. 만약 서구가 또다시 그리스도교로 된다면 전통적인 형태의 그리스도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은 17세기 이래의 서구의 인간의 지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21. 더욱이나 우리들은 운명을 걸고 그리스도교의 진수(真髓)와 그리스도교에 부가(附加)된 것을 판별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가된 것을 빼버리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2. 그러한 부가된 것이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문학(天文學), 즉 물질적인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지구가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것은 이미 버려졌다.)
- ② 그리스 철학의 의미로서의 신조(信條)
- ③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데 관한 신화(神話)

23.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것이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被造物)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신인 것이다.

(끝) (장대원(張大元)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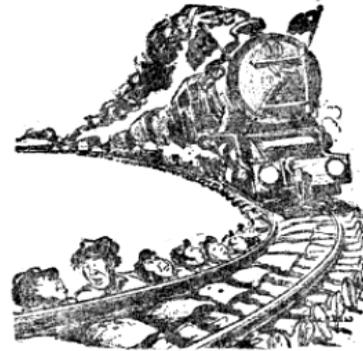
오만(傲慢)한 야심(野心)의 기치(旗幟)

- 소련 공산당(共産黨) 새 강령(綱領) 초안(草案) -

소련 공산당(共産黨)은 지난 7월 30일에 그들의 기관지(機關紙)인 프라우다 지상(紙上)을 통해서 소련 공산당의 새로운 강령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오는 10월 17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제22차 소련 공산당대회에 제시되어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장문(長文)에 걸친 동(同) 초안 전문(全文)을 여기에 전부 소개할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을 일언(一言)으로 표현하면 자유세계(自由世界)에 대한 오만(傲慢)하고도 야심(野心) 가득 찬 일종의 선전(宣戰)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데 동(同) 초안이 오는 제22차 소련 공산당대회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되면 1919년, 즉 42년 전 그들이 채택한 레닌의 소련 공산당 강령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초안에 의하면 소련을 기수(旗手)로 하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은 자유세계에 대하여 결전(決戰) 태세를 한층 더 선명히 하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에 걸쳐 그들의 지배권(支配權)을 쟁취하려는 집요(執拗)한 도전을 노골적(露骨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새로운 강령 초안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自信)과 오만과 야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므로해서 우리들 자유제국(諸國)은 이것에 대한 당연한 어떠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前) 미(美) 국무장관(國務長官)이었으며 소련 통(通)의 권위(權威)로 알려졌던 델레스 씨는 그 저서 「전쟁과 평화」 속에서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에서보다도 침투공작에서 얻은 것이 훨씬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쉴 사이 없이 침투공작을 전개하고 있어서 소련과 그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상 사실상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평화처럼 보이지마는 그것은 단지 열전(熱戰)이 아니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동(同) 초안은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 등 현재까지의 공산당의 교조적(教條的)인 폭력주의를 수정하여 이른바 ‘평화공존(平和共存)’이라는 이름 하에 비열전(非熱戰)(비전쟁(非戰爭))적 정책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의 하나의 예를 들면 강령 초안은 동서(東西) 간 경쟁 무대에서 오는 신생(新生) 후진국군(後進國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 후진국군(後進國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당(黨)의 대외정책의 주(主) 부문(部門)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동맹화(同盟化)되지 않은 후진국에 대한 침투 공작과 중립국가군(中立國家群)에 대한 그들의 침투 공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침투 공작에서 후진국 또는 중립국가군(中立國家群)을 자유진영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국제 공산세력으로 이끌어 넣자는 야망을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동(同) 초안에 의하면 소위 식민적(植民的) 해방 전쟁의 지지, 평화 투쟁의 지원이니 하는 용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침투 공작에 의한 간접 침략을 말하는 것이며 평화 투쟁의 지원이라는 정체



중공(中共)의 철도 침목(枕木)

가 반미(反美) 운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 열전(熱戰)에보다 비군사적(非軍事的) 면에서의 도전의 격화(激化)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동(同) 초안은 소련의 대내외 정책을 이른바 ‘평화공존(平和共存)’에 두면서 견고하고 강화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침투공작의 계속된 평화 아닌 투쟁으로써 자유진영의 파괴와 분열, 약화를 꾀하여 공산주의 질서의 세계적 제패(制覇)에 궁극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후르시초프의 냉전(冷戰)은 스탈린의 그것에 비하여 한결 교묘(巧妙)한 형식을 취하고 있거니와 동(同) 초안은 이 점도 여실(如實)히 반영하고 있다. 스탈린의 냉전은 정상적이고 단조로웠다면 후르시초프는 훨씬 복잡하고 폭

이 넓어 경제적, 정치적 면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同) 초안은 1957년 11월의 이른바 모스크바 평화선언 이래 1960년 6월의 부카레스트선언, 그리고 작년 11월의 81개국 공산당 선언에 관해 크레믈린이 표명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앞으로 20개년에 걸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완성할 것과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경쟁적 평화공존에 의한 공산주의의 승리’라는 어구(語句)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자기들과 행동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라도 꼭 적(敵)으로 간주(看做)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강인성(強韌性)과 농민들의 중대한 역할 등 스탈린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인식을 그들 영도자(領導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외(例外)하게 하여 대외공작의 넓은 진폭(振幅)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른바 수정주의(修正主義), 교도주의(教導主義), 분파주의(分派主義)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각국의 특수 조건에 따라서 사회주의로서 독자적인 방향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대외정책의 노선에 있어서는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그들이 밝혀 준 주어진 역사적 조건에 스스로 적응시키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국제적 추이(推移)를 극대(極大)한(極大限)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종전(從前)의 낡은 강령이 주장했던 폭력적이며 전투적인 혁명 수단에 일위적(一位的)인 중요성을 두어 온 교조적(教條的) 경향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할 시는 폭력적 수단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폭력이나 전쟁은 결국은 종전(從前)과 다름없이 시인(是認)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목적 달성, 즉 공산주의의 세계 제패(制覇)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障害)가 미국임을 명백히 하면서 미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더 한층 단결하고 치열(熾烈)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力說)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 간부들은 동(同) 초안을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두어 현금(現今)의 정세를 분석하고 역사상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를 규정한 위에 당면(當面)의 목표를 전망, 이에 대한 대처(對處)로서의 방침(方針)을 정한 소련 공산당의 새로운 도표(道標)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 공산당은 이것을 기준으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강행(強行)할 것이니 우리는 이 같은 그들의 야망을 분쇄(粉碎)하기 위한 만반(萬般)의 새로운 대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Y)

특집 ·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一. 공산주의 체제의 취약성(脆弱性) 한재덕(韓載德)

二. 자유진영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책동(策動)의 패배(敗北)
 김창순(金昌順)

- ① 영국 ② 미국 ③ 불란서(佛蘭西)[프랑스]
- ④ 서독 ⑤ 일본 ⑥ 이태리(利太利)[이탈리아]

三. 공산권(共產圈) 내부의 실정 외국 간행물에서

- 1. 소련 편 ① 소련 정치 생활의 편모(片貌)
- ② 소련의 소비생활
- ③ 소련 경제성장률의 분석

- 2. 북한 편 ① 송북자(送北者)의 편지
- ② 북한의 신문
- ③ 맹종(盲從)과 맹동(盲動)의 지역

3. 중공 편 불란서(佛蘭西)[프랑스] 통신특과원 베루날·유루맨의 르포

4. 동독 편 탈출자 레온·하루트의 수기(手記)

5. 홍아리(洪牙利)[헝가리] 편 뉴턴의 위조 서한(書翰)

- 四. 공산주의 하(下)의 이모저모
- △ 공산주의 하(下)의 경찰관 생활
- △ 공산주의 하(下)의 대학 교육
- △ 공산주의 하(下)의 민족 감정
- △ 공산주의 하(下)의 인간 금고(金庫)

사진 - 건디기 어려운 공산 동독의 질곡에서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무사히 탈출한 피난민들이 수용소에 도착하여 긴장을 풀자 모두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취약성(脆弱性)

- 특히 그 이론적인 면에서 -

한재덕(韓載德)

☆ 머리말

오늘 불행하게도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더욱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까지 공산주의가 일정한 기반과 역량을 갖추게 된 사실을 우리는 싫던 좋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인정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현실과 그 장래성(將來性)을 제멋대로 허위 선전하고, 그 힘을 터무니없이 허장성세(虛張聲勢)하며 나아가 공산주의의 필승(必勝)을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다. 그들을 이것을 그럴듯하게 논증(論證)해 보려 또 선전해 보려고 갖은 노력과 변설(辯說)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취약성을 드러낼 따름이다. 즉, 그들이 공산주의의 위력(偉力)이나 또는 필승(必勝)의 근본적 조건으로서 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실(實) 오히려 공산주의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들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필승이 아니라 필멸(必滅)의 요건들인 것이다. 아래에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특히 이론적인 면에서 들어보기로 하자.

공산주의의 근본적 약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실(實) 그 생 역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공산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변(強辯)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산주의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과학적 이론이요,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학설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세계에 기어코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그 광신적(狂信的)인 필승의 신념의 기본이다. 그 리하여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것의 시조(始祖)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현대 공산주의의 종주(宗主)인 레닌과 스탈린, 오늘 그것을 계승하여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후르시초프와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하여 실(實)로 수다(數多)한 공산주의자들의 방대한 서적과 언설(言說)들이 공산주의가 가장, 아니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인 듯이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부질없는 노력을 경주(傾注)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실로 자초지종(自初至終)으로 모순과 거짓에 가득 찬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이론이며 주의(主義)라는 것이 날이 가고 시대가 흐를수록 똑똑히 드러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역사와 현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란, 단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일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이 또한 공산주의 현실의 역사가 길어 갈수록 - 특히 스탈린 이후의 현실에 있어서 여지없이 실증되고 있다. 첫째로 공산주의 이론의 철학적 기초라고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唯物論)이니 유물사시(唯物史視)이니 하는 것부터가 그러하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변증법(唯物辯證法)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유물사관(唯物史觀)이야말로 인간세계를 해석하고 인류 역사를 해명하는 유일한 열쇠인바 그것에 의하면 인간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오로지 (유(唯))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이며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오로지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것이 이겨나가듯이 신흥계급(新興階級)이 낡은 계급을 타승(打勝)하는 것으로 봉건사회가 노예사회를 타승(打勝)하고 자본사회가 봉건사회를 타승(打勝)한 것과 같이 새로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는 낡은 자본주의 사회를 타승(打勝)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의 승리는 결정적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역지를 쓰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도 그 점을 특히 신이 나서 되풀이하는 공산 광신교도(狂信敎徒)이다. 김일성(金日成)은 그의 기만사업의 분공(分工)을 맡은 주졸(走卒)들, 즉 소위 노동당(勞動黨) 선전(宣傳), 선동(煽動) 일꾼들을 위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언설 가운데서 인민들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민들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우선 인민들에게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 첫째 조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인식시켜야 하겠다. 사회주의는 새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초기에 있어서는 미약(微弱)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조만간(早晚間)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세력을 타승(打勝)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 이러한 사관(史觀)은 일견(一見) 그럴 듯이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속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희망적 관측(觀測)이 아니면 상투적(常套的) 사술방문(詐術方文)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 역사 발전의 근원은 생산력(生産力)이라고 하지만, 그 생산력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인간의 의지요, 지능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손 도구가 기계로 된 것이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기계를 만든 것은 첫째로 그것을 만들려는 인간의 의욕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그것을 가능케 한 지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만있는데 기계가 발명되고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 문제도 그러하다. 그것은 각기 자기 계급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간의 투쟁의 역사라기보다, 보다 보람 있게 살려는 인간의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권을, 즉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인류의 고귀(高貴)한 노력과 투쟁의 발자취인 것이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고대(古代)에서 중세기(中世紀)로, 중세기에서 근대사회로 개관(概觀)하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노예-봉건-자본주의 사회로 분류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의 일관(一貫)한 기조(基調)는 보다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활동(투쟁이라고 하여도 물론 좋다)의 발자취였다. 봉건사회에서 노예사회에로의 발전, 그리고 다시 자본민주사회에로의 발전은 지주(地主) 그리고 자본가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혈적(血跡)이라기보다, 보다 더 많은 인민에게 보다 더 충실한 인간성과 보다 더 큰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 즉 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숭고한 인간 활동의 거룩한 발자취인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 노예사회 보다는 중세기의 봉건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보다는 근대의 시민사회(市民社會)에 있어서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권이 보다 더 보장받게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보다 더 행복스럽고 산 보람 있는 사회,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려면 그에 상부(相副)하는 물질적 조건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반적(隨伴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답게 사는 첫째 조건, 아니 기본조건은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개인의 본능적 지향인 동시에 인류의 궁극적 지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사의 입장으로 보아 오늘의 사회(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다음에 올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불리는 사회이든 오늘의 민주사회보다도 더욱더 인간성과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완전한 절대 민주사회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인류 역사의 옳은 사명이요, 당연한 과제이다. 공산주의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야말로 이러한 완전 자유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고 그럴듯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뒤이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사실 공산독재사회를 꾸며놓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임시적인 것으로 선전(宣傳)하나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다. 즉, 그들은 일국(一國)에서는 그 나라에 일체의 소위 반동세력(反動勢力), 즉 공산주의에 맹종(盲從)하지 않는 모든 세력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세계에서는 비공산국가(非共產國家)가 하나도 없이 될 때까지, 이 프로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이니 그런 때는 물론 이 세상에 올리 만무한 것으로 이것은 즉 공산독재를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의 독재라고 하지만 공산독재란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계급의 독재는 고사하고 그 전위부대(前衛部隊)라는 공산당의 독재도 못 되는 것이다.

노동계급이나 공산당이란 다만 그 이름을 도용(盜用)당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공산독재란 그 실(實) 공산 두목(頭目)의 개인 독재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오직 숨 쉬는 기계 취급하는 유물주의(唯物主義) 사상에 기초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사상 모든 독재 방식의 경험을 섭취(攝取)하고, 공산당이라는 최신식 인민 학정(虐政) 기구(機構)를 이용한 공산독재는, 실로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악독(惡毒)하고 잔악(奸惡)하고 철저한 독재인 것이다. 일찍이 역사상 시민사회에서는 물론 봉건사회에서도 심지어 노예사회에서도 사람의 인간성이 이렇듯 무시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하였던 시대는 없었다. 노예사회에서는 일부

노예를 동물 취급하였다면 오늘의 공산사회에서는 공산 간부 이외의 전(全) 인민을 기계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공산 두목-간부당원(幹部黨員)- 평당원(平黨員), 그리고 비당원(非黨員) 사이에 인간적 평등이 존재할 수 없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평당원(平黨員)도 사람 구실을 못하며 말 한마디 제대로 발언할 수 없다. 하물며 비당원(非黨員)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 대신 공산 고급간부들이란 유고의 전(前)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었던 쟈란케빗치도 명명(命名)한 바와 같이 이 사상 초유의 신계급(新階級)인 것이며, 일찍이 없었던 특권 귀족인 것이다. 하물며 당(黨) 괴수(魁首)이라! 스탈린이나 마오쩌둥(毛澤東), 후르시초프, 적게는 김일성(金日成)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역사상에 이런 지독한 전제적(專制的) 폭군은 없었던 것이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이

는 이렇다!

북송자(北送者)의 편지

-북괴(北傀)의 허위(虛僞) 선전(宣傳)을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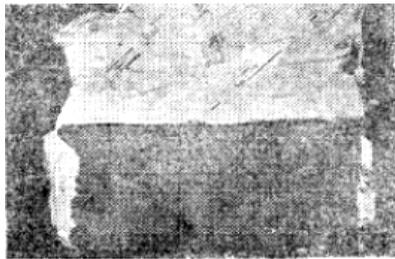
북한 편 ①

재일교포(在日僑胞)의 북송(北送) 반대 데모가 연일 계속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는데 벌써 1년 반의 시일이 경과 되었다.

그동안 재일(在日) 조총련계(朝總聯系)의 허위 선전에 속은 귀환(歸還) 희망자 수는 합계 60,424명이었으나 송북(送北) 동포들이 비밀리에 전한 편지에 의하여 북한의 참상(慘狀)이 폭로되고 또한 일본인 기자의 보고와 일본의 치안 당국에서 관계자에 배포한 '북한의 근정(近情)'이란 팜플렛을 통해서 실정(實情)을 알게 되자 송북(送北) 취소 희망자가 속출(續出)하였는데 그 수는 수천을 산(算)하게 되었으며 그 뒤도 격증(激增) 추세에 있다.

× ×

↓ 이중봉투의 뒤에 쓰여진 편지



그러면 이들이 북송(北送) 희망을 취소하게끔 된 직접 동기가 된 귀환자의 편지 및 일본 치안 당국의 팜플렛 내용의 일부를 여기 소개하여 괴뢰(傀儡)의 비인도적(非人道的) 수단과 학정(虐政) 및 북한의 실정을 알리고자 한다.

“동생 보아라. 그뒤 집안은 무사한지 궁금하구나. 아이들 미요도 충실하냐? 누이는 북한

다. 공산주의에 만일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런 미증유(未曾有)의 점들에 있어서나 새로운 것이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발전사 상 응당 다음에 와야 할 보다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새 사회 대신에 그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철저히 자유와 평등과 인간성이 유린된 반민주(反民主) 독재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생역지가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역지가 있지만 역사(인류사)를 역전(逆轉)시키려는 역지보다 큰 역지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치차(齒車))를 뒤로 역전시킬 수는 없다는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 어니와 그들이야 말로 역사를 역전시키려는 자들이다. 이런 역지가 통할 리가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 공산주의 이론과 사관(史觀)의 첫째

공산권(共産圈) 내부

에 도착하였지만 기분이 쾌(快)하지 않다! (중략) 나의 마음은 동생밖에 모를 것이다. 지금 북한은 소위 건설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고역(苦役)이 심하다. 그래서 동생이 더 보고 싶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 (중략) 우리 집이란 선전(宣傳)과는 달리, 바락크로 보잘것없으며 이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또 이곳은 전부가 배급(配給)이다. 그 몫서리치는 배급 소리. 그런데 그 배급이란 것도 도무지 말이 아니란다. 석탄을 써서 밥을 짓는데 3·4시간이나 걸린다. 의복이란 것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있어도 비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또 배급을 받을 때는 자전거도 없어 머리에 이고 다니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옷을 보낼 수 있으면 흰 치마저고리를 한 벌 보내다오. 미기(美技)는 빨리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곳에서는 결혼 준비는 전부 여자 측에서 한다니 큰 걱정이다.

여기는 자전거도 없고 탈 것이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야 하며, 백리(百里)라도 걸어야 한다. ……”(약(略))

이것은 북한의 함경북도(咸鏡北道) 청진시(淸津市)에 송환된 김자(金子) 영자(榮子)(가명)라는 여인이 일본에 있는 동생 김전균(金田均)(가명=오사카 시(大阪市) 나니와구(浪速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며 봉투에는 레닌 우표 두 장이 붙었고 이 편지가 본인에게 전달되는 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적나라한 감정의 호소로서 그녀의 생활상태가 드러나고 있다. 송환되면 고택(家)에 입주시킨다고 하더니

모순과 불합리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공산주의 약점의 기저(基底)가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적대계급(敵對階級) 간의 폭력 투쟁의 역사라는 사관(史觀)은 유혈(流血)을 즐기는 호전적(好戰的)인 그들다운 억지이다. 이것은 인류가 본연적(本然的)으로 지향하는 보다 인간적이며 자유로운 사회로의 발전의 길을 억지로 가로막고 현존의 사회제도를 폭력적 수단, 그것도 그중에 가장 비극적(悲劇的)인 유혈적(流血的) 내란(內亂)의 격발로써 전복(轉覆)하고 무리(無理)로 공산독재사회를 날조(捏造)하려는 공산혁명주의자들의 야망과 프로그램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이론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모순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세계 인류는 무엇보다도 또한 평화를 사랑하고 원한다. 그래서 타 국가와 민족 간의 전화(戰火)도 유혈(流血)도 이것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바락크집이요, 탈 것도 없고, 의복도 살 수 없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 ×

여기서 일본의 치안당국이 제공한 북한의 근황을 소개하면,

△송환자 수용 상황

송환자는 희망지(希望地)를 모두 평양(平壤)이라고 쓰지만 기술자가 아니면 갈 수 없다. 현재 평양(平壤)은 도시계획으로 인구가 오버되었다는 구실로 괴뢰(傀儡) 관헌(官憲)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기술자 아닌 사람은 강제적으로 탄광 또는 농촌노동에 돌린다.

△소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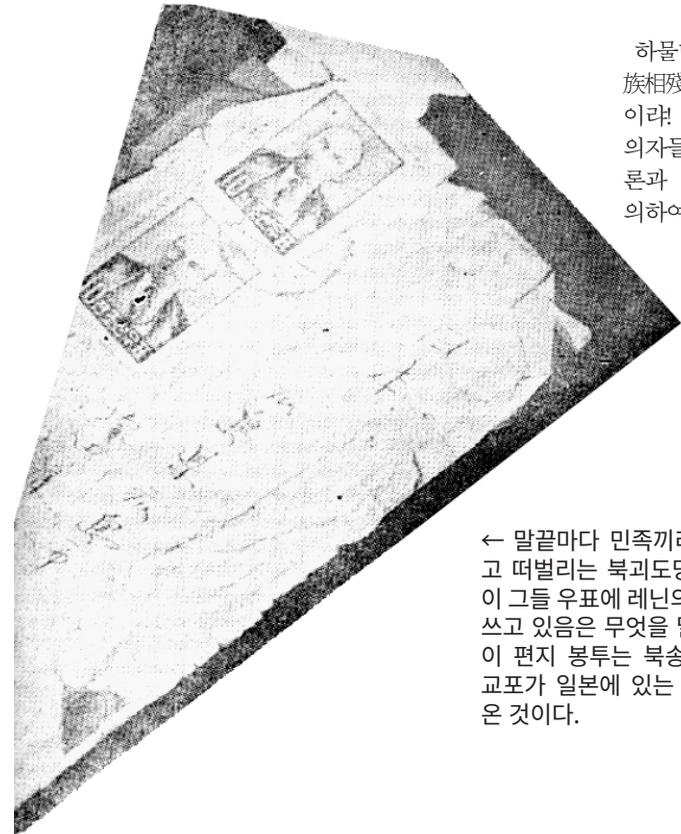
부모가 병에 걸려도 식사에 쌀 한 톨 없고 도토리, 대두(大豆)로 끓인죽 뿐이다. 식료품은 대체로 배급이고, 고기와 계란은 매월 티켓을 받는다. 구두가 귀해서 겨울에도 짚신을 신는다. 인견(人絹) 한 마(碼)에 150원(일화(日貨)), 타올 1매에 750원(일화(日貨)), 사탕은 없고 석유도 부족, 의약품도 태무(殆無), 생활필수품이란 극히 귀하고 과일은 사과뿐이며 채소는 시금치뿐, 그것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물자 부족을 불평하면 반동(反動) 취급이다. 그들은 저장을 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문제의 편지



△도시 생활

최초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양복장, 신발장 등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뒤는 없어졌다. 평양(平壤)-



하물며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내란(內亂)이라!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사관(史觀)에 의하여 이것을

← 말끝마다 민족끼리 민족끼리 하고 떠벌리는 북괴도당(北傀徒黨)들이 그들 우표에 레닌의 초상(肖像)을 쓰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편지 봉투는 북송(北送)된 재일 교포가 일본에 있는 아우에게 보내 온 것이다.

원산(元山)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일보(一步) 시가지(市街地)를 벗어나면 십수 년 전 그대로이다. 지방으로 간 사람은 생활비가 더 들고 공동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은 물을 갈아 넣지 않으니 황토물이나 마찬가지로 더럽기 짝이 없고, 시설은 유치하다.

△직업 관계

이곳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일본에서 토목 청부(請負)하던 사람도 탄광 인부로 돌린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운동선수와 기술자, 예술가 정도 ……

이렇게 그 일부만 들어도 전기(前記)한 여인의 편지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고층건물과 아파트, 포장(鋪裝)된 도로, 훌륭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왕국(王國)에나 가는 듯 희망의 꿈을 꾸었던 송환자들은 북한 땅에 한 발을 디디게 된 그 순간부터 이러한 비참한 생활에 허덕이게

필연적으로 강조하고 선동하여야 된다. 이러한 주의(主義)가 오늘 용납될 리가 있겠는가!

또 공산주의자들은 앞서 인용한 김일성(金日成)의 말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새것은 낡은 것을 이기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새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길 것은 필연적이라고 즐겨 말한다.

일견(一見) 그럴듯한 여기에는 어떠한 모순과 거짓이 숨겨 있는가?

물론 새것은 낡은 것 위에 생겨나고 발전한다. 씨(종자(種子))가 변하여 싹(아(芽))이 자라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씨가 싹이 되려면 그 발전에 일정한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순리(順理)를 밟아야 한다. 씨가 갑자기 독화(毒花)가 될 수는 없으며 총알이 될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올 새 사회란 보다 더 완전한 자유평등 사회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 ×

그러면 재일(在日) 대한민국 거류민단(居留民團)에 보내진 편지 한 장을 더 소개하자. (원문대로)

“먼저 편지는 거짓말만 써서 안 됐다. 나쁘게 쓰면 편지를 전해주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썼으니 용서하라.

거짓이란 다름 아니라 일본서 북한 사정을 선전하는 것은 사실과 전연 반대라는 것이다. 노동 대금(貸金)은 싸고 물가는 비싸고 매일 싸움판이다.

대금(貸金)은 보통 노동자가 1개월 약 400원, 물가는 일본에서 4, 5천원짜리 시계가 150-200원에 팔리는 정도다. 옷은 상하 일착(一着)이 20-30원이다.

과자, 비누 등은 엄청나게 비싸고 싸다고 하는 것은 쌀, 기차, 전기료 정도이고 학교에 가면 누구든지 1개월 15원 받으며 기숙사에 들어가면 식비가 4원 50전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학교에 가면 1개월 4원, 부모가 여기 없으면 13원, 그 밖에는 1전도 없다. 나는 4원이다. 정말 일본에서의 말과는 아주 틀린다.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을 말하게 되면 반동(反動)으로 몰리게 된다.

농번기(農繁期)에는 학생도 모내기(農繁)에 동원(動員)된다. 그것도 1주간 무료 봉사다. 허리가 아프고 배는 고프고 죽을 지경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쌀이 싸다고 했는데 그것도 배급제(配給制)다.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배급은 약 800그램, 중노동자(重勞動者) 1,200그램, 학생은 700그램, 일반 노동자는 800그램,

자들은 그 극악성(極惡性)에 있어서 미증유(未曾有)의 것인 공산독재사회를 새것이라 하여 그 필연성도 순리(順理)도 무시하고 억지로 갖다 현재 사회제도에다 접목을 하려 한다. 그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새것으로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혼동한 억지의 문제이다. 그것은 새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공산주의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實) 아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과 인간성을 무시한 극소수에 의한 독재 착취 체제라는 의미에서는 자본민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봉건사회보다도 더 심하고 더 낡은 것이다. 이런 낡은 독재체제야말로 반드시 소멸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반드시 패멸(敗滅)할 것이다.

★ 그렇듯 철저한 수탈제도가 영속(永續)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일하지 않는 부녀자, 아이들은 300그램, 그리고 배급 이외에는 아무런 물자도 구할 수 없다.

외국에 보내는 편지는 조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쓴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암호를 쓰겠다.”

이 편지는 일(一) 고교생인 이케우치 하루요시(池内春吉)(가명) 군이 일본 히로시마 시(廣島市)에 있는 학우(學友)에게 보낸 것인데 보통 안부 편지를 넣고 또다시 이와는 다른 내용으로 이중봉투의 앞쪽에 연필로 썼다. 검열을 속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내는 사람 이름은 가명을 쓰고 상대에게만 알게 한다는 것이다.

× ×

다음은 송환된 후 북한의 약학전문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일본 기후현(岐阜縣)의 학우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다.

전략(前略) “…… 이곳은 지금 외화(外貨) 획득이라는 이름 밑에 약초를 외국에 수출(輸出)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들도 약초 탐사(探査) 작업뿐 아니라 매 조(組)마다 0.5킬로그램씩 국가에 납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은 꿈도 꿀 틈이 없다.

이곳에서는 과자라는 것은 사치품으로서 전연 없고 병에 걸렸을 때는 일본의 과자 생각이 간절해서 눈물이 나와 못 견딜 지경이다.”

또 다음은 제12차에 청진(淸津)에 송환된 2남1녀의 어머니인 한 부인이 민단(民團) 오사카(大阪) 본부에 보낸 서신이다.

“실례(失禮)를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며 민단(民團)의 단장님에게 우리들의 실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우리들은 재일(在日) 조총련(朝總聯)의 일방적인 선전에 속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일본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청진(淸津)까지 오는 도중 왜 우리들이 이곳으로 오는

주의의 힘과 필승의 요인으로서 소위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優越性)에 관하여 특별이기를 즐겨한다. 김일성(金日成)은 전기(前記) 연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했다.

“.....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인민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폐허 위에 새로 건립된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모른다. 이런 사회는 반드시 융성(隆盛), 발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金日成)은 동서(東西) 양(兩)세계와 남북한의 수다(數多)한 그러나 거짓에 찬 이야기들을 나열하여 서방(西方) 민주국가의 멸망과 사회(공산)주의의 승리를 증명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거짓 인증으로 꾸며진 결론이 거짓일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김일성(金日成)은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인 미국의 실례(實例)를 들어 봅시다.”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며 궤연(蹶然)히 일어나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해방 투쟁(그것은 공산 운동이라는 말이다)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미(美) 제국주의는 어차피 멸망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희망과 현실을 뒤바꾸는 단정을 내렸다. 이것은 직접 이렇게 말한 김일성(金日成)이가 얼마나 영똥한 거짓말쟁이인가를 실증하는 구체적 예일뿐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자 그리고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거짓으로 꾸며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實例)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원론에서 필연적으로 풀려 나오는 관측이요, 판단인 것이다. 그것에 의하면

.....
것을 민단(民團)의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말리는가? 또 우리들이 희망한 곳으로 가는 것을 왜 거부하였을까? 하는 증오감(憎惡感)을 느끼면서 무사하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반대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어 본의(本意) 아니면서도 여러분들을 한때 증오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와서 놀란 것은 일본에서 들던 것과는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상생활 필수품 및 식료품 중에도 특히 채소 등은 도대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에 와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 일본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생활하며 가난하면서도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자본가의 것잡을 길이 없는 착취에 의하여 중산계급은 프롤레타리아로 몰락하고 노동계급은 극도로 빈궁하여지는 대신 해방 투쟁 역량은 강대해진다. 이 모순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폭력혁명으로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 이래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이며,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도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이 나라에서는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중산계급은 몰락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발전, 확고해 가고 있으며 생산이 발전할수록 노동계급은 극빈해 가기는 고사하고 수입과 생활이 계속 향상되어 노동자 가운데서 사회 주권(株券)을 사는 사람이 늘어가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얼마든지 있다. 실업자(失業者)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보장받은 실업자는 공산국가의 보통 취업노동자보다는 비교적 좋은 형편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다. 하물며 미국에서 수다(數多)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영똥한 수작인가! 그리하여 미국에는 노동운동은 있어도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소위 계급 해방 투쟁, 즉 공산혁명운동이란 발붙일 곳조차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사회의 모순은 인력(人力)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그 몰락

.....
여기서 나 자신(自身)이나 아이들은 기근(饑饉)과 고통에 찬 생활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저히 살아나갈 자신(自信)이 없습니다.

끝으로 단장님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죄송(罪悚) 천만(千萬)이오나 저의 남편을 만나시켜주든 잘 설득시켜 송환을 단념(斷念)하도록 권(勸)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저ীদের 행(幸)일까 하나이다.”

이러한 사연의 글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이밖에 “술이라고는 1주에 1합(合) 정도만 배급을 주니 위스키 몇 병만 보내다오”, “입고 온 오바, 시계 등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어 썼으며 앞으로가 막연하다”, “의류 사정이 극히 나쁘니 올 때는 3년분쯤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한다.” 등의 서신이 일본의 민단(民團) 각 지부나 친척, 지인에게 보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85면으로)

북한의 신문

이동준(李東濬)

북한 편 ②

언론(言論)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민의 총복(忠僕)으로써 민중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되어야하며 따라서 인민의 것이 외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언론의 봉쇄는 민주주의 원칙의 침해인 동시에 독재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 하(下)의 언론은 위에서 말한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민중의 귀, 눈, 코가 되어 그들의 공익(公益)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산독재자의 독점물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대변(代辯)하며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공산세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공산독재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으며 인민의 공복(公僕)으로서의 본래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 못 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 하(下)의 신문이 철두철미(徹頭徹尾) 공산독재자들의 독점물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대변, 선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 만큼 신문 발행에 대한 당(黨)의 검열과 통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엄격하다.

신문에 대한 당(黨)의 이와 같은 검열, 통제의 실시는 물론 그것이 하나의 당(黨)의 기관지(機關紙)로써 그 입장을 대변, 선전하기 위한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밖에 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신문 그 자체를 자기네들의 선전 목적에 알맞게 재편집하기 위해서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 사회 하에서의 신문에 대한 검열 및 통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검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며 그리고 또 얼마나 엄밀한가 하는 것으로써 역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여기에 그 일례(一例)를 간단히 들어본다면

은 불가피(不可避)의 것이라고 하여왔지만 민주국가들은 자체 내부에서 발생 하는 이러저러한 모순들을 효능적(效能的)으로 해결, 처리하면서 몰락은 고사하고 전승국(戰勝國)인 미(美)·영(英)·불(佛)뿐만 아니라 패전국(敗戰國)이었던 일본·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특히 서부(西部) 독일(獨逸)의 실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유경제에 의한 번영의 길을 꾸준히 전진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자본민주 사회체제 내의 모순은 결코 해결 불가능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절(調節), 해결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정, 개선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 현실적으로 실증된 것이다. 그것은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론이나 정책에 있어 공산주의자들 같이 고수(固守)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교조(教條)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 따라 얼마든지 고치고 적응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민주사회가 우월한가

공산권(共産圈) 내부는 이렇다!



각 부서에서 작성되는 기사(記事)는 우선, 해당 부장의 데스크를 거쳐서 편집국 부국장 및 국장의 엄격한 검열을 받은 후 부주필(副主筆)을 경유하여 주필(主筆)(사장)의 최종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필(主筆)까지의 이러한 통과는 신문 검열의 제1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제2단계의 검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내각(內閣) 직속 경영의 이른바 출판지도(指導) 검열국 및 노동당 중앙당부 출판과의 검열을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열 과정은 곧 신문이 당(黨)의 기관지(機關紙)라는 것은 또 별도 문제로 치더라도 그것이 당(黨)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러한 엄격하고도 복잡한 당(黨)의 검열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공산독재자에 대한 예찬(禮讚)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성과의 과장(誇張) 및 가공적(架空的)인 생활 통계 수학의 나열, 사실과는 판이(判異)한 국민의 물질,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비공산국가들에 대한 악의(惡意)에 찬 옥설과 비방 등의 판에 박힌 공산당 전용의 선전 용어으로써 언제나 충만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당(黨)은 신문 검열 과정을 통해 기사 내용에 관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신문 편집 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는 것이다.

즉, 후르시초프나 김일성(金日成) 등 공산 두목들의 사진은 반드시 제1면 상단에 게재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연설문이나 보고문 그리고 당(黨)의 결의문, 호소문, 성명문(聲明文) 등은 1면 중간에 실려야 하는 등 하나하나 중앙당부의 지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신문 검열 과정을 통해 만일 기사 내용은 고사하고 단 한 자(字)의

공산독재 사회가 우월한가는 천국과 지옥 같은 서부(西部) 독일(獨逸)과 동부(東部) 독일(獨逸)의 실례(實例)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金日成) 도배(徒輩)의 말이나 공산주의 이론의 거짓과 모순은 물론 이상(以上)에 맞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산주의 혁명은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징조(徵兆)조차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소련이나 중공, 북한 기타 공산위성국가(共産衛星國家)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낙후(落後)하고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이 압도적(壓倒的)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모두 다 전쟁 후의 혼란을 틈타서 날치기 식으로 강행되고 억지로 공산사회가 꾸며진 것이다.

오자(誤字)라도 발견되면 곧 트집이 되며 당(黨)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곧 당(黨)에 대한 그의 충성심 여부 문제에 결부(結付)되며 나아가서는 반당분자(反黨分子)에 이르기까지 발전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黨)의 검열과 통제 하에서 꾸며지는 공산주의 사회 하(下)의신문 기사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통제와 제약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기사의 첫머리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당(黨)의 정책 및 그 시책(施策)의 정당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다음으로는 이러한 모든 성과는 오로지 수령(首領)의 올바른 영도(領導)의 결과라는 것이 틀림없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 생산되는 기사는 자연히 인간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하나의 교양독본(敎養讀本)으로써 공산당 독재정치를 변호, 선전하는 대변자 및 선전자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사회 하(下)의 신문들이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매일같이 신문독보회(新聞讀報會)나 학습회(學習會) 등을 마련하고 직장 종업원들을 이에 참석시켜 놓고 신문에 게재될 당(黨)의 보고문, 연설문 및 기타 중요 기사 등을 선택해서 독보회나 학습회를 시키고는 그 문제에 관한 토론 및 상호(相互) 의사문(意思文) 교환을 시킨다.

독보회나 학습회에서 취급된 문제를 가지고 학습 강사는 수시로 질의문답식으로 그 이해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에 독보회에서 취급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낙오(落伍)한 비열성분자(非熱誠分子)로써 비판을 받게 된다.

모든 직장 종업원들은 본인의 지식수준별로 해당 신문독보강(新聞讀報綱)이나 학습강(學習綱)에 각각 속해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학습 노트를 구비해 가지고 독보(讀報) 및 학습 내용을 필기해야 한다.

특히 공산 두목의 보고나 연설 또는 당(黨)의 결정들이 신문에 게재될 때는 독보회, 학습회, 토론회 등이 몇 번이고 거듭되어 종업원들에게 철저히 침투,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공산주의 사회 하(下)에

이것은 오늘 실천된 공산주의가 그 실(實) 그들 자신의 교리(敎理)조치를 배역(背逆)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뿐이 아니다. 전기(前記) 김일성(金日成)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의 가장 큰 거짓의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의 사회이기 때문에 몰락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데 반(反)하여 사회(공산)주의 사회에는 착취가 없으며 이것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는 고집(固執)이다.

공산사회에는 과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실 이곳에는 지주(地主)나 자본가의 착취란 없다. 지주(地主)나 자본가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곳에서는 적색독점기업가(赤色獨占企業家)에 의한 전국민에 대한 전일적(全一的) 집단 착취가 있다. 그것은 전(全) 국가의 일체의 경제, 모든 기업과 토지까지를 사회주의화(社會主義化) 또는

서의 언론, 출판이라는 것은 명실공히 공산당의 독점 하에 조정되면서 그들의 독재정치를 강화하며 공산주의 선전과 그리고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순전(純全)한 정치 목적에 이용될 뿐이고 광범한 사회적 여론과 인간성의 객관적 진실을 반영 못 하고 신문으로서의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 하(下)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사명과 목적이 공산지도자들의 조정 하에 그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그리고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의 붉은 사상을 주입시키는 데 그 방향을 돌리고 있을진대 그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신문 기자나 언론인들도 자연히 본래의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들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숨 쉬는 대서기(代書機)에 지나지 않는다.

환언(換言)하면 공산주의 사회 하(下)의 신문 기자들은千篇一律(千篇一律)의 공산주의 선전에 자(資)하는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주장을 공산당에 의해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의 기본 사상을 전파(傳播)하는 원칙적인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공산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가공적인 생산 통계 수학 그리고 소위 노동 영웅의 생산 기록을 조사(措寫)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수동적(受動的)인 상태에서만 그의 취급이 허용된다.

이러한 형식에서 엮어지는 기사의 주문(主文)은 그 내용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산당이 내세운 목표와 목적에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공산사회 하(下)의 기자들은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기사를 보다 잘 엮을수록 보다 잘 대우되어 평가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산사회 하(下)에서 제작되는 기사 내용이 공산주의의 사상과 그 목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 만큼, 이 기사 내용은 왕왕(往往) 사실과는 정반대로 조작되거나 혹은 과장된다.

여기에 간단한 일례(一例)만을 들어보더라도 인터뷰 상에 있어서 상대방은 사전(事前)에

국유화(國有化)의 명목으로 공산 두목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산 북한(北)의 실례(實例)에서 보자.

북한에서 개인의 사경제(私經濟)란 구멍가게 하나 없이 만들고 모든 경제 실권(實權)을 김일성(金日成) 일당(一黨)이 독점하였다는 사실을 김일성(金日成) 자신 이렇게 말했다. “당(黨)의 영도(領導) 밑에 …… 우리나라에서는 정전(停戰) 후 불과 4-5년 내에 농업협동화(農業協同化)와 개인상공업(個人商工業)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사회주의적 경제 관계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일적(全一的) 지배를 확립하였다.” - 이것은 모든 경제가 전부 하나로, 즉 사회주의경제로 되었으며 그 명목으로 노동당화(勞動黨化), 즉 김일성(金日成) 일당의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일적(全一的)으로 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金日成) 일당뿐이기 때문이다.

당(黨)에 의해서 준비, 작성된 답변을 행하거나 혹은 반면에 기자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 공산당의 비위에 알맞도록 입의로 그 내용을 작성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서 이미 상술한 바 대로 기사 내용은 자연 과장, 왜곡되며 선전의 수단으로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인터뷰 상의 기자 질문 요지도 사전에 당(黨)에서 마련되어 기자들에게 골고루 배포되며 그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석상(席上)에는 반드시 당(黨)에서 밀파(密派)된 공작원(工作員)들이 출석하여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

공산세계에 있어서 언론인 행세가 이처럼 판에 박은 듯이 기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산제도의 하나의 필연적인 산물(產物)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공산 기자들은 공산주의 사상 전파를 위한 선전(戰線)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전 요원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사명과 역할은 매우 크며 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것을 오직 자기들의 공산 흥망(凶望)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소위 국가재정 예산이라는 것을 보면 1961년도에 있어 실로 그 96.2%가 소위 '사회주의 경리(經理)로부터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주의로부터의 수입이란, 즉 김일성(金日成) 일당이 독점한 그 모든 경제기구를 운영하여 그것으로부터 얻은 이익금이라는 말이다. 이 운영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마르크스 경제 학설(잉여가치설(剩餘價值說))에 의거하더라도, 그 기업체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착취한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이익금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하여 모든 국민을 그 독점기구 내에 몰아넣어 놓고 경제계획 초과달성이니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이니 하며 겨우 생명이나 유지할 수 있는 혹심(酷甚)한 대우 조건으로 13, 4시간의 강노동(強勞動)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이러한 중강노동(重強勞動)은 일찍이 전사(前史)에 없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착취 사회가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혹독한 착취가 감행(敢行)되는 공산독재 독점사회야말로 먼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또 반드시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공산독점 제도 하의 착취란 보다 교묘하면서도 보다 흉악하며 그야말로 범국민적(汎國民的)인 집단 착취이면서도 개개인에 대하여는 더 없는 철저한 착취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나중에는 금융자본화(金融資本化)하여 극소수 독점자본가가 절대다수자를 압박, 착취하게 됨으로 그 멸망이 필연적이라고 하지만 공산독재

당(黨)의 통제 하에 움직이는 공산세계의 기자들의 소행(所行)은 날이 갈수록 다시 말해서 공산제도의 질서가 더욱 확립되어 갈수록 더욱 심한 통제 속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제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은 비록 공산주의 선전에 자(資)하는 기사 내용조차도 일정한 계획과 목적 하에서 또 제약되어야 한다.

대략 이러한 당(黨)의 통제와 제약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사 내용은 대중에게의 공산주의 사상 주입과 당(黨) 정책의 집행에 관한 것이 근 40%, 생산 성과에 관한 것이 30%, 공산지도자들에 대한 찬양 기사가 20%, 그리고 기타가 10% 정도의 비율로 지면을 메꾸게 된다.

전기(前記)와 같은 기사 배량(配量)으로 신문은 형식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면 등으로 구성된다고는 하나 그의 전(全) 논조(論調)는 공당(共黨) 선전의 일률화(一律化)를 관철(貫徹)하고 있는 바 그것은 신문으로서 갖추는 품위와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 언론기관 및 그곳에서 종사하는 기자들은 국민의 권익(權益)을 옹호하는 그들의 진정한 대변인이나 또는 여론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재론(再論)할 여지도 없다. (필자 · 전(前) 소련 프라우다 지(紙) 북한 특파 기자, 현 외국어대학(外國語大學) 강사)

독점사회야말로 극소수 공산두목들에 의한 전국민의 철저한 압박, 착취가 행해지는 사회이니 공산주의 논법(論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끝말

공산주의 사회란 그들 자신의 논법으로 본다 하여도 이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고 또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는 모순과 억지와 거짓에 가득 찬 사회이다.

이와 같이 역사에 반역(反逆)되고 사회에 위배(違背)되고 인간에 배척(背馳)되는 모순과 억지와 거짓으로 꾸며진 독재독점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의 재화(災禍)일뿐 아니라 인간의 수치(羞恥)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래 갈 수는 절대 없다. 그것은 반드시 패멸(敗滅)하지 않으면 와해(瓦解) 또는 변질(變質)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엄존(嚴存)하고 상당히 위세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이 또한 억지와 거짓 이부진(理不盡)의 권력(차라리 폭력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에 의한 것이다. 군대화(軍隊化)할 권력 기구로서의 대규모의 공산당 조직, 그리고 사상 미증유(未曾有)의 정치 경찰력과 완전히 당병화(黨兵化)한 붉은 군대 등등, 이러한 억지 힘과 한편 간교(奸巧)하고 음흉(陰凶)한 대대적인 기만(欺瞞) 선전 - 오직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그것은 억지고 유지되고 있으며 허세(虛勢)를 올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이러한 억지 사회가 오래갈 리는 만무하다. 오래지 않아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 그 효능을 잃을 것이며, 이러한 거짓과 모순을 토대로 한 억지 권력은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 즉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는 날이다.

(후기 - 필자의 처음 의도로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취약성, 그 와해의 필연성을 먼저 이론적 면에서부터 해명하고 다음으로 체제의 실제 면을 상술하려 한 것인데 벌써 주어진 지면을 지나쳐버렸다. 할 수 없이 실제 편은 다음 기화로 미루는 바이다. - 한(韓))

자유진영(自由陣營)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책동(策動)의 패배(敗北)

1. 영국 2. 미국 3. 불란서(佛蘭西)[프랑스]
4. 서독 5. 일본 6. 이리(伊利)[이탈리아]

…… 김창순(金昌順)

★ 이론(理論)의 명제(命題)와 실천(實踐)의 과제(課題)

패전(敗戰) 직후의 일본에서 “공산주의와 친황폐하를 모르는 일본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친황폐하는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심성(心性)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공감(共感)으로 되어졌다. 이것은 일본인의 전후(戰後) 공산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음미(吟味)거리가 된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은 “좌익(左翼)에는 적(敵)이 없다.”라는 오랜 신조(信條)를 유지하여 왔다. 과연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산당에 투표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혁명을 원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옹호해 줄 것을 기대해서이다. 그러나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국민의회(國民議會) 내에서 공산당이 점(占)하고 있었던 의석(議席) 수는 1956년에 143석이던 것이 지금은 10석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이나 영국 또는 서독(西獨),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할 것 없이 선진공업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은 공명자(共鳴者)를 얻고자 하는 사회집단은 물론 노동자 계급이다.

그러나 현시(現時)의 미국 또는 서구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대헌장(大憲章) 시대의 소위 무산대중(無產大衆)과는 판이(判異)하다.

칼 마르크스가 묘사한 혁명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은 결국 후진(後進) 지역의 반공하고 문맹(文盲)한 노동자들로 되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기대하였던 선진공업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이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마르크스가 거의 무시해버린 농업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후진 지역에서 러시아 혁명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혁명이란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고 발달 된 사회에서 소위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더는 지탱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불가피적으로 초래되는 사회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 이론(理論)의 명제(命題)와 실천(實踐)의 과제(課題)
- ★ 기구론(機構論)과 상태론(狀態論)의 투쟁(鬪爭)과 숙제(宿題)
- ★ 선진사회(先進社會)에서의 각개(各個) 상황(狀況)의 검증(檢證)



그렇지만 1917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점령한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 내지는 1949년에 중공이 정권을 탈취했던 그 당시의 그 나라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누가 보든지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공업국가는 아니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되지 않으며 계급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계급적 사상의식이란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그들의 독재정권을 쟁취하자면 계급의식을 가져야 하며 계급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과 교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프롤레타리아란 것은 그 당시 러시아보다는 영국이나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또는 독일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명제대로 되자면 계급의식이 높은 프롤레타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또는 독일과 같은 선진공업국가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개가(凱歌)를 울렸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은 그대로 되어지지를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와 같은 후진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1917년 당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란 것은 인구의 근소(僅少)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을 따름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문맹이거나 기술적으로 미숙한 노동자들이었다. 또 그 당시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에게 부하(負荷)하고 있는 소위 '위대한 사회적 사명'이 무엇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 그 당시의 후진적 러시아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공업국가와는 아주 대조적(對照的)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이란 것은 소위 각성(覺醒)된 프롤레타리아 자신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인텔리층이 주동이 되어 미숙한 노동자들과 어수룩한 농민들을 선전, 선동하여 폭력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한 혁명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미 공업화된 선진공업국가의 노동자들과 국민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의의(意義)를 상실해버린 마르크스 이론을 원시적(原始的) 방법으로 강요하는 폭력혁명이었다.

그러한 혁명으로 얻어진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란 것은 내용적으로는 극렬적(極烈的)인 인텔리들의 독점물이었고 노동자, 농민은 혁명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가?

마르크스의 이론적 명제와 공산주의자들의 현실적 과제가 맞지 않는다는 발견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 것인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기초(起草)한 이래로 선진공업국가의 사정이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선 들어야 할 것이다. 선진공업국가들의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모두 장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대로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두 주먹 밖에는 실로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적빈자(赤貧者)로 전락(轉落)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부유해진다. 그리하여 중산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벌써 무산계급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착취의 근절(根絶)이라는 속삭임이 싱겁기 짝이 없는 구전(口傳)으로 밖에는 더 흥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산계급화된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그토록 정력적(精力的)으로 묘사한 혁명세력이 아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선진공업국가의 노동자들은 100년 전의 프롤레타리아도, 50년 전의 프롤레타리아도 아니다.

또 선진공업국가의 자본가들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대로의 미숙련공(未熟練工)의 값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는 무자비한 탐욕가가 아니라 보다 임금(賃金)을 많이 지불하고 보다 선진적인 기술과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이윤(利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리하여 더 많이 생산하는 물건이 노동자들의 차지하는 분배와 자본가들의 추구하는 이윤을 보다 증대시킨다는 마르크스 이후의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부딪혀 마르크스주의의 낡아빠진 고전 법칙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실을 가로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直視)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적(故意的)으로 부인하는 독단론적(獨斷論的)인 공산주의의

경골인간(硬骨人間)들은 흔히 노동귀족론(勞動貴族論)을 전개하고 있다.

이 노동귀족론(勞動貴族論)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앞잡이로 매수(買收)되어 노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신의 안락(安樂)만을 취하는 변절자(變節者), 부패분자(腐敗分子)라고 몰아낸다. 그리하여 참으로 가난하고 부단히 착취당하는 불우한 노동대중들만이 공산당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 자신의 모순을 더욱 폭로하는 동시에 그러한 이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모순을 면(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에는 고임금(高賃金) 노동자들이 사회당에 못지않게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말 가난한 노동자들만 이 공산당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회주의 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 내지는 파쇼 정당들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고(頑固)한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노동귀족론(勞動貴族論)이란 것은 현실 부정(否定)의 고의적인 인공론(人工論)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따져볼 때 각국이 철저하게 공업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중산화(中産化)되며 더욱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바로 그 조건에 있어서 선진공업국가의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일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선진공업국가에도 가난한 노동자와 때로는 실업자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그러나 이들은 100년 전, 50년 전의 그러한 가난뱅이와 룬펜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요(要)는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높아가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는 공산주의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면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책동(策動)이란 것은 전세기(前世紀)의 케케묵은 극물(劇物)의 변사(辯士) 노름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선진공업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策動)이 항상 수치스러운 좌절과 패배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잘못이 없을 줄 안다.

★ 기구론(機構論)과 상태론(狀態論)의 투쟁(鬪爭)과 숙제(宿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공업국가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있었거나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농업이 지배적인 후진국가에서 1917년의 러시아 10월 혁명, 또는 2차대전 후의 동구사회(東歐社會)의 공산당정권의 출현과 1949년 10월의 중공 정권 등등 그 모두가 후진성(後進性)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策動)이 성공했다는 것은 마르크스 명제의 역행(逆行)이며 모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선진사회에서는 왜 마르크스가 묘사한 대로의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집약적으로 해명해 보았다.

그러면 후진성 사회에서는 어찌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책동(策動)하는 바가 몇 군데서 성공하였으며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가?

사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조건 하에서라도 어느 일국(一國),

또는 어느 1개의 지역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혁명론은 이른바 동시혁명론(同時革命論)인데 그에 의하면 최소한 몇 개 국가에서 또는 서구지역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레닌에게는 마르크스의 이 주장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이며 기실(其實) 영원히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레닌은 마르크스의 동시혁명론(同時革命論)을 무자비하게 전복하였는데 레닌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혁명론은 그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까닭으로 레닌이 살고 있었던 소위 제국주의 단계에 적합한 혁명론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하고 레닌 자신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마르크스 혁명론을 제국주의 시대의 단계에 알맞은 혁명론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이름 지었다.

레닌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것은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이며 특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략전술(戰略戰術)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레닌이 말하는 제국주의 시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단계를 말함이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혁명단계는 어떠한 것이었던가? 그건 역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단계를 말함이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나 레닌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자기만이 마르크스를 제국주의 단계에 알맞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하의 마르크스를 격분케 할 노릇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것은 요컨대 레닌의 마르크스의 명제를 가지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란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단정 하에 억지로나도 인위적으로 혁명을 하면 그만이라는 독단론(獨斷論)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레닌의 생각으로는 자본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고도로 발달된 조건 하에서 각성한 프롤레타리아가 동시적으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상 싶지가 않은 일로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먼저 없어지고 말리라는 것이 레닌의 전망인 것이다.

그리하여 레닌은 “혁명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쟁취해야 한다.”라는 과격론(過激論)을 내세웠다. 이것이 기구론(機構論)이다.

레닌의 이러한 기구론(機構論)은 아무런 사회, 경제적 여건 없이도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기만 하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법적(非法的) 폭력주의 혁명을 말함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서구사회주의는 말하기를 “사회주의는 폭력으로 때려잡거나 탈취할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소련 편 ①

소련의 소비생활
생활과 분배 및 생활수준

후로이드.A.본드

소련 경제 제도는 전쟁 중 미국이 취했던 통제경제(統制經濟)와 비슷한 것이 그들의 평시(平時)의 제도이다. 물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배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상기(想起)하면 족하다. 나는 전쟁 중 어린이의 밀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소련에서는 이런 일은 매일같이 있다.

그런데 소련의 경제 제도는 수요(需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결정되고 있다. 말하자면 소비자의 이익에 치중해서 경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텔레비전, 의류, 자동차 등이 늘어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텔레비전 세트가 증가 되었을 뿐, 다른 주택,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의류 등이

의 계양(階樣)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상태론(狀態論)이다.

이래서 비폭력주의적 기구론(機構論)과 합법비폭력주의적 상태론(狀態論) 간의 논쟁은 이미 제1인터내셔널 때부터 싹이 터 가지고 제2인터내셔널 시대에는 완전히 분파(分派) 활동으로 결렬(決裂)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러시아에서의 레닌의 집권과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코민테른(제3국제공산당-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출현으로 기구

론(機構論)의 공산주의자들과 상태론(狀態論)의 서구사회·민주주의자들은 누가 분가(分家)인지도 모르게 헤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선진사회의 소위 계급정당으로서의 사회당(社會黨)·사민당(社民黨) 또는 공산당(共產黨)이 있지만, 사회당·사민당은 모스크바의 노선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반(反)하여 공산당들은 모스크바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와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공산당은 전후(戰後)에 대정당(大政黨)으로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듯이 보였지만 기타의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서구사회주의 정당들이 공산당을 압도(壓倒)하고 있다. 영국에 노동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만 영국 공산당수(共產黨首)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리하여 선진공업국가들에서 공산당과 사회·사민당들은 모두 노동계급을 조직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가 노동자들을 자기 당(黨)으로 끌어 넣으려는 경쟁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

일국(一國) 내에서 노동조합이 둘, 셋의 계통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 단체들이면서도 혹자는 공산당을, 혹자는 사민당을 지지하여 그 하단체(下團體)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공산당들은 자기계열이 아닌 각종 노동운동체 내에 프락치를 넣어가지고 사회주의 정당들로부터 노동자를

증산(增産)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쩌서 텔레비전이 늘었는가 하는 점이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텔레비전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고 납득 시키며 강요하는 도구으로써 알맞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늘지 않는 이유도 뚜렷하다. 지하철이나 택시 표는 소 연방(聯邦)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부 수입이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서둘 필요는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자동차의 생산 증가를 위해서 자원이나 기술을 소비한다는 것은 군수품(軍需品) 생산에 지장을 가져온다. 이 같은 경향은 미국과는 정반대다. 소련의 총생산량이 미국과 비등(比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다른 아닌 모든 경제의 움직임이 정부의 설정 목표에 집중됨을 말하는 것이며 엄격한 계획경제임을 말한다. 근본적 결정, 다시 말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정부의 수뇌부(首腦部)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경제 수뇌부 - 즉, 최고계획담당부는 고스프란(GOSPLAN)이라고 하는데 소 연방 국가 최고계획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하부(下部)에 각 공화국에 종속된 위원회가 있다. 이 고스프란에는 약 2,000명의 종업원이 있고 수뇌부 약 200명 중 반은 경제학자들이다.

금일 소련 경제가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그것과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移讓)되었다는 것뿐이고 시장수요(市場需要)는 의연(依然) 생산에는 하등(何等)의 영향이 없다. 생산해야 될 물품의 수량은 관료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의 어느 부분을 군수(軍需) 생산에, 어느 부분을 공업(工業) 생산에, 어느 부분을 소비자를 위한 상품 생산에 배정하는가 하는 것은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이다.

각 기업, 사회 등 업체는 내년도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당국에 제출한다. 여러 단위 기관은 이러한 계획 제안을 검토하여 취사선택(取舍選擇)한 후 고스프란에 송부하면 고스프란에서는 전체 경제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각 공화국 고스프란에

배어내려고 백반(百般)의 흉책(凶策)을 다하고 있으며 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共)·사(社) 연합 전선(戰線)을 제청(提請)하여 공동으로 보수 정당에 대항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노동자들 앞에서 사회당 또는 사민당 지도자들의 비행(非行)을 중상모략적(中傷謀略的)으로 유포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사민당 지도자들을 노동계급으로부터 고립시키므로써 모든 노동운동체들을 공산당의 독점물로 만들려는 흉책을 정력적(精力的)으로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는 도리어 자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선진공업국가들에서는 공산당과 사회·사민당 간의 대립·압투가 부단(不斷)하다.

요컨대 그러한 대립·압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모스크바의 기구론(機構論) 노선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과 자주적 서구사회주의의 전통을 고수하는 상태론(狀態論)자들 간의 조화될 수 없는 대립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사회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하는 정치적 요인의 하나로 되어진다.

★필자 · 후로이드A본드 박사



본드 박사는 미국 경제학자로서 소련 경제계획 본부를 시찰(視察)한 소수의 소련 경제통의 한 사람이다. 그는 최근 소련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신문 기자들과 일문일답(一問一答)을 행하였는데 이 글은 그것을 역자(譯者)가 요약한 것이다.

지시하고 각 업체는 고스프란의 지시로서 비로소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무슨 자원을 쓸 것인가를 알게 된다. 업체는 물론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경제가 자유주의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과시(誇示)에 기초가 두어진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시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주(企業主)가 생산하는 양은 생산계획에 따라서 즉, 생산이 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도외시(度外視)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국민은 이쯤 가지게 한다, 저쯤 가지게 한다는 양을 결정해놓고 생산계획을 세운다. 그러므로 국민이 원하던 원치 않던 국민의 소비량은 경제계획 관리들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희귀(稀貴) 소비품에는 실제 생산 가격의 2배 또는 3배를 붙인다.

그리고 생산비와 상품 가격의 차액(差額) 일부분이 배급비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회전세금(回轉稅金)이 된다. 이 회전세금이 소련 정부의 경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 회전세금은 막대한 세입(歲入) 원천(源泉)인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판매세(販賣稅)를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과세(課稅)하지만 소련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에 중세(重稅)를 가(加)한다. 이러한 예로서는 카메라와 텔레비전을 들 수 있다. 어떤 영화촬영기가 처음에는 약 800루블로 시장에 나왔는데 그것이

전후(戰後) 불란서(佛蘭西)프랑스와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에서 공산당들이 선거를 통하여 제1당이 되기는 하지만 다수당(多數黨)으로서의 집권을 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사회·사민당은 공산당에게 정권을 담당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때마다 보수당 또는 중간 보수와 연합하여 공산당의 집권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슬럼프가 선진공업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공황대망론(恐慌待望論)에 의거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슬럼프는 서구공산주의자들이 원하듯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1930년대 초의 대경제공황(大經濟恐慌)이 대량 실업을 생산시킨 것이 사실이로되 그것으로서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계기로는 되어지지 않았다.

경제공황으로 대량 실업이 생기는 경우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씩 팔리자 그다음에는 1,600루블의 정가(定價)가 붙어졌다. 한편,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세금(無稅金) 생산 가격이었다. 이것은 그 성능이며 구매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하는 단계였다. 물론 소련에서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며 얼마나 원하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이나 자유국가에 있어서의 경제원칙인 소비자 중심의 체제가 아님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므로 소련 국민들은 주는 것을 주는 값으로 받아 쓸 뿐이다. 비판이나 요청이나 불평을 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입놀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요,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비판, 요청, 불평 따위의 대상자를 사실상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시민들의 소비품 구매는 극도의 비능률적인 제도 하에 놓여 있다. 내가 알기에는 가정용품을 구입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간 내지 세 시간이 소비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소비생활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점과 그 배급조직이 비능률적인 데 있다. 상점은 대단히 혼잡하고 조금이라도 색다른 물건을 살려면 줄을 지어 늘어서야 한다. 국영(國營) 식료품 상점에서는 품질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소위 자유시장에 가게 된다.

자유시장이라 함은 합법적인 시장을 말한다. 이 시장은 농부들이 자경(自耕)할 수 있는 조그마한 면적에서 얻은 잉여(剩餘) 식료품이 매매(買賣)되는데 국영농장(國營農場)에서나 집단농장(集團農場)의 그것보다 양질(良質)이고 가격은 국영(國營) 상점에 비해 약 1할 5푼 비싸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국영 상점이 품질 되었을 경우에 자유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국영 상점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질이나 양에 있어서 특히 비내핍적(非耐乏的) 소비자 상품, 이를테면 의류 같은 것은 미국에 비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문제가 안 될 만치 나쁘고 부족하다.

공산주의 소련에서는 계급 없는 사회라고 떠들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볼 때 만해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하고 또 성장하고 있다. 경제기구에 종사하는

탈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은 전면적 폭동(暴動)인 바,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통치방법이 무너질 형편이라면 대실업가(大實業家)와 관료 및 군부(軍部)는 그의 권력을 공산당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들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이 1933년 1월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새롭다. 1930년대 초에 경제적 슬럼프가 우심(尤甚)했을 때, 독일(獨逸)의 실업노동자들은 공산당을 지지하여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히틀러 나치당에게 더 많이 투표했던 것이다. 독일(獨逸) 노동자들은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려가면서 계급투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와 같이 고찰하여 볼 때에 선진사회에서 공산당이 합법 선거이거나 또는 비법(非法) 수단의 폭동이거나를 막론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망은 거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후진사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농업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후진지역사회의 공산당·노동당들은 노동자·

사람을 비롯해서 공장 지배인 따위는 소 연방(聯邦)에 있어서 엄연한 귀족들이다. 이들 집단은 자동적으로 종신적(終身的) 계급이 되는 경향이 많다.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고급품이나 그들이 원하는 직책을 얻기가 쉽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는 데 있다. 공장 임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공장에서는 월 약 800루블이며 노동자는 기능에 따라서 500루블짜리가 있는가 하면 2,500루블이나 받는 자도 있다. 노동 영웅(勞動英雄)이란 칭호는 그들을 수입 관념에서 해방시키고 소처럼 일을 시키는 자극제(刺戟劑)로서 유일한 구호로 쓰여지고 있다.

한편 소련에서는 과학자들이 최고 계급에 위치한다. 그들은 최고의 수입과 최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직업과 계급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백만장자와 거러지와와의 차이를 사실상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노동자의 월 수입이 1,000루블 이하다 보통인데 공장 지배인은 5,000루블의 기본 급료에 거기에 책임원수니 원가절하니 하는 수당 조로 40%의 가봉(加俸)이 있는가 하면 과학자들은 정상업무 외에 강의를 한다든가 하면 연 10만 루블은 손쉬운 것이다.

소련의 노조(勞組)는 우리 미국이나 자유국가에 있어서의 그것처럼 임금인상 시간의 단축 등을 내거는 쟁의(爭議), 즉 노동자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투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규율이 확립, 명령의 체계화 등 단적으로 말해서 경영의 한 도구로써 조직되어 있을 뿐이다.

끝으로 소련 제도의 근본적 약점을 말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내가 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업의 비능률이라고 보아진다. 그들의 그와 같은 계획경제기구 속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생산 구조가 농업 부문이며 국민의 기본적 소비물자인 농산물의 능률적 생산 증가 없이는 그들의 가난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주찬 역)

× × ×

농민의 계급독재의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기실(其實) 이것은 정권욕(政權慾)에 날뛰는 과격한 인텔리들이 지배하는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結集)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과격한 인텔리 분자들이 어수룩한 농민들과 미숙한 노동자들을 선전·선동하여 폭력 수단으로서 정권을 때려잡는 작업만이 주안(主眼)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수단으로든지 우선 정권을 때려잡아 가지고 연후(然後)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구론(機構論)이 지배하는 곳이다.

1917년의 러시아 공산당이 결코 각성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아니었으며 또 중공당(中共黨)과 북한 노동당과 동구(東歐)의 공산당·노동당 등도 결코 세련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당이 아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다소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정치적으로 세련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없이

어떻게 계급혁명을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지노비예프의 규정대로 현 대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는 '농업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후진 지역 국가, 사회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전, 선동하여 폭력 수단으로서 정권을 탈취하는 전략술'인 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권을 때려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후진 지역 국가·사회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후진 지역 사회의 노동자·농민이란 것은 공산당 혁명의 자각적인 주력부대(主力部隊)이거나 선봉(先鋒)이 아니라 극렬적(極烈的)인 몇몇 공산주의 분자들에게 선전, 선동된 혁명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명제와는 역행이며 서구사회주의와도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현대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가 어째서 선진 사회에서는 빈축을 받으며 생리(生理)에 맞지 않는가에 대한 대조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후진 지역 사회에서 폭력 수단으로 정권을 때려잡은 오만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으로부터는 지금 마르크스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반드시 자본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은 없다. 외몽고(外蒙古)는 봉건체제로부터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 사회주의 단계로 이행(移行)한 것이다. 그것은 소련이라는 위대한 사회주의의 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오만한 마르크스주의 수정은 오늘날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곧 제국주의적 이론 도구임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사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서구사회주의 간의 이론적 대립 및 생리적(生理的) 부조화 관계가 날이 갈수록 격심(激甚)하여 간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선진공업 국가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이란 것은 공산주의



→ 북경(北京)에 있는 붉은 군대 - 북경시(北京市) 번화로(繁華路) 정양문(正陽門) 전(前)에서 총검훈련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하나의 시위(示威)인 것이다.

자들로서는 바랄 것이 못 된다.

여기에 이르러 후르시초프 시대의 소련 공산당은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응분(應分)의 수정을 가할 필요를 느낀 모양인지, 1956년 이래로 혁명이 아니고서도 의회제도(議會制度)에 의한 사회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종래의 혁명주의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스탈린 시대에 있어서는 편린(片鱗)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아직도 후진사회에 속하는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중공(中共) 노선과 선진자본주의 사회와 비견할 공업국가로 이룩한 러시아에서의 소공당(共黨) 노선이 일치할 수가 없다는 설도 대두(臺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과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리라.

그러면 공산주의의 속제는 무엇이나. 모든 국가가 공업화되어 선진사회로 발전되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운동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지며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귀착(歸着)하고 마는 것이다.

동시에 선진지역에서의 소위 사회주의운동이라는 것이 어름아름 하는 동안에 어느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울어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정치적으로 세련된 노동계급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노동계급이 없는 곳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니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선동의 방법과 폭력 수단의 혁명을 본받게 될 것이므로, 또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일므로.

△ 선진사회(先進社會)에서의 각개(各個) 상황(狀況)의 검증(檢證)

영국(英國)

세계에서 과격하고도 광적인 혁명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나라가 영국이다.

그것은 ① 정치제도에 있어서 의회제도(議會制度)가 강력하고도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② 교육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으며 ③ 숙련공을 많이 포함한 노동계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④ 인종의 동일성과 신앙의 관용성(寬容性)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나라는 서구에서 영국을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정치운동의 평화스럽고 민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주로 전기(前記)한 조건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공산당의 존재가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상적(印象的)인 존재로 화(化)하여 가는 느낌이 없지 않다.

영국의 공산당원(共產黨員) 수는 현재 28,000명을 헤아리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이렇다 할 작용을 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1956년에 영국 공산당원이 33,000여 명이었던 사실을 헤아려 볼 때 영국에서 공산당원은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줄어든 셈이다.

영국 노동자들이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원시적(原始的) 러시아인에게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서구적 의지와 반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영국 노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난 사실이다.

저 1920년대 초기에 영국 노동운동 안에 나타난 과격주의적(過激主義的) 경향의 성장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갖게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코민테른(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제3국제공산당)은 곧 소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영국 노동조합과 관련을 맺게 하였고, 그리하여 1925년에는 영(英)·로(露) 노동조합 위원회까지 조직되었던 일이 있다.

그때의 영국 노동조합들은 영(英)·로(露) 노조위(勞組委)가 러시아 노동운동과 구라파(歐羅巴)[유럽] 노동운동 간에 간접적 협력 관계를 조장하리라는 것과 그것의 발전으로서 노동운동의 통일이 달성되리라는 것을 희망하였지만 코민테른과 러시아 공산당의 희망은 그것이 아니었다.

소련 경제성장률의 정확한 판단

오오린.크라이크



이 글은 최근 미(美) 상원(上院) 사법위원회가 발행한 크라이크 박사의「소련 생산성의 현실」의 일부를 역자(譯者)가 요약한 것으로 크라이크 박사는 영(英) 옥스퍼드대학 교수이며 현재 뉴욕 계량경제협회(計量經濟協會) 연구소장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소련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6%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 연간 3.5%의 성장률을 가진 미국의 생산을 능가할 것이라 하는 설이 소련 연구가나 학자 또는 공직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획기적인 조치로서 미국의 성장률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잘못 본 터무니 없는 착각이요, 그 착각을 가져온 원인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그것을 분석, 판단해 보려는 것이다.

소련 경제의 성장률 6%라는 숫자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소련에 관한 환상에 속하고 있다. 이 환상은 1948-53년의 자료를 믿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상식적인 문제를 실제에 있어서 우수한 경제학자가 망각(忘却)해 버린 데서 기인(基因)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英)·로(露) 노조위(勞組委)를 영국 노동자들 사이에 공산주의 선전을 침투시키는 통로로 삼을 수 있겠는가 주목적이었다.

이 사실을 간파(看破)한 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1927년 9월에 영(英)·로(露) 노조위(勞組委)를 스스로 해체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영국 노동운동을 통하여 영국 노동자들이 '원시적(原始的) 러시아인에게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서구적 의지와 반향'을 견지(堅持)케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영국에서 계급정당으로서의 역시 노동당이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의 강령은 최근에 이르러 크게 동요(動搖)하는 빛이 보인다.

그것은 전자(前者)의 총선거에 있어서 보수당이 압승(壓勝)하고 노동당이 연패(連敗)한 데 기인(起因)한다기보다 영구 노동자들은 이미 사회주의 정책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起因)하는 것이라 본다.

영국 노동자들은 보수당 집권 하에서 영국의 경제적 흥륭(興隆)이 가져다 준 복지를 공정하게 평가할 줄 아는 현명을 소유한다.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소련 편 ②

여기서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어느 나라치고 그 생산을 저수준(低水準)으로 빠뜨리는 전쟁, 침략 그 밖의 재해로부터 회복기(回復期)에 있을 때 생산 성장이 급격으로 올라가며 그 후 전쟁이 없으면 도달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상적 템포로부터 계산해낸 수준까지 생산성이 접근함에 따라서 성장은 서서히 둔화(鈍化)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인 것인데 이 평범한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소련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빠뜨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는 2차 대전 후의 일본이나 서독(西獨),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소련과 비슷하게 황폐를 입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독이나 일본 또는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등의 생산성 향상이 미국에 비해서 급격적(急激的)으로 높아진 것은 중병(重病) 환자가 그 회복기를 만나 체중의 증가가 급격히 회복되는 율(率)과 비슷하다. 대병(大病)에서 회복기에 있는 어린이는 연속 2주일쯤은 중량이 급격히 불어간다. 치료 담당 의사가 중량의 증가 상(相)을 대수(對數) 도표라도 만들어서 어린이의 양친(兩親)에게 “이 애는 1년쯤 지나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커질 것이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의사를 자 격 없는 속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를 경제학자들은 소련의 경제 성장률 산정(算定)에 있어서 범(犯)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53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소련의 생산성은 이미 둔화하고 있다. 이제 연대적(年代的)으로 그것을 알아본다면 성장률이 높았던 기간, 가령 1933-37년 사이를 들 수 있다. 이 기간은 강제적인 농업의 집단화와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야기(惹起)된 혼란, 기아(饑餓), 교통의 마비 등을 치룬 뒤의 말하자면 재해의 회복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 짧은 회복기간을 기준해서 이것이 소련의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성의 성장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는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산업국유화(産業國有化) 정책이 영국 노동자들에게는 50년 전의 유물(遺物)로 밖에는 더 신스롭스럽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된 모양이다.

요(要)는 어느 것이 자신의 복리(福利)를 증진시키는가 문제이지 선거전(選舉戰)에서의 선전과 호소가 더 중요하다 할 법은 없다는 것이 영국 노동자들의 현실주의인 것이다.

영국 노동자들은 오늘날의 사기업이 결코 과거의 사기업과 동일하지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오늘의 사기업은 비록 법적(法制的)으로는 과거의 사기업과 다름이 없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므로 지난날의 순수한 사기업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노동할 권리와 정당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구태어 광적인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정상적인 생산 보조(步調)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련의 장기(長期) 성장률의 산출(算出)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1913-1956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간 성장률은 속임 없이 1.2%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 가장 생산성이 활발하였던 1928-39년간이 1.6% 내지 1.7%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소련 경제의 성장률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자유 제국(諸國)의 1인 1시간 당 실질 생산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1890년대 이후 다소 변동이 있기는 했으나 연간 2.3%의 성장률을 착실히 유지하여 왔다. 1인 1시간 당 실질 생산 성장률이 2%를 상회(上廻)하는 나라는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일본, 호주(濠州), 백이(白耳義)[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서전(瑞典)[스웨덴], 서서(瑞西)[스위스], 남아연방(南亞聯邦)[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상당히 많다. 1.2%라는 저성장률은 만성적(慢性的)인 통화(通貨)의 불안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남미제국(中南美諸國)과 중세(重稅)가 조해(阻害)하고 있는 영국뿐이다. 소련은 농업에 있어서 늦어졌고 건설 사업의 생산성은 1920년대 이후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내가 소련의 경제성장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의 일이었고 그 결과로서는 1939년에 간행한 「소련 통계학 비판」이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부문에 관한 자료 수집에 몰두하여 소련 공식 통계 보고서와 다수의 관련 서적, 그리고 소련 외에서 시도된 여러 가지 자료 등으로 연구와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이에 의하면 소련이 미국에 대하여 뒤떨어지는 것은 1인 1시간 당 실질 생산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련 인구의 증가율도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소련 당국은 놀랄 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련에서 주장되고 있는 인구 증가에 관한 숫자 속에는 국세조사(國勢調査) 또는 소련에서 자주 시행되는 선거권자 등록 등의 숫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많다.

사망에 관한 공식 통계가 적게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고의적인 사실의 음폐라기보다는 그들의 행정적인 결함인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아주

과격(過激)한 혁명운동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이 영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쇠퇴하여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일로 되어지는 것이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불란서(佛蘭西)[프랑스] 역시 영국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는 원시적(原始的)이고 빈곤한 농민층과 또는 그와 비슷한 소수의 미숙련 노동계급에 토대를 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숙련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공업국가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장구한 민주정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인종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있어서의 노동운동도 평화스럽고 민주적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공산당이 구주(歐州)[유럽]에서 제2의 공산당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 운동이 광적이고도 과격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모순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다만 불란서(佛蘭西)[프랑스]의 내정(內政)은 인지전쟁(印支戰爭), 알제리 전쟁 등의 식민지 문제로 인하여 이것이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자들은 폭력 수단으로서 1871년의 파리 코뮌을 재현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허기는 세계 최초의 노동자 정권은 1871년의 파리 코뮌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지만 불란서(佛蘭西)[프랑스] 인텔리들 가운데는 혁명의 조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불란서(佛蘭西)[프랑스]라는 긍지를 가지는 경향과 그리하여 “좌익(左翼)에는 적(敵)이 없다.”라는 심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 1956년 10월 소련이 헝가리 자유혁명을 폭력으로 진압하자 사르트르와 같은 유명한

줄어들어 최근 수년 간의 인구 증가율은 연간 1.5%이며 이는 미국의 1.8%에 비해서 낮다.

나는 경제학자이지마는 공산주의는 아무래도 더 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 광신적 유물론자(唯物論者)들은 개인의 자유, 민족적 전통, 종교 등을 물질상의 진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보수(保守)는 타(他) 국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 왔다. 빈곤한 나라에서 흔히들 공산주의는 “끓주린 배를 채워 준다.”라고 하지마는 농업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가장 비참한 패배를 다하고 있다. 아세아(亞細亞)[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中南美) 등 가난하고 정보에 어두운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는 물질적 진보의 관건(關鍵)을 쥔 나라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그 실은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 성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는 소련의 경제 사정에 의해도 능히 알 수 있다. 소련은 1917년에 그 정권을 수립하여 수천만의 민중을 강제노동에 동원했음에도 그 결과는 아직까지 일반 소비 생활의 수준이 전세기적(前世紀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추찬 역)

선물 ‘빠옥스’의 정체

〈레온.하루트의 수기(手記)〉

동독(東獨) 편

레온.하루트는 소련에서 양성된 동독(東獨)의 중핵(中核) 공산당원이었다. 그는 전후(戰後) 동독에 파견되어 공산정부의 수립 공작을 하다가 공산주의가 그 실체에 있어서 인민을 배신하는 여러 가지 사례에 견디다 못해 동독을 탈출하여 「혁명은 그의 아들을 버린다.」라는 실록책자(實錄冊子)를 간행하였다. 이 글은 그 책자의 일절(一節)을 발췌한 것이다.

여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공산주의의 강대성(強大性)을 말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불(佛) 공당(共黨)을 지지하여 투표하는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자들의 심성에 대하여 말할진대 그들의 요구 조건이 수락(受諾)될 호기(好機)만 있으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총파업까지도 감행할 용의(用意)를 가지고 있으면 또한 불(佛) 공당(共黨)이 자기네의 생활 개선을 옹호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지(支持) 투표도 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의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 수가 있다.

불(佛) 공당(共黨)은 1956년에서 58년에 이르는 2년 동안에 약 160만의 지지자들을 상실하였다.

1956년은 소련이 헝가리 자유혁명을 야만적으로 탄압했던 해이며 불(佛) 공당(共黨)을 지지하던 동조자(同調者)들과 동정자(同情者)들은 불(佛) 공당(共黨)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불란서(佛蘭西)[프랑스]인의 지성이 러시아인의 폭압주의(暴壓主義)에 반항한 것으로도 되며 적이는 불(佛) 공당(共黨)에 대한 그들의 지지가 종전(從前)에 있어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놓은 것으로도 된다.

1958년 9월 28일 알제리 문제에 관한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국민투표가 있을 때 불(佛) 공당(共黨)의 입장을 지지한 표는 불과 462만 4511표였다.

이것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1956년에 실시되었던 국민투표에서 불(佛) 공당(共黨)이 1,500만 표를 얻었던 사실과 대비

작가는 공산당을 탈당하고 말았다.

불란서(佛蘭西)[프랑스]의 지성(知性)이란 것은 결코 러시아인의 파스타트주의에 정복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후(戰後) 수차(數次)에 공(巨)한 총선에서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공산당이 비록 다수당(多數黨)으로는 되지 못하였지만 제1당이었던 사실을 지적하

1942년 카라간다에 있었을 때 전시(戰時)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고 부정(不正)이 있음을 짐작했다. 노동자 대중은 - 그 가운데에는 다수의 당원들도 있었지만 -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는데도 소수의 당(黨) 역원(役員)들은 조금도 물질적 부족이 없었다. 나는 여기에 하나의 웃지 못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통일 캠페인, 즉 공산당이 중핵(中核)이 되어 동독(東獨) 통일사회당(統一社會黨)을 결성하는 공작을 할 때다. 내가 사무실을 나와서 중앙위원회 회의 식당으로 가려고 할 때였다. 계단에서 품위가 있는 중년 남자를 만났다. “말 좀 묻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을 보는 동무입니까?”

하고 그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지프로 반(班)입니다.”

“나는 독일 공산당 역원(役員)인데 이쪽의 초대를 받고 서독에서 왔습니다. 식권을 받았는데 식당은 어디죠?”

“그래요?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식권의 종류에 따라 식당도 다릅니다.” 그는 이 말을 듣자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식권을 보였다. 그것은 제3종으로 대단치 않은 존재의 인물이다.라는 식권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 해당되는 식당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중앙위원회에서는 역원(役員)에 따라 식사가 다릅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4종류 있습니다. 하고있는 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무가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청소부나 운전수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당원입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하는 표정이였다.

“식권이 다르고 식물(食物)이 다르고 …… 그러면서도 모두가 당원이라니!”

남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이였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우리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해볼 때 불(佛) 공당(共黨)의 패퇴(敗退)는 그 어느 때 보다는 결정적이였다.

1958년 11월에 불란서(佛蘭西)[프랑스] 제5공화국 최초의 선거에서 불(佛) 공당(共黨)은 겨우 390만 7,763표이다 말이다. 그리하여 1956년에 불(佛) 공당(共黨)이 국민의회 내에서 143석을 점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10석에 불과하다.

불(佛) 공당(共黨)이 이토록 패퇴(敗退)한 원인에는 드골 대통령의 출현과 그들 내부의 분규(紛糾)를 들어야 할 것이며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계급의 애국심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계급의 공산당 지지는 공산주의를 위한 지지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비정치성(非政治性) 지지이며 알제리 정책에 있어서 드골을 지지한 투표는 그들의 애국심의 발로(發露)였다.

그러므로 불란서(佛蘭西)[프랑스] 노동계급에서는 자기 조국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공산주의의 국제주의적 원칙을 옹호한다는 구호가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다.

급(級)을 위한 특별 식당은 제3종, 제4종 식당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 급(級)의 식당에 들어갔을 때 왜 그런지 불안감에 싸이게 되었다. 제3종, 제4종 식당이 노동자들이 식사하는 대중식당이라면 우리가 먹는 식당과 식사는 어김없는 일류호텔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아까 그 서독에서 왔다는 공산당 직원(役員)의 이상한 표정으로 이제와서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놀랐던 것이다.

나는 니이다 슈허우젠의 고급 저택을 생각해 본다. 나는 거의 매 주말이면 그곳을 방문했다. 전(全) 지역에 철책(鐵柵)이 쳐있고 두 개의 출입구에는 소련 위병(衛兵)이 보초(步哨)를 서 있다. 나는 이 보초에 관해서 그 저택에 사는 고급 당원에게 항의했다.

“글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초가 소련병이 어야만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큼직한 주택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별장과같은 저택이라야 한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특권은 민중의 반감(反感)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비웃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하고 그는 도리어 반문(反問)했다.

“중앙서기국(中央書記局)의 전원은 노동자 구역의 3실이나 4실의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 아파트에는 완력(腕力)있는 동무들이 있어 적군병사(赤軍兵士)에 못지않게 경비를 해줄 것이고.”

그러자 상대방은 노기(怒氣)를 띠고

“그처럼 뒤떨어진 생각을 동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것은 적(敵)의 선전에 자내가 걸려든 것이다. 푸치불적(的)인 악평등(惡平等)의 관념이다. 우리 지도적 동무가 이 별장에 산다고 해서 무엇이 나쁘냐? 그래, 동무는 이 별장 건물을 나치당에 반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나는 더 말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일반 민중이 궁핍 속에 있고 또 이 백림(伯林)[베를린]에서 반대당(反對黨)과 정치적 대결을

서독(西獨)

칼 마르크스 자신이 유태계(猶太系) 독일인이었던 관계도 없지 않지만, 독일에 있어서의 초기 노동운동은 지식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1860년대까지 계속된 전제주의(專制主義) 정치와 또는 독일제국 창설(創設) 이후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은 혹독한 고압주의(高壓主義) 통치는 영국과 불란서(佛蘭西)[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압박감(壓迫感)과 자극을 지식인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러하여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지식인들도 영(英)·불(佛)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명망과 유익하고도 보수가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유태계(猶太系) 지식인들에게는 전기(前記)한 바의 고압적(高壓的) 통치의 압박감과 자극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하여 19세기 중엽의 독일에서는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필디난트 라사레와 제1차 대전 전야(前夜)의 베른슈타인,

하고 있는 차계(此際)에 이러한 화려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독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의 좋은 선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의 직원(役員)들은 자진(自進)하여 질소(質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의 모 간부는 셋방(貰房)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공상(空想)에 탐닉(耽溺)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나를 꾸짖었다. 그는 중앙 직원(役員)이라는 계급적 우월을 앞세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택을 옮길 생각도 없었고 소련 보초병을 철폐시키지도 않았다. 그 후 1946년 10월의 백림(伯林)[베를린] 선거 때 전기(前記) 두 가지는 사회당으로부터의 좋은 공격의 선전 재료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 이 주택지에 입주할 것을 거부한 당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입주하는 것이 당(黨)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당원을 따라 그들도 입주하였다. 지도자로서 사치를 하고 노동자로서 노동자들의 반감을 산다는 것은 본의(本意)가 아니라고 생각한 당원들이 있었으나 입주한 지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어느 고급 당원이 고급 식사를 하고 소파에 쓰러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이다.

“야! 상쾌하다. 나는 지배계급이다.”

저택이나 식사에서만 고급 당원의 특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침 바알가(街)의 중앙위원회 건물이 정비되어 중앙위원회 직원만의 휴식을 위한 집이 마련되었다.

그 집은 베르나우 부근의 화려한 건물이며 대정원의 한 가운데 건물이 서 있고 외계(外界)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여기서의 식사는 문자 그대로 고급이며 중앙위원회의 고급이라고 보았던 식사도 여기에 비하면 빈약한 편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휴가를 지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끝마친 다음에는 이곳으로 휴양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특권도 이처럼 컸지만 당(黨)의 요구도 못지않게 컸었다. 육체도 신경도 완전히 소모할 때까지 사역(使役) 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을 하다가도 당(黨)의 요구

칼 카우찌기, 로자 룩셈부르크 등 유태계(猶太系) 후손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의 열렬한 지도자들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독일 공산당은 일찍이 1920년대부터 모스크바의 지휘를 받는 코민테른 예하당(隸下黨)으로서 독일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였다.

1921년 맨스펠라 탄광에서 폭동이 조직된 것만 하더라도 그것은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벨라 쿤이 독일 공산당을 지휘하여 총파업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인데 이때에 독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려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후 1930년 초기에 독일 공산당이 독일 실업자들에게 호소하여 공산당을 지지하라고 했지만 독일 실업군중(失業群衆)은 도리어 히틀러 나치스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독일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독립정신은 공산주의를 유태사상(猶太思想) 또는 원시적(原始的) 러시아 문명으로 멸시하는 경향이 여태껏 농후하다.

에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레몬 짜끼기 버리듯 버림을 받는다. 순전히 이용가치의 문제였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역원(役員)은 별도(別途)다.

모든 특권에는 면밀한 격차가 있다. 아까 말한 특별 휴양소는 처음 중앙위원회(全) 역원(役員)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되어 중앙서기국의 최고 멤버만을 위한 훨씬 배치적(背馳的)인 휴식소가 되었다.

유명한 ‘빠옥스’에는 확연한 서열이 있었다. 이것은 식료, 담배, 주류, 과자 등을 담은 상자인데 우리들은 식료 배급 등이나 중앙위원 할당분 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배급받았다. 이 증여(贈與) 상자는 고급, 중급 당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경제기관, 과학자, 예술가 등의 역원(役員)에게 할당되는 것이면서도 많은 단계가 있었다.

그 계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 기능의 정의를 소위 충실분자(忠實分子)에 물어보면 판에 박은 듯한 답을 듣는다.

“중핵(中核)을 수호하는 자! 이 동무들은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적 특혜가 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계층적인 차별의 설명은 못 된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일에 전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광산 노동자 당원이나 하급 역원(役員)들에게도 ‘빠옥스’가 배급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그들은 물질적 배려에서 소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자크센에서 어느 ‘빠옥스’ 당원의 슬픈 운명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당원은 진정 훌륭한 동지였다. 그는 오랫동안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공장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공장의 노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얼마 안 되어 역원(役員)이 되고 공장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때 소련에 의한 동독의 생산시설 철거가 단행(斷行)되었다. 시설을 소련으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이 철거를 공장 노동자들에게 설명하여 납득 시켜야 할 일을 그는 소련 측으로부터 명령받았다. 철거는 이번뿐이고 다음부터는 노동자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소련 측의 약속이었다. 이 친구는 그것을 믿었고 또 노동자들도 그의

특히 2차 대전에서의 패전과 병폐는 독일 민족으로 하여금 반(反)소 감정과 복수감을 왕성케 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 민족에게 있어 반(反)소 감정은 곧 반공산주의(反共產主義)를 의미하는 바 소련의 대독(對獨) 분할(分割) 정책 및 무방비(무장 해제), 중립화 정책은 독일 민족의 독립정신을 손상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독의 전후(戰後) 복수와 전전(戰前) 수준의 능가(凌駕)는 1956년에 서독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는 가장 위력적인 조건으로 되었다.

서독 공산당수(共產黨首) 라이만은 동독으로 쫓겨갔고 1956년에 15만명으로 추산되었던 서독 공산당원은 현시(現時)에 있어서는 지하에 그 반수(半數)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보다도 훨씬 소수일 것이다.

서독 보안청(保安廳)은 최근의 서독 내 공산주의 동향을 집계함에 있어서 공장 내의 지하세포(地下細胞)가 197개라고 발표하고 그것의 대부분은 금속공업체 내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장노동위원회의 6,760의 회원 중에 15%에 해당하는 수가

설명을 믿었다. 철거가 단행된 뒤 노동자들은 또다시 열의(熱意)를 내어 여러 방면에서 기계를 모아 공장을 재건하였다. 전의 것 보다는 못하다 할 지라도 공장은 가동(稼動)을 시작했다. 수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소련 당국의 호출을 받았는데 또 한 번만 공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번에 약속도 약속이려니와 자기의 면목과 당(黨)의 명예를 위해서 중지할 것을 호소했으나 사로(徒勞)였다. 그는 이제 노동자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할 면목도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소련 장교는 조소하면서 “군이 군이 거절한다면 나는 군이 ‘빠옥스’의 특별 배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원(工員)들에게 폭로하겠다.”라고 하며 리스트를 내보였다. 그 리스트에 의하면 그는 1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물자의 특혜를 입고 있었다. 말하자면 ‘빠옥스’의 정체란 이런 것이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익일 공장 노동자들에게 제2의 공장 철거를 이렇구 저렇구 이유를 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맥빠진 사람처럼 입만 뚱이라고 지껄이고 있었다.

‘빠옥스’는 단지 헌신적인 동지와의 연계적(連契的) 조력도 아니요, 그렇다고 당(黨)의 중핵(中核)을 수호하는 데만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유효하게 쓰이는 용도가 있었다. ……

전(前) 공산당원이라고 하며, 공산당이 지하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勞動新聞)은 아직도 180개나 있는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서 100개 가량은 1년에 한 번 내어나마나한 유야무야(有耶無耶)의 것이라고 한다.

서독의 경제적 융성과 반공(反共) 의식의 고조(高潮) 앞에서는 서독 사민당(社民黨)도 매우 곤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독 사민당(社民黨)은 제2인터내셔널 때부터 서구사회주의의 영도적(領導的) 정당이며 그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근년에 이르러서는 계급정당으로서의 존재 의의에 의의(疑誼)를 표시하고 대중정당으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융성과 복지국가의 태두리 안에서는 공산주의·사회주의란 것은 한낱 역사의 유물로서 밖에는 더 귀중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의 현황은 공산당에게 아직도 그리 비극적인 결말은 아니다.

전후(戰後)에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 공산당에 대한 지지표의 비율은 계속 상승하여 1953년에 22.6%이던 것이 1958년에는 23%로 상승하였고 다시 1960년 11월의 지방선거에서는 24.5%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끝난 공산당 가입 운동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86.1%로서 감퇴(減退)하고 말았다. 이 사실은 공산당원은 감소하지만 공산당에 대한 지지표는 증가하였다는 표시인 바 이것은 공산당이 비공산(非共產) 계열에 호소하여 일시적으로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에서도 공산당과 사회당의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소련 편③

소련 정치 생활의 편모(片貌)

- 피를 먹는 크레믈린의 생리(生理) -

신찬(申瓚)

공산세계의 가지가지가 허위와 날조로 꾸며져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역사의 개조까지도 단숨에 해내는 그들의 생리(生理)는 자유세계의 윤리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유에만

“크레믈린 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도레차코프 화랑(畫廊)이 있다. 여기에는 17세기 이후의 노서아(露西亞)[러시아]=소련 시대 거장(巨匠)들이 그린 수많은 회화(繪畫)가 진열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손꼽는 걸작의 하나는 ‘위대한 노서아(露西亞)[러시아] 민족을 위하여’란 이름의 유화(油畫)이다.

전개하였다는 사실이야말로 공산주의가 그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를 웅변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망명한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바란 것은 잘 입고 잘 먹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자유였다. ……”

또 어느 젊은 여 망명자는 “마치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 지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비판의 자유도 없다고 망명자들은 말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에 대해 또 하나의 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등학교, 특히 대학은 돈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입학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카아텔에 의해서만 입학이 허용되는 것이다.

카아텔 - 즉, 성분(性分) 조사서는 4대조까지 성분이 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언동(言動)까지 그 무서운 이봐(특별 비밀경찰망)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믿는 순수한 노동자의 자체가 아니고는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으며 입학자는 공산당 간부급 당원 3명 이상의 추천과 3명 이상의 보증을 요(要)하게 된다. 이처럼 엄선된 학생들이 반공혁명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사실이다.

개중(皆中)에는 전(全) 학생, 전(全) 교수 수천명이 학교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온 자유세계에도 그 전과를 강요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념의 방위(防衛)를 최촉(催促)받고 있다. 그래서 장막으로 가려진 붉은 세계의 진상(眞狀) 파악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며 특히 그들의 위정자와 정치 생활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정신무장(精神武裝)에 직접 주효(奏效)함이 크기 때문에 간혹 장막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빙성(信憑性)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라도 그들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의욕을 조인(粗忍)히 해서는 안 된다.

작가는 우크라이나인인 현대 화가 후메리코이며 1945년 제2차 대전 직후에 크레믈린 궁에서 열린 대독전(對獨戰) 승리의 축하연 광경을 폭 3미(米), 길이 10미(米)의 캔버스에 넣은 것이다. 화면(畫面) 중앙에는 스탈린이 서 있으며 그 좌우에는 당(黨)과 정부의 고관(高官)과 군의 장성(將星)들이 축배를 들고 있고 모로토프, 카가노비치, 죽은 지후우노프 등의 모습도 보이며 또 마렌코프나 후르시초프는 이들보다 하석(下席)에 서 있다. 그리고 카가노비치와 지후우노프 사이에는 낯선 여인 하나가 웃고 서 있어서 이채(異彩)를 띠고 있는데 원래 크레믈린의 두목들이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은 드물기 때문에 앞에 다가서서 자세히 쳐다보면, 이 여인의 부분만이 전광(電光)에 강하게 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손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은 소련의 도레차코프 화랑을 방문한 서구의 기자가 쓴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위에 말한 그림은 1953년 베리야가 숙청 당한 후에 다시 그려진 것으로서 말하자면 사진의 여주인공이 미세스 베리야라고나 할까.

집단지도체(集團指導制)의 참된 의의(意義)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급사(急死)하자 당시의 주(駐)소 미국대사였던 보오렌 씨(현 소련 문제 담당 국무장관 특별보좌관)는 누가 스탈린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의 풍자적(諷刺的)인 이야기를 했다.

“지금 크레믈린 궁 안에서는 마렌코프, 모로토프, 베리야, 후르시초프의 4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

송두리째 망명한 예도 있다.

★ …… 더욱이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는 사실로는 학교의 교과서 내용이다. 노서아(露西亞)[러시아]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을 페이지마다 삼입하여 선전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근대문명은 대부분이 노서아(露西亞)[러시아]인의 발명, 발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농업생물학의 루이센코 미추린을 비롯해서 라디오는 포뽀푸가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백열전등은 노서아(露西亞)[러시아]의 한 무명(無名) 과학자가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프랑스의 퀴리부인만은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그것은 퀴리부인이 커뮤니스트 화학자이기 때문이다. 또 제트 추진(推進)의 원리도 노서아(露西亞)[러시아]의 한 무명 천재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이작 뉴턴이 노서아(露西亞)[러시아] 과학자의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을 인정했다는 서한(書翰)을 위조해서 교과서에 실리고 있어 헝가리 인텔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V.C 박사 부인의 「죽음의 헝가리 탈출기」에서)

이들 중에서 누가 계승자가 되는가를 알려면 크레믈린 궁 밖에 서서 거기 창문을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머지않아서 이들의 시체가 그 창문으로 동이쳐 나올 것이니 세 번째의 시체가 나온 다음에 그 궁 속에 남은 자를 찾아보면 그 자가 바로 스탈린의 후계자인 것이다.”

이로부터 불과 수개월이 못 지나 ‘외국의 앞잡이’란 죄명을 달고 그 첫 번째의 시체가 된 것이 베리야이며 1957년 7월 마렌코프와 모로토프가 숙청 당함으로써 세 번째까지의 수를 채웠고 동시에 후르시초프는 크레믈린 궁의 마지막 유수자(留守者)가 될 수 있었다.

스탈린의 유해(遺骸)가 붉은 광장 중앙에 안치된 레닌의 곁을 찾아간 후, 그 앞에 성벽처럼 서 있는 크레믈린 궁에서는 그들의 정치체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징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스탈린의 1인 독재체제가 집단지도제(集團指導制)로 대체되었으며 베리야의 소멸은 그때까지 위세를 떨치던 비밀경찰을 무색(無色)케 했고 또 1956년 2월에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全黨大會)에서는 스탈린이 격하(格下)되었다. 이리하여 스탈린 시대의 체취(體臭)는 점차적으로 흐려져 갔으나, 숙청의 기풍은 여전히 충만했다. 1957년 후르시초프는 농업정책 실패의 책임을 마렌코프에게 전가(轉嫁)시켜 모로토프와 카가노비치도 함께 실각(失脚)시켰으며 동년(同年) 10월에 주코프는 숙청을 반대하다가 도리어 숙청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스탈린의 사망으로 탄생한 소련의 집단지도제(集團指導制)는 사실상 스탈린 시대의 1인 독재로 다시 환원(還元)한 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집단지도제(集團指導制)는 보오렌 대사의 예언대로 스탈린 계승을 위한 경쟁과 숙청의 4년간의 투쟁 기간의 의의를 지닌 것에 불과하며, 또 공산주의적 정치체제의 원형(原形)인 1인 전제(專制)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 정치방식으로써, 공산 세계에서는 과도기(過渡期)에만 채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보은(報恩)과 숙청(肅清)

카가노비치는 1928년 우크라이나의 공산당 두목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후르시초프를 만났다. 그때 그는 촌티가 생생한 34세의 후르시초프를 키에브시(市) 공산당의 말단직으로부터 등용했으며, 다음 해 그가 모스크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직으로 옮겨갈 때에는 후르시초프를 데리고 가서 유명한 모스크 지하 철도의 제2인자가 될 길을 열어 주었다. 또 1947년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의 숙청을 감행하다가 지방민(地方民)의 항거(抗拒)로 실패하자 카가노비치는 직접 현지에까지 달려가서 그를 구해주었으며, 1949년에는 다시 그를 모스크로 불러들여 공산당의 본 무대에서 활약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카가노비치는 과거 30년을 두고 후르시초프를 길러 왔으며 위기에 빠진 그를 구출해서 크레믈린 두목의 하나로 만든 유일한 은인이며 선배라는 사실은 비단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가노비치는 후르시초프로부터 은혜의 대가를 숙청으로 받고

스탈린 계승전의 네 번째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

1957년 후르시초프가 파란(波蘭)[폴란드]을 방문하고 돌아오니, 공산당 상임위원회의 대세가 마렌코프파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때 주코프는 후르시초프의 청(請)을 들어 육군을 동원하여 상임위원회의 회담장을 점령하므로써 목전에 닥친 후르시초프의 위기를 구해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10월 어느 날, 후르시초프의 비서는 알바니아에 있는 주코프 원수(元帥)에게 공산당 서기가 그를 모스크로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 비행기를 보냈다고 전화를 걸었다. 이때 주코프는 이것이 자기의 꼬마 친구가 일전의 거사(學事)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자기가 지금 숙청의 함정(陷穽)으로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이로써 후르시초프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얻은 은인들에 대한 보은을 전부 마친 셈이다.

장막 속의 장막

소련에 입국하면 우선 4매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고는 외국인 거주 수첩을 교부(交付) 받는다. 소련인들도 만 16세 이상의 남녀면 누구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중요 관청, 공장, 은행의 출입 시는 물론, 기차표를 살 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고물상에서 물건을 팔 때까지도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신분증명서는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물건이다. 신분증명서를 제일 많이 제시하는 곳은 가로(街路)이며 거의 매 블록마다 검문소가 있어서 통행인에게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한다. 통행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렬로 서서 자기의 검문 순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의 변화한 가두(街頭)에는 거의 일렬의 행진대열로 움직이는 광경뿐이라 한다. 그래서 어느 서방(西方) 측 기자는 자기 호텔로부터 7, 8분 걸리는 기차단 건물까지 가는데 검문당한 횡수를 세어보니 14회가 되었으며 시간은 30분이나 걸렸다고 한다. 또 어떤 여행자는 한쪽 손에 가방을 들고 또 한쪽 손에는 증명서를 든 채로 다녔다고 한다.

자유세계에서는 웅당 있어야 하는 것이 소련 세계에서는 웅당 없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소련의 철도 시간표는 그때그때 역전(驛前)에 설치된 흑판(黑板)에 제시될 뿐 선로(線路) 별로 명시된 일정한 시간표란 찾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는 전화번호부가 없어서 사람 찾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내 지도나 안내도는 물론, 각종 요(要) 건물에는 간판이 없어서 길을 찾는 것도 큰일이다. 모스크의 건물은 ‘무슨 광장의 건물’이라고 불리울 뿐 그안에 있는 기관의 명칭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 소련 정부의 외무성(外務省)은 스모렌스크 광장에 있는 26층의 고층건물 안에 있는데 모스크 시민에게 외무성이 어디 있는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고 스모렌스크 광장의 건물을 물으면 가르쳐준다. 이런 식은 택시 운전수에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는 외무성 건물 앞에서 입초(立哨)를 서고 있는 순경에 물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련의 신문을 교과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정부와 당(黨) 시책(施策)에 관한 해설과 선전 기사가 대부분이고 시민 생활에 관한 뉴스, 즉 삼면기사(三面記事)가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살 등의 기사는 하나도 읽을 수 없으며 또 텔레비전이나 방송도 이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매스컴의 개념도 소련 사회에 와서는 자연 수정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철(鐵)의 장막(帳幕) 안에는 또 다른 무수(無數)의 장막이 첩첩이 내려져 있어 암흑과 공포의 질식(窒息) 상태를 노정(露呈)하고 있다. 이는 외면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가 기밀을 보지(保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소련이라고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국가 기밀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고래(古來)로 어느 독재와 전제(專制)의 정치체제이든 이러한 과도(過度)의 강제와 제한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소련식 정치방식에 있어서서는 부수적(附隨的)인 동시에 필수적(必須的)인 양상인 것이다.

어떤 소련인이 크레믈린의 낭하(廊下)를 뛰어가면서, “후르시초프 바보”라고 외친 탓으로 체포되어 결국 23년 징역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중 3년은 공산당 서기를 모욕한 죄이고, 나머지 20년은 국가 기밀을 폭로한 죄이다.

이는 후르시초프 자신의 익살의 한 토막이지만 독재국가에 있어서 그 정권의 안정을 위해(危害)롭게 하는 것은 곧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들 위정자의 진기(珍奇)한 사고방식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20세기의 진시황(秦始皇)

- 중공(中共) 정권의 존립을 위해서 중국 인민의 희생은 아마 그 옛날의 진시황의 만리장성(萬里長城)의 류(類)를 훨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 AFP통신사 특파원 베루날·유루멘은 2년간에 걸친 중공(中共) 체재(滞在)를 끝마치고 금년 초에 귀국하여 이색(異色) 있는 중공(中共) 르포르타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다른 서방(西方) 측 기자와 달리 그는 중공(中共) 내를

〈베루날·유루멘〉 기(記)



공산권(共產圈) 내부는 이렇다!

중공(中共)편

검열(檢閱)과 검사(檢査)

소련 정부는 자국(自國)에 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의 발신(發信) 기사를 검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신에 수속상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신국(電信局)에 타전(打電)을 의뢰할 때에는 기사의 사본(寫本) 3통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검사에 통과되면 그 사본 1통이 반환되고 원문(原文)은 자동적으로 타전(打電)되나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기다리다 못해서 통과 여부를 물어보면 “아직도 검사 중입니다.”라고 할 뿐, 다시 무소식의 상태로 돌아간다. 즉, 기사의 일부분을 삭제한다면 이는 분명히 검열이나 삭제도 안 하고 또 통과도 안 시키고 그냥 미결(未決) 채로 두고 끈다면 이를 검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마 이들도 검열이란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상 싶다.

선거(選舉)

소련은 가끔 그들의 투표율이 높다는

널리 탐사한 풍부한 견문(見聞)으로서 그 발표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反響)을 일으켰다. 그런데 베루날·유루멘 씨는 6·25 전쟁 때 한국에도 종전(終戰)한 바 있으며 여기에 소개하는 동씨(同氏)의 르포르타주는 그의 기다란 전문(全文)에서 초역(抄譯)한 것이다.



중공(中共)의 어느 거리에서…… 농민들은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도시로 도시로 몰려든다. 이 사진은 이 같은 이농민(離農民)이 도시로 나왔다가 감시원(監視員)을 만나 갑자기 도피하느라고 아이를 버리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굶어 죽어 가는 아이를 이웃 아이가 가여워하며 껴안고 있다.

←

△ 중공(中共)의 명물(名物)

살점을 오려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기다란 행렬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뒤로 없는 것 같은 목면(木綿) 옷을 입고 있다기보다는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보아서는

것을 자랑한다. 1958년 3월에 실시된 소 연방최고회의(聯邦最高會議) 선거에 있어서만도 투표율은 99.97%라고 발표되었다. 소련 정부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내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일정한 투표소 이외에 기차나 선박 안에까지 임시투표소를 두고 시행자의 표를 모으고 있다. 또 외국에 주둔(駐屯)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7개의 선거구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으며, 멀리 남극에 있는 전진기지(前進基地)에까지 투표함이 보내지고 있다. 둘째는, 정부 관리들이 소형(小型)의 투표 상자를 들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의 투표를 돕고 있다. 세 번째는, 투표 시간을 아침 6시부터 밤 자정에 이르기까지 18시간을 잡고, 갖은 수단을 써가며 투표에 참가치 않은 사람들을 투표소로 몰아오고 있다. 그렇지만 투표에 참가치 않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동(反動)으로 간주하는 공산세계의 정의(定義)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투표율을 올리고 있다는 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다.

남녀의 구별이 분명치 않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남녀 혼열(混列)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가지 야채를 사기 위한 행렬이다.

중공(中共)의 도시에서 이 행렬은 명물이다. 아침이면 반드시 이러한 행렬이 뜨문뜨문 눈에 띈다. 생활필수품을 구득(求得)하려는 행렬들이다. 식료품점, 건어점(乾魚店) 등 문전(門前)이면 틀림없이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이와 같은 행렬은 버스정류장에서는 끊어질 사이가 없다. 버스에는 반드시 커다란 연통(煙筒)이 천정(天井)을 뚫고 하늘로 솟아있다.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는 언제나 초만원(超滿員)이지마는 천연가스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느리거나 성급한 승객이면 뛰어내려 목이라도 매고 싶을 정도다. 이 천연가스는 화물자동차에도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트럼벵이에는 버스나 다름이 없다.

중공(中共)이 정권을 잡은 이래 금년처럼 빈곤이 일반화된 예는 없다. 도회지에서나 촌락에서나 구매표(購買票)가 없이는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시중(市中) 식당에서나 지구(地區) 식당에서나 공장 부속 식당에서나 식권이 없이는 먹이를 구할 길이 없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 북경(北京)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식권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급식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 중국인으로서의 근처에 가까이도 할 수 없을 만치 고가(高價)다.

달걀, 조육(鳥肉), 경어(鯨魚) 따위는 시장에서 완전히 그림자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도시 주민에 대한 육류의 배급은 월 200그램이니 냄새를 맡기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반드시 배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농촌에서 육류 식물을 구한다는 것은 절에 가서 젓국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담배의 기근(饑饉)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인 화려한 외인(外人) 호텔에서 고급담배를 마음대로 손에 넣을 수 있지만은 중국인은 월 60본(本)의 담배가 배급되는데 그것도 담배의 찌꺼기나 그렇지 않으면 대용품(代用品)이다.

(사진 - 해방되었다는 중국 인민들은 도처에서 이처럼 강제노동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투표지에는 물론, 한 사람의 입후보자 이름만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찬성하는 자는 기표소(記票所)에서 아무런 수고도 할 것 없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끝이 난다. 또 반대하는 자는 입후보자 이름 위에 작대기를 그으면 된다. 그중에는 무엇이라고 낙서를 하는 자도 있다 한다. 이들 반대 투표자의 수효(數交)는 전(全) 투표수에 비하면 극히 적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도회지(都會地)의 지식인들이란 점과 이 수가 매회 마다 상당한 비율로 늘어가고 있는 점에서 공산 위정자들의 근심을 사고있는 것이다.

소 연방최고회의(聯邦最高會議)의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첫 단계는 각 선거구 내의 여러 공공단체는 회합을 열어 수명(數名)의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선거일시 30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선거위원회에서는 이 중에서 1명만을 선택하고 입후보자로 지명한다. 이렇게 수명(數名)의 입후보자를 단일후보로 줄이는 절차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들은 그저 습관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물으면 큰 소리로 설명해준다.

도시나 농촌이나 주식(主食)은 역시 소맥(小麥)과 쌀이다. 야채는 명목상 자유 판매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사실상 배급제이며 1일 1가족당 반(半) 킬로로 되어 있다.

△ 누가 더 많이 굶고 견디나?

방금 중공(中共)에는 대대적인 절량(節糧)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절량(節糧) 운동이란 다름 아닌 배급량의 감소를 합리화하려는 구실인데 예들 들면 대인(大人) 월평균 15킬로 밖에 안 되는 배급에서 각 지구(地區)의 배급위원들이 '자발적 배급 사퇴'라는 명목 아래 더욱 감량시키고 있다. 도처의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뼈라가 한결같이 붙어 있다.



즉,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꼭 한 사람의 입후보자만을 필요로 하며, 또 2인 이상이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를 분열시킬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러시아의 선거실황을 보러 간 미국 시찰단에게 러시아의 어느 지방관리가 소위 무소속 입후보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

“무소속 입후보자는 소속이 없으니 누구의 대표가 되며 또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합니까?”

“그저 자기자신을 위해서 하지요.”

“그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느 단체나 세력이 그것을 허가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유로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또 무소속으로도 당 선되는 예가 많다고 설명을 하니, 그 자의 반응이 절작(傑作)이다.

“그럼 그 높은 주책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는군!”

이와 같이 소련인들의 단일 입후보에

“배합량 전부는 필요치 않다. 허기를 토할 정도이면 족하다.”

이리하여 각 식당에서는 누가 더 많이 굶고 견디어 나가느냐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적게 먹인 식당은 표창을 받는다. 그 식당은 사람을 많이 굶겼다는 포상으로 홍성장(紅星章)을 받게 된다.

중공치하의 인민들은 이처럼 굶주리고 있다. 이것은 중공정권도 시인하면서 몇 가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단지 그 이유가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다. 중공당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속되는 천재(天災)가 1960년에 이르러 파국적인 흉작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는 이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증가에도 있겠지만 인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매력이 상승했다는 점과 급속히 발전한 공업에 의해서 농업원료물자의 소비증가 또는 인민공사 식량소비증대가 원인이 되었다”고

이에 상반되는 이유를 나는 도시의 중국인친구에서 들었다.

“농민의 생산의욕이 극히 부진상태에 있다. 특히 인민공사는 농민이 아무리 일을 해도 그에 비등하는 보상이 없기때문에 사실은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느 야채행렬에 끼었던 주부는 이렇게 말했다.

“원인은 양귀(洋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물자를 양귀가 죄다 가져가버리거든요.”

양귀라는 것은 소련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북경에 있는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政府)는 우리 물자를 러시아에 가져간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 중전 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정부(政府)는 소련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소가 먹을 것이 없어 말라 죽은 1959년

대한 생각은 저철(底徹)하다. 누구나 입후보를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대표하는 계급이 있어야 하며, 또 2인 이상의 경쟁은 국가를 분열케 한다는 사상은 무산계급의 독재를 정치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다.

소련방 최고회의

이런 영터리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들은 4년의 임기를 갖고 쑬비에트 연방최고회의를 구성한다. 대의원 총수는 민족원(하원(下院))과 연방원(상원)을 합하여 1,378명이며, 이들의 성분을 분석하면 그 중(中) 약 반 수가 연방정부와 공화정부의 고위관리, 군의 장성, 그리고 당과 경찰의 간부들이며 나머지 4분의 1은 공산당에서 노동조합과 집단농장에 파견되어 있는 간판만의 농부와 노동자이며, 또 다른 4분의 1은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는 농부와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보면, 이 최고회의는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점은 거의 엿볼 수 없고 다만 공산당의 변형의 하나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흥때에 전면 식량배합제도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대풍작이었던 1958년에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식량배합제도는 부족한 식량의 조절과 더불어 다른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농촌에서 이탈하여 도시로 몰려드는 이농민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이 이농민들은 허기를 토하기 위하여 또는 조금이라도 보상이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또는 암시장에서 달걀이나 야채장수를 한다는 최대 급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 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소위 열성분자들이 지인이나 친척집에 은신해 있는 이탈농민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한편 배합제도를 더 한층 강화하고 방문객은 누구할 것 없이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소년선봉대라는 훈련받은 소년들이 거리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자가 눈에 띄우면 연행하여 농촌탈출민으로 인정하여 집단수용했다가 다시 농촌으로 배치한다.

작년10월 이래 당의 직원을 비롯해서 도시의 공무원(公務員) 또는 인민공사의 노동자들 수 십만 수 백만이 농촌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영원히 농민이 되어 버릴 지도 모른다.

△ 운동에서 운동으로 시종(始終)

중공(中共)은 소위 운동에서 운동으로 시종하고 있다. 이 운동이란 시민들을 동원하는 광풍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지나가도 지나가도, 그리고 꺾어도 꺾어도 끝이 없는 광풍(狂風)이라고 북경의 어느 시민이 나에게 비꼬아 말했다.

1960년의 천재(天災)는 중공의 공업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만주에 있는 중국 최대의 안산 제철소는 팔월의 홍수의 피해로 조업을 정지하고 있는가하면 중요 방적공장은 원면(原綿)의 입하가 없어 조업단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송, 발전 등 거대한 건설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북경방송은

노동자의 영웅적 노력으로 대약진(大躍進)이 촉진되어 강철, 석탄, 전력 등이 초과 완수 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이 최고회의의 회기는 일년에 평균 십일이란 짧은 기간이며, 1958년(年) 삼월말에 개최된 제5차 회의도 불과 5일 간 개최하였다. 이런 짧은 시일에도 이 최고회의는 법률안을 심의한다고 하나,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식적인 것뿐이다. 독화나 시론도 없고 다만 반대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내종(乃終)에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 최고회의는 9개의 분과 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별로 상임위원회를 또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입법은 여기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정부와 공산당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므로 이 최고회의는 입법에 관한 모든 지시를 당으로부터 받으며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을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일당독재의 정체(政體)아래 국민의 모든 기본권리를 극한까지 제한하고 거기에 숙청 배반의 윤리까지 가미된 러시아의 정치양식에 민주주의적인 정치방식 내용은

민기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공은 생산증가율을 내걸때면 언제나 제일 먼저 총계수자의 앞줄에 세우는 강철의 예에서 볼 때 전년 1만톤이었던 것이 대약진이 개시된 전년 1957년에 500만톤 1960에는 1,945만톤을 초과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리 인쇄전술을 쓰고 우수한 시설과 기술이 동원되었다하더라도 불과 4년 동안에 5배로 증산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수 주(週) 일전 북경의 복수경(福綏境)에 있는 인민공사를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어둡컴컴한 구석방에서 푸른 노동복을 걸친 십 수명의 부인들이 누구의 남편인지도 모르는 1500명 분의 노동복을 꾸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흰 수건을 쓰고 있었으므로 연령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인민공사의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이 부인들은 누더기를 집고 세탁을 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의 잡역을 맡고 있다.

노동자 가운데에는 노령의 부인도 많았다. 그들은 꼬부라진 허리로 난방장치 없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김으로 손구락을 녹이고 있었다.

1주 6일 1일 8시간의 노동이며 이 같은 노령부인으로서 강제노동이 틀림없다. 이 인민공사에 제공되는 전체 노동력의 가치는 월 30원이며 이 중 임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불과 3%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잡역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들 부인노동자들의 식당음식은 가정식사보다 질이 낮은데도 식비는 여축없이 징수되고 있다. 안내인은 이러한 식당을 자못 자랑스럽게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에는 6개의 크다 큰 식탁과 50개의 의자가 있기는 했으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기 위해 중공의 행렬을 짓고 있었고 탁자와 의자없이 선채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안내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 사람들은 돈을 받기위해서 일을

비민주적 선거와 의회제도를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국민 전부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고,

둘째는 정부가 실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의회를 통해서 국민과 같이 지려는 심사이고,

셋째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의 공적을 국민에게 선전하려는 의도이다.

후르시초프의 이중성격

떡업떡업 머리가 난 대머리에, 검고 푸른 조그마한 눈, 그리고 뺨에 난 세 개의 조그만 혹들, 또 축 늘어진 입술과 그 안에 보이는 두 개의 금이, 거기에 뚱뚱하고 짙막막한 키를 한 공산세계의 총두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인해방의 정체(正體)

그렇다면 그들 부인노동자들이 이 식당에서 야채를 기름에 튀긴 다소라도 맛있는 식사를 세 끼한다면 6원에서 1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들이 15일의 일에대한 보상이 하루의 식사비밖에 안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식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붙어 있었다.

기계는 나의 남편
공장은 나의 가정
나의 노동의 과실은
나의 귀여운 젖먹이
당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안내인은 이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인민공사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부인노동자는 해방에는 글을 몰랐는데 이렇게 위대한 시를 썼지요”라고.

나는 몇 달 전에 낙양의 어느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시와 비슷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었다.

전진이다
당의 지시에 따라
기일에 목표의 성과를 달성한다
인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적색복을 입는 자는 모범 노동자다.

황색복은 준모범 노동자, 노루마에 따라 노동복의 색이 다르다.

오늘날 중공의 도처에서 이 같은 정경은 행렬과 더불어 흔하다. 아마 그 옛날 만리장성은 구축할 때도 이처럼 인민들이 강제노동에 끌려 나왔으리라.



크레믈린 복마전

후르시초프는 웃는 것을 피곤한 근육운동으로 생각하는 다른 두목에 비해서 색다른 성격을 가지고있다.

그는 옷차림에 무관심하고 웃을 때에는 앞이를 전부 보이면서 소리내어 웃으며, 또 술 잘마시고 수다스럽기 짝이 없다.

한때, 그가 영국을 방문하여 어느 포도주의 오찬의 대접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취미를 길다랗게 늘어놓으면서 영국제 납총(鎗)이 우수하다고 칭찬을 하고는 자기가 가진 납총도 영국제로써 가격이 8,000불이나 된다고 자랑하였다.

스타린이 살아 있을 때, 그저 생각나면 여는 주연에서 스타린은 가끔 후르시초프에게 명령을 내렸다.

니키타, 고파크춤!

그러면 그는 웃으면서 땀을 흘려가며 눈 가운데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무거운 몸을 흔들며 우크라이나의 농부 춤을 추었다.

이와 같이 니키타·후르시초프는 희극배우의 소질을 다분히 가진 쾌활한 꼬마 까마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그는 과격하면서도 고하며, 또 독선적이며 정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예리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참을성 없이 덤벼드는 그의 성격은 잔인하고 독한 짓을 서슴치 않고 해치울 수 있는 기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1956년 11월 크레믈린궁에서 열린 어느 연회에서 술을 마시다가 미국과 영국의 대사들이 돌아갈려고 하는 순간, 약간의 취기가 든 후르시초프는 그의 마음속 비밀을 경솔하게 폭로하고 말았다.

너희가 좋아 하진 싫어하진 역사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너희들을 매장 시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쾌활하고 수다스런 그의 성격은 또 하나의 성격인 성급하고 과격한 성미와 혼합되어 예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허위 제스처로 나타난다.

누구나도 간단없이 되풀이되는 이 노래와 같은,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난과 같은 문구의 선전과 막스 주의의 변증법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다. 중공의 인민들은 잠든 시간을 제외하고는 엉덩이를 발길로 채이는 듯한 히스테리 상태의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6억 -금세기에는 10억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인이 과연 이 같은 광기의 리듬을 계속해 나갈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본태인 부성에 모성애가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생산을 위한 물질적 기계로서 미친 듯이 일에만 열중할 수 있겠는가?

인구증가의 가치없는 경쟁속에서 일보의 후퇴도, 아니 일순간도 받을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중공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니 중공정권은 죽으나 사나 이른바 대약진을 강행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기계를 위해서 인간을 버리고 공장을 위해서 인간을 버리고 노동을 위해서 당의 아버지 당의 어머니를 위해서…… 따지고 보면 중공정권의 존립을 위해서 중공인민의 특성은 아마 그 옛날의 진시황의 만리장성의 류(類)를 훨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

이상은 공산세계의 무거운 철봉(鐵柵)을 뚫고 협소한 출구로 새어나온 그들의 정치현상의 편모이다. 태양의 빛이 미치지 않은 암흑속에서 허위와 협박으로 구축한 그들의 세계관은 벌써부터 우리를 향해서 호구를 벌리고 있다. 이를 실력으로 막으려는 우리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공산세계에 실존하는 전술한 허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직시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반공의 식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이념의 무기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경찰관 생활

부다페스트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빈민가나 지하호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의 비밀들은 화려한 아파트에서 귀족풍의 생활을 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의 가택 부다라는 구릉(丘陵)에 로오자 드 무부(장미의 언덕)라는 그 옛날 오스만·터어키가 헝가리를 점령하고 있을 시대의 유서있는 회수(回數)사원이 있던 터가 있다. 현존 이곳에 공산귀족의 궁전과 같은 아파아트가 세워져서 시민들은 이 언덕을 간부(幹部)의 언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는 공산귀족의 자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며 그들의 마누라들을 위한 물품의 풍부한 점포가 마련되어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은 위안지(慰安地)로서 풍광이 명미한 바라톤 호반에 보양지(保養地)를 가지고 있는가하면 이곳에는 말뚝쇠로 철책을 둘러 일반인과는 격리된 호화한 설비의 수영장이 있다. 수적으로 얼마 안되는 이들 공산귀족의 권력과 특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파 비밀경찰이 배후에는 최고의 제재로서 소련의 전차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헝가리 공산정부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비밀경찰 유지비로서 총예산 규모의 3분의1을 책정하고 있는데 아파대원에 대한 대우를 보면 노동자의 대부분이 월 600 포린트에서 1,000 포린트의 급료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른바 헝가리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폭력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야수인 이들 평대원에게는 3,000 내지 4,000 포린트, 사관에게는 9,000 내지 25,000 포린트를 급여하여 일반대중의 평균급여의 3배 내지 12배가 된다. 아파대원에게는 화사한 숙사가 주어지고 외박 여사관을 위해서는 특별한 매점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에는 소련의 경제 전문가와 동등한 대우·특별 증명서에 의해서 시가의 10분의 1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아파 숙사에 있는 클럽에서는 언제나 육류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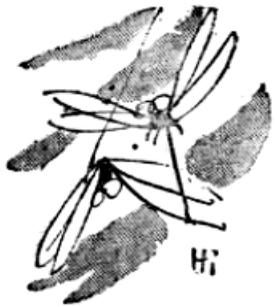
부다페스트의 자유의 능, 구청 젤레루우트·헤유죽, 성젤레루우트 능(陵)에 솟아있는 3층건물의 별장이 건물들 시민들은 소크레무린이라 부르고 있다. 이 곳에는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쾌락의 전당이 있고 이 내부에는 특별한 바, 무용장, 세파레, 객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오루기적 대향연·부어라 마셔라 식의 여자들과의 온갖 치정극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들 여자를 위하여 이 건물속에는 특별한 하렘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곳을 가르켜 “몸을 소련인에 판 매국노 야당인”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KAWEY라는 망명학생의 수기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인성

공산주의자들도 공산독재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아전인수격으로 변호하고 있다.

이상조



1,

현대 문명사회에 있어서 인류의 국가적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이상은 민주주의 (Democracy)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독재자 히틀러도 나치즘의 정치가 독일민족을 소생하는 유일한 길이며 다대수가 이 길밖에 없다고 신봉하여 지지할진대 이것이야 말로 독일민족에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으며 공산독재자요 폭군이었던 스탈린도 소련의 일국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변호하였던 것이며 중공도 자

칭 인민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의 정치가들은 어떠한 정치체제를 갖든지 간에 자신과 그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와 결부시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변호하려는 것을 사례로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평화와 독립 및

행복의 이념을 정치 상(上)에 구현(具顯)하기에 노력하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s)을 지향하는 정치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정치체제는 아무리 감언(甘言)미사(美辭)를 나열하여도 진정한 민주정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니엘 윗트는 그의 저(著) 「비교정치 기구론(機構論)」(Comparative political institution, 1953)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세계관은

- (1) 인간성에 대한 낙관주의 (성선설(性善說))
- (2) 정부와 국가를 사회생활의 수단 또는 도구시(道具視)
- (3) 개인주의
- (4) 혁명의 권리보유
- (5) 자유선거
- (6) 정치적 반대여견의 법적보장
- (7) 사상표현의 자유
- (8) 법치주의
- (9) 다수결의 원리
- (10) 소수자 이익의 보호
- (11) 입헌주의 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독재정치의 세계관은
 - (a) 인간성에 대한 비관론(성악설(性惡說))
 - (b) 개인주의와 사회를 국가의 일수단(一手段) 또는 도구로서 간주(看做)
 - (c) 인간불평등과 집중제(권력통합주의)
 - (d) 복종의 의무
 - (e) 제한선거
 - (f) 일국(一國)일당(一黨)주의
 - (g) 사상(思想)과 의사(意思)의 통제지도
 - (h) 계급적 지배(支配)
 - (i) 권위주의
 - (j) 공익우선
 - (k) 입헌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 코리아와 아부라함 등의 공저(共著)정치학 입문(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1957)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관념으로서

- (1)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
- (2) 개인적 자유
- (3) 합리적 신조
- (4) 평등
- (5) 정의
- (6) 법치주의
- (7) 입헌주의를 열거(列擧)하고 있다.

존·프라이스는 그의 저(著) 「근대민주주의」 (Modern democracies, 1921)에서

국가의 지배권력이 특정의 계급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민주제국에서 사용되는 민주정치 형태는 그 운영의 방식에 따라 (1) 직접민주제와 (2)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로 대별(大別)할 수 있으며 대표민주제는 다시 (1) 의회주의 대표민주제(내각책임제)와 (2) 삼권분립주의 대표민주제(대통령 중심제) 및 (3) 중간적 혼합형태(참사회제=Conciliar government)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형태를 갖든지 간에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라면 공통된 점은 ①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억제 또는 권리의 침해를 배격하고 ② 권력분립주의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각각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되어 균형과 견제의 원칙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③ 법치주의에 의하여 또한 동일한 인간이 장기간 권력의 좌(座)에 존재할 것을 방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④ 인민주권의 원리와 ⑤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기(基)한 의회제도의 존립과 ⑥ 책임정치의 구현 및 ⑦ 입헌정치에 의하여 권력에 대한 제한과 억제가 합법적으로 민의(民意)에 따라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산주의독재체제는 ① 일정한 이데올로기(Ideology)를 강요하며 ② 사회혁명과 결부한 통제가 지배의 구실로 되며 ③ 경제구조와 계급관계가 항상 전략전술에 의하여 인도되며 ④ 개인숭배와 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잔인하며 ⑥ 자본주의를 적대시하고 ⑦ 정부에 대한 배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⑧ 반대의 자유가 없고 ⑨ 제(諸) 정당의 존립의 자유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일국 일당주의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는 결국 민주주의정치체제와 기타의 정치체제간에 현저한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2,

파이너는 그의 저(著) 「앞으로의 정치」(The future of government, 1946)에서 대표민주제에 대하여 다음의 4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1, 대표민주제는 여러 가지의 장애는 있어도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해지는 선거에 의하여 그 원하는 정부를 선거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체제가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2, 무능한 입법자나 또는 폭군적인 집행기관을 압박함에

의하여 무능한 행정관이나 관료지배를 축출 또는 삭제하는 기회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3, 자유인 언론발표 기타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어서 민중이 원하는 바를 듣고 선거한다든지 질서있는 과정 하에 있어서 평은리(平隱裡)에 수습(收拾)한다든지 법앞에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암우(暗愚) 저항하고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4, 사회과정의 동적인 운영을 비용이 걸리는 방해나 파괴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 조력하는 정치적 일치를 존재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표민주제의 보장은 대표 민주주의의 권력적 기초를 장기에 걸쳐 배양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거기에 많은 결함과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혼란과 혁신의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동요와 혼란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대표민주제의 권력적 기초를 동요케 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a, 선거의 결과에 표현된 바와 같이 양립(兩立)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불명확함을 면하지 못하는 계급의 대립 투쟁.

b, 보편적인 경제적 획득욕.

c, 각 직업집단에 있어서의 경제적 할당(이득분배)은 이를 다투며 경제적 곤란은 이를 회피하려는 계급분열.

d,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격심한 시기에 있어서의 직업적 및 계급적 집단의 병양(病恙).

e, 각 개인의 직업 및 사회전체에 대한 불안과 고민

f, 정신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불안과 곤혹 등의 제(諸) 징조를 가진 것.

이상과 같은 파이너의 견해와 비교고찰 할 수 있는 것은 존·프라이스의 대표민주제에 대한 장단점의 검토라 하겠다.

그는 민주정치가 그 찬성자와 반대자의 쌍방의 예언을 다 부정하는 배리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前者)가 기대하였던 이익을 재래(齎來)하지 못한 반면에 후자가 위험시한 해악을 모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비록 낙천론자들이 그 도덕적인 감화력(感化力)을 과대히 평가하였다고 할지라도, 또 비관론자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였다 할지라도 양자는 모두 합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정치는 다른 정체에 부수된 해악을 그 양태만은 상위하다고 하더라도 태평은 재발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이 새로이 추가한 소수의 해악은 그것을 면하고 있는 구(舊)정체의 해악과 비교한다면 역시 중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그 장단점을 열거해 본다면,
장점

- 1, 민주정치는 개개의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동시 공안을 유지하였다.
- 2, 민주정치는 다른 정체에 손색이 없이 유능한 내정을 행하였다.
- 3, 민주정치의 입법은 다른 정체에 행해진 것보다도 한 층 일반적으로 빈민 계급의 복리를 위하여 지향되고 있다.
- 4, 민주정치는 수절(守節)과 지조나 정견(定見)을 결하거나 혹은 망은(忘恩)적인 것은 아니었다.
- 5, 민주정치는 용무와 애국심을 강화하지는 않았다.

단점

- 1, 민주정치는 왕왕(往往)히 낭비(濫費)적이고 보통 지출이 크다.
- 2, 민주정치는 각 국민간에 전반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다.
- 3, 민주정치는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전쟁을 회피하여 평화를 확보하는 점에 있어서 역시 업적이 빈약하였다. 계급적 이기주의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사해 동포적 인도주의를 함양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감과 혐오를 완화하지 못하였다.
- 4, 민주정치는 패덕(敗德)행위나 금권(金權)부패정치에 대하여 그 악(惡)세력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
- 5, 민주정치는 혁명의 공포(恐怖)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 6, 민주정치는 가장 공평하고도 유능한 시민을 충분히 다수 국무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기용(起用)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군주정치나 과두(寡頭)정치 또는 독재정치에 비교한다면 비등의 오욕이나 해악의 다수를 소멸하고 있으며 보다 좋은 실제적 결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류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해 왔으며 그것의 중심이 국가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국가적 생활은 정치적 생활과 표리관계에 있으며 정치적 생활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이해화복(利害禍福)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다양다기한 국가를 건설하고 파괴하고 재건(再建)하면서 급일에 이르렀다. 그 간에 허다한 정치체제를 경험해 왔으나 역시 가장 합리적인 정치체제이며 최대다수가 다같이 행복을 향락(享樂)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정치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것에도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허다한 결함도 있으나 결국 그 이상의 더 좋은 정치체제는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체제의 강인성이라고 할 것이다. (끝)

35면(三五面)에서

민단(民團)측의 말을 듣는다면 이러한 애절한 호소가 지난 1년동안에 이미 9000통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신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검열을 겁내면서도 이중봉투의 뒷면에 쓴다든가 송환시 미리 암호(暗號)를 결정해 두고 문통하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이고 또는 보통 서신을 연필로 쓸때는 생활이 최악의 상태이고 펜글씨로 쓴 것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상태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식의 약속을 해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초총련계(朝總聯系)에서도 소비물자의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연설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민단 측의 것을 송환 방해할 위한 중상(中傷)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단의 사무차장의 말을 빌린다면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 수 있다.

일하는 자의 천국이라고 선전하지만 그것은 송환되어서 환영을 받고서부터 1개월 정도의 일일뿐 그 뒤는 모두 공장에 돌려져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어 송환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일교포를 출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일본의 치안당국(治安當局)이 증명하고 있다.

이 북한의 근정(近情)이란 19매의 비밀 문서는 정당한 위치에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고 보니 이것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병에 걸려도 한 톨의 쌀을 구할 수 없고 목욕탕은 엉망진창이고하는 따위는 송환자의 서신에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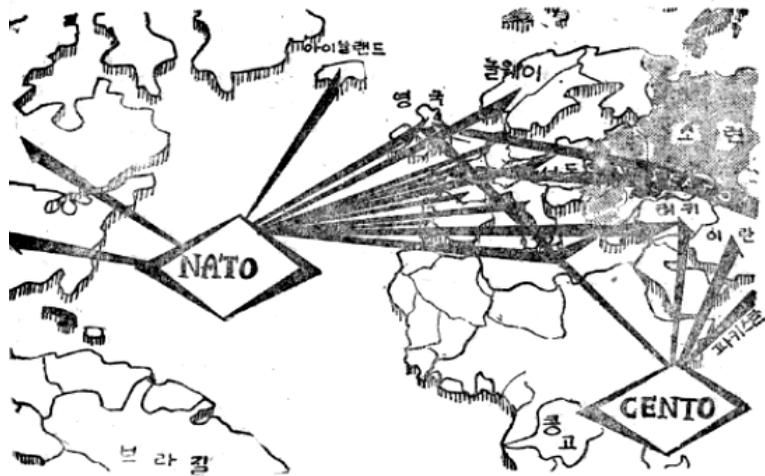
권위있는 일본의 치안당국에서 채집한 이 문서를 볼 때에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傀儡)의 차이는 제일 초총련 측이 아무리 크게 선전을 하더라도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난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된 송환 희망자들이 날로 송환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초총련 측의 마수(魔手)가 뻗치고 있으나, 이들은 차용금(借用金), 대부금(貸付金)의 미(未) 정리(整理), 급병(急病), 절차 상의 미스 등을 이유로 내세워 지옥행을 거부하는 예가 격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북송은 일본 적십자사와 북괴(北傀)간에 협정을 일년간 연장시키바 있는데 우리들은 동포들의 지옥행을 그대로 좌시할 것이 아니라 제일 거류민단의 선전기능을 강화 확대하여 이들이 학정과 불행의 포로(捕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근간(近刊) 외지(外誌)에서)

◇나폴레옹과 그의 부인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은 미인이었다. 나폴레옹은 진중(陣中)에서도 괴테 베르테르의 슬픔과 부인 조세핀의 사진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가 전 유럽을 석권(席捲)하고 상위에 오르기 직전의 전성(全盛)시기에 무슨일로서 “나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거야!”하고 부인에 호통을 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조세핀이 그렇지만 “저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당신을 움직이고 있어요”하고 생긋 웃는 바람에 그만 나폴레옹은 허허 하고 웃고 말았다.



국제 반공기구의 새로운 검토

박중희 (朴重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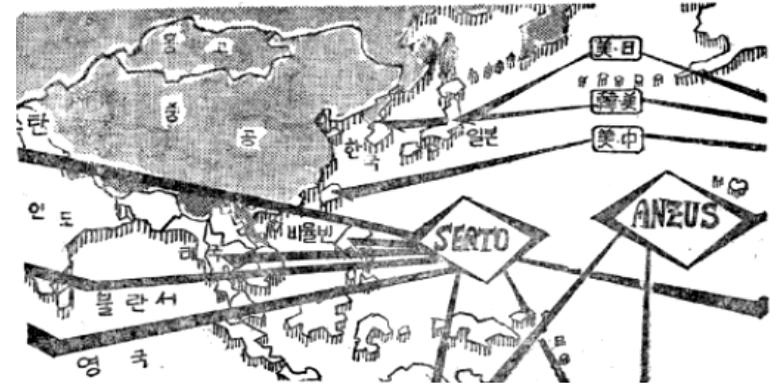
◇대전(大戰)후의 반공기구

세계 공산권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이 증대되고 동서(東西)간의 냉전상태가 장기화 내지는 격화되는 가운데 자유세계 반공기구의 강화책은 하나의 긴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제2차대전 이후 세계가 목도(目睹)해온 국제정치, 경제, 사회, 과학면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동은 동서 양(兩)세계로 하여금 모든 면에 있어서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해주었다. 지금 이글의 주제인 국제반공기구의 문제도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대전이후 국제정세면에 있어서의 팔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공산권의 확대, 그리고 이에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의 증대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없다.

구라파(歐羅巴)[유럽] 위성국가 군(群)의 형성에 이어 1949년 중공의 본 석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을 대전 이전에 비해 결정적으로 팽창(膨脹)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체제 하(下)에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광분(狂奔)해온 소련과 그 위성국 군은 전후 10여년 사이에 자유세계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궁극적 공산화라는 공산주의자로서의 불변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관계없이 경주(傾注)해온 공산제국들은 자유세계에 대한 경쟁적 의미에서의 도전자일 뿐만 계(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深刻)한 위협이 되어 왔다.

결국, 대전 전후 유엔헌장에도 표현된바 우리 일생에 두 번이나 언어에 절(絶) 비애를 인류에 준 전쟁의 참해로부터 장래의 세대를 구하고……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전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은 다시 새로운 장애(障害)에 직면케 되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질서를 세계적인 규모에 걸쳐 확립하려는 공산세계의 야욕(野慾)은 한국전쟁을 촉발시킨 1950년 6월 25일 남한에 대한 북한괴뢰의 불법침략이란 대표적인 예와 더불어 수많은 경우를 통해 명백히 되어 왔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은 개개 당해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비공산세계 전체에 공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과 나치독일의 패배에 작약했던 세계가 또다시 방위문제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게 된 것도 전기한 이유때문이었다.

더욱이 국제공산주의의 대(對) 자유세계 도전(挑戰)이 이들 전체의 통일된 역량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서방제국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방위체제의 확립을 통한 평화와 안보보장책의 강구(講究)를 불가피하게 해 준 것이다.

초주권적인 권위와 역량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하는 유엔의 강제력이 전혀 미숙한 조건하에서 증대되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키 위한 지역적 집단방위구는 서방제국들에게 자신의 주권과 독립,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결(不可缺)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폭발시험을 공표하고 미국의 원폭 독점기에

중지부가 찍히고 종전 미국의 결정적인 군사 우위의 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래 소련이 그의 도전적인 위협을 더욱 노골화 함에 따라 국제적 반공기구는 서방세계에게 초미의 과업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자유세계의 본격적인 집단적 방위체제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49년 4월 4일 발표 탄생한 북대서양동맹조약기구(NATO)였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구국가들로 구성된 이 조약은 체결의 경위에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또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의 지배의 원칙위에 선 국민의 자유, 공동의 유산과 문명을 옹호한다(전문(前文))는 포현도 반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공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삼고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조약의 주요한 목적은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와 공동방위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있으며 조약국은 구라파(歐羅巴)[유럽] 또는 북미의 어느 체약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각 조약국이 유엔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피침략국을 원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 사회 밑에 방위위원회 기타의 보조기관 및 NATO 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기구의 방위목적 수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아세아지역에 있어서는 동남아집단방위조약기구(SEATO)가 1954년 9월 8일에 조인(調印)되어 1955년(年) 2월(月) 19일(日)에 효력을 발생했다. 미(美), 영(英), 불(佛), 호(豪), 뉴질랜드, 파키스탄, 태국(泰國), 비올빈(比律賓)[필리핀]을 구성국으로 하는 이 기구는 침략이 있을 경우 조약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협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일국에 대한 침략을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인 집단군사방위력의 발휘를 규정한 NATO와 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1951년 9월 1일에 조인되고 52년 4월 29일에 발효한 ANZUS 안전보장조약이 있다.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3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요점은 체약국의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체약국의 헌법 상의 수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밖에 중동지역에는 통칭 센토(CENTO)로 불리워지는 중앙조약기구가 서방국가의 방위기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체약국은 유엔헌장 제 51조에 의거하여 그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1955년(年) 2월 토이기(土耳其)[터키] 이라간의 상호 방위조약의 조인으로 시작되어 55년 10월까지 영국 파키스탄 이란 등의 가맹(加盟)으로 집단방위체의 성격을 띤 CENTO는 1958년 7월 이라혁명의 결과 1958년 3월 이라이 탈퇴함으로써 현재 4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미국이 읍씨버의 자격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방위기구와 더불어 개별적인 상호방위조약들이 서방측의 군사동맹체제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유형에 걸친 방위체제는 직접적으로는 조약 당사국의 영토와 독립주권을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위하고 간접적으로

는 이러한 조약이나 기구의 존재가 조약 당사국에 대한 공격을 미연에 봉쇄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 보장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당사국의 하나를 공격하면 조약강사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명백히 해둠으로써 가상의 침략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자유세계의 방위기구들이 관계서방제국들의 단결을 과시하고 방위체제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공산침략을 저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방측의 모든 방위노력에서 미국이 영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대전후 공산측으로부터의 공공연한 무력침략을 최소한으로 극한시키고 평화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전기(前記)한 방위체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 규모에 걸친 방위기구망을 유지강화하면서 소위 다량보복체제를 정비하고 어떠한 공산침략도 대량보복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의욕을 사전에 위축시키기를 시도해 왔다.

자유세계의 방위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철의 장막(帳幕)넘어서도 자체역량강화의 맹렬한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괄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1949년 9월, 당시 미국의 트루만대통령이 소련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미국의 원자폭탄독점이 끝났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이에 뒤이어 1953년 8월 소련의 당시 수상(首相) 마렌코프가 미국은 이미 수소폭탄을 독점할 수 없다고 성명(聲明)했으며 그 후 곧 미국의 원자력위원회는 소련이 수폭(水爆)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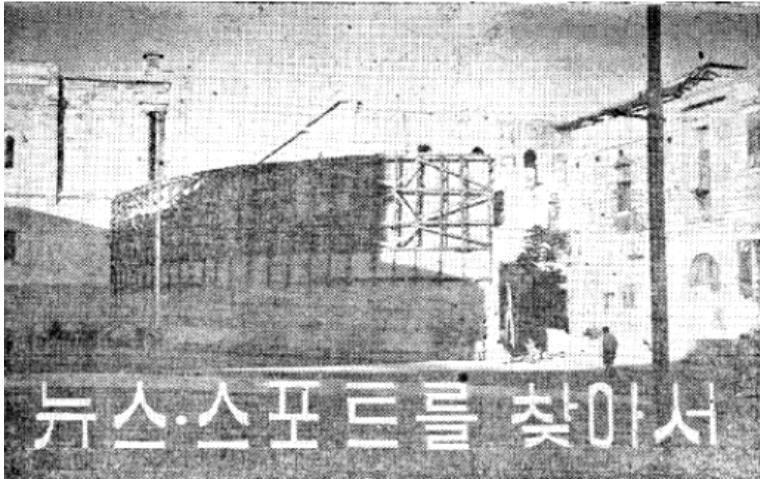
◇공포의 평화

미소(美蘇) 양국이 다 같이 원수폭(原水爆)의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러 군사과학 면에 있어서 소위 포화(飽和)된 균형상태가 조성됨으로써 국제정세면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이른바 극한무기로 지칭된 원수폭의 미소(美蘇) 공유는 이미 전면적인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극소화시켰다는 설을 대두(擡頭)케 했고 이에 따른 방위정책의 재검토론이 운위(云謂)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이 의미하는것이란 간단히 말하여 미소(美蘇) 양국이 원자전쟁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필경 전면전쟁이란 상호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며 전면전쟁을 야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한다면 포화적인 균형상태란 네 개의 주요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즉 첫째, 미소(美蘇)간 대체적으로 호각(互角)적인 원자력 이용능력 둘째, 대체적으로 호각적인 방위능력 셋째, 대체적으로 같은 주요 공격목표 선택의 가능성 넷째, 미소(美蘇) 양국의 전면적 원자력의 전쟁 수행능력의 독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 분석이며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논도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미소(美蘇)가 다 같이 소위 일방적이며 압도적인 핵 전쟁의 가능성이란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소(美蘇) 어느 일방이 1. 원자병기와 장거리폭격기, 대륙간탄도병기를 포함한 운반 수단의 절대적 우위를 획득하고 2. 원자병기를 방어하는 체제에 있어서 절대적



……해의 특파(特派) 행각(行脚)중의 소감……

이규현(李揆現)

저서는 작년 12월부터 약 유개월간 주로 1960년 중에 세계의 시청을 집중시킨 뉴스·스포츠를 골라서 방문하고 돌아왔다.

우선 푸미·노사반, 장군 휘하(麾下)의 친(親)서방군(西方軍)이 남쪽 사바나케트에서 거사하고 극적인 진격을 한 후 중립에서 친공(親共)으로 기울어 가는 수바나·푸마공(公)의 정부를

축 우위를 차지하며 3,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4, 적의 보복군을 마비시키며 5, 세력권을 압도적으로 확대시킨다면 포화적 균형상태 또는 공포의 평화라는 것이 붕괴되어 버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전(前) 미국무성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케네디 정부의 국제안 전보장담당 국방차관보인 폼·니체씨는 얼마 전에 발표된 방위정책을 논한 한 논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서구진영은 원수폭 병기에 의한 공방에 있어서 공산권에 대한 우위를 무기 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서 원자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며 마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원자전쟁을 이성적으로 전개하고 전쟁에 의한 파괴도 최저한도로 억제시킬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쟁취 내지는 유지한다는 것은 서구진영에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구진영은 원자병기 및 기타병기의 기술면에 있어서, 또 원자공격 및 방어용 병기체제를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요소에 있어서 적어도

출(出)하고 수도를 탈취한 직후의 라오스에 들어갔다. 수도 비엔티엔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콩레 대위(大尉) 지휘하의 정예 낙하산 부대와 공산 파레트·라오군의 협동작전에 부닥쳐 전세는 예측을 불허하고 수도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태국과 라오스를 왕래하면서 취재하다가 신문사에서 증파된 다른 특파원에 게 인계하고 필자는 한국의 4·19 혁명 보다 꼭 한달 늦어서 군사혁명이 성공한 토이기(터키)(土耳其)로 향했다. 전복된 민주당 정부의 수상(首相), 각료(閣僚), 여당의원 등을 포함하는 요인들의 비행을 가리는 특별재판이 해군 훈련장인 야시아다도 섬(島)에서 한창 진행중이었다.

로마에 들려서 아프리카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 했으나 루뎀바의 살해로 또 다시 소연해진 콩고로 채 비자를 받을 새도 없이 급행했다. 작년 7월 백의(백기에)(白耳義)로부터 독립한 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서 드디어 유엔군이 출동해서 겨우 도회지(都會地)의 치안을 유지한다고 했으나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험악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할거(割據)하는 군웅(群雄)들이 역시 신생 독립국인 말라가시 공화국의 수도 타나나리브에서 소위 원탁회의를 열고 콩고의 연방화에서 합의를 보아 정치적으로 소강상태가 이루어지기에 카탕카주(州)를 경유해서 인종 차별로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경하고 동부 아프리카를 북상해서 케니아에 이르러 원주민의 1 부락(部落)을 방문하는 중 정부의 전화로 수도 나이로비에 본사에서 전보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뜻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급행해서 아이히만 재판을 보도하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두 나라에 찢긴 비애가 있다. 도시 각처의 가로(街路)는 높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고 그 저쪽에는 요르단 국군인들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다. 사진은 바리케이드와 위협! 경계선이라는 경고판 등.

평등 또는 가능하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서방측이 기습공격을 받는다면 적에게 일방적인 성과를 얻지못하게 하기 위하여는 서방측이 그 지리적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 지리적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서구진영의 지리적 유리성(有利性)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공체제의 발달 둘째, 서구진영의 지리적 상황상 가능할 수 있는 기지(基地)의 광범위한 분산 셋째, 집단 안전보장기구와 동맹제국과의 실제적 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서구방식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자병기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사용할 것을 고려(考慮)한 정책으로서 이를 필요하면 행동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자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침략에 대응하고 정세의 만화에 노력하며, 전쟁지역을 축소시키고, 원자병기는 군사목표에 한정케하며 미국은 비핵군사력의 건설강화에 주력해야한다……』

이상에서도 별견(瞥見)될 수 있는바와 같이 핵전쟁의 문제가 미소(美蘇) 양국에 의해 다각적으로

비행기편의 관계로 파리에 가서 이스라엘 입국 준비를 했는데 아이히만 재판(裁判)을 보도하는 기사는 어마어마한 신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이 입국부터 해놓고 재판 취재 허가를 현장에서 촉진시켜다.

지루한 재판 과정을 어느 정도 보도하고 이제는 귀국하려 했더니 휴전 협상이 시작 라오스에 들러서 마지막 기사를 쓰고 오라는 신문사의 지시였다. 방콕에서 열차로 밤새껏 모기에 뜯기면서 국경의 마을 농카이까지 복상하고 메콩강을 건너서 5개월여 만에 다시 전시(戰時)도시 비엔티엔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공산 파테트·라오 군의 점령지대 속 깊숙이 들어간 곳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장소까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어가 마지막 기사와 사진을 발송하고 귀국의 도(途)에 올랐다.

이상 간략한 여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이번 여행에서 이태리(伊太利)와 불란서(佛蘭西)[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치는 곳을 편력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하겠다든가 모범으로 삼고 싶었다든가 하는 곳을 별로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가 부러워 할 만한 사물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해외 여행 중에는 어디서나 언제나 그러하지만 항상 한국의 것과 비교해 보는 눈은 이번 취재 여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것에 비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다 참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은 고루지 못한 것이지만 태국이나 콩고와 같은 곳에 가면 머리(頭)와 배(腹)가 너무나 불균형적인 것이 눈에 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비정상히 발달하고 그 속에 든 것이 많은 대신에 배가 곱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머리는 텅 비어있는 대신에 배는 곱지 않은 형편(形便)에 있다.

예를 들면 태국은 경제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그 수도 방콕의 급속한 발전과 번영은 모든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택시 운전수들은 깨끗하게 세탁 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고 싶은 곳을 미리

검토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전쟁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안일만 하기 어렵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대폭 체감(遞減)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감소되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전략과 방위의 재검토

공포의 평화 상태가 조성되고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나마 감소되어 감에 따라, 또 여러면에 걸친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어 감에 따라 동서상호간의 전략과 이에 대한 방위태세의 변화와 재검토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소련의 경우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전략적 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간과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서방세계의 방위, 또는 반공체제의 재정비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원자(原子)전략에 있어서 소련은 현 단계에서 전면적 전쟁을 감행하기 보다는 원자 공갈(恫嚇)과 정치전략으로 한정전쟁분야에서 간접적인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전략은 1, 원자 공갈,

태국인에게 부탁해서 태어(泰語)로 써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운전수에게 제시하면 읽지 못하는 운전수가 태반(殆半)이다.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의 명칭과 가명(佳名)을 태국 말로 듣고 발음 기호로 적어놓았다가 운전수에게 직접 태국어로 구두로 일르는 것이다. 한국서 문맹이 운전수 면허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택시 운전수 중에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남한의 면적이 375,000,000 평방 마일(mile)에 인구가 25,000,000인데 비해서 콩고 공화국은 실로 905,000 평방 마일의 면적에 인구는 14,000,000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콩고는 동(銅), 코발트(cobalt), 카드뮴(cadmium), 금(金), 은(銀), 석(錫), 아연(亞鉛), 철(鐵), 텅스텐, 망간, 우라늄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비롯해서 목재, 고무 등의 임산물(林産物)에 면화(棉花), 커피, 바나나, 망고, 코코넛 등의 재배와 수출도 정치적 분규(紛糾)가 없었더라면 왕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콩고 전국에 대학 졸업자



라오스 참모(參謀)본부 앞에서 - 좌측 두 번째가 필자(筆者)

정치 전쟁, 그리고 소련의 군수(軍需) 생산의 끊임없는 확대에 의하여 그 행동의 자유를 획득한다. 2, 기술상의 진보를 기획하고 첩보, 위만(僞購) 등을 적극화하는 일방(一方) 미국과 서방 제국의 기술상의 진보를 지연(遲延)케하고 그 준비태세 수준을 저하시키며, 자유세계의 결집을 마비(麻痺)케 하고, 그 사회조직이나 사기(士氣)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의 기습의 요소를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3, 미국 및 서방 제국의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체제를 약체화한다든가 그 군사력을 해외에 대량으로 못박아 둔다든지, 또는 이러한 군사력을 어떠한 형태의 소모전쟁에 끌어들이므로써 그 역량을 감쇄(減殺)케 할 것 등을 기초(基調)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都市)(도무지, 전허) 소련 군사과학은 순수한 군사적 요소 - 전략, 작전 능력, 전술, 군대의 조직과 훈련 등 뿐만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전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면이 제(諸)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제(諸) 분야에 걸쳐 가능한 모든 수단과

가 22명밖에 없다. 그것도 충실히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은 것이 못된다. 우리나라에는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학 재학생의 수가 77,500여명 이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도 4,000을 넘을 것이다. 국민 중에 대학 졸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콩고에서는 전에 한국에 와본 일이 있는 미국의 한 기자가 “너의 나라에서 그 많은 대학 졸업자들을 이 나라로 좀 수출하면 좋지 않겠느냐?”하고 농담을 한 일이 있었다. 필자에게는 그것이 순전한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사실 대학 졸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좀 더 해외에 진출했으면 한다. 남아프리카에는 460,000의 인도인과 4,500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동부 아프리카 각국에는 인도인과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 동남아세아 각국에서는 화교들이 대단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교포들은 주로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징병 또는 징용되어 갔다가 잔류한 사람들이 동남아 몇 나라에 살고 있는데 괜찮게 살고 있지만 불과 수십명으로 수적으로는 보잘 것 없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구미(歐美) 각국의 일류대학에서 훌륭한 기술과 높은 학위를 받은 우리 청년들이 동남아세아나 아프리카의 신생국가에 정부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기술 고문(顧問)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구라과(歐羅巴)[유럽]인들에 대한 반감 내지 증오감을 갖고 있는 전(前) 식민지에서 한국인의 기술자나 학자가 의외로 환영받을지는 모른다.

브라질 같은 곳에 집단 이민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상당한 예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모험을 각오해야 하겠지만 집단 이민과 같은 큰 애로(隘路)는 없을 것 같다. 다음에 다른 민족의 해외 진출상을 보이는 몇 가지 실(實) 예를 들기로 한다.

필자는 케니아의 호텔에서 30세 미만의 일본인을 만났다. 오사카(大阪)의 상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 일본인 청년은 아프리카 전 대륙을 순회하면서 직물을

형태를 통하여 미국을 압도하려는 기도(企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종래의 소위 대량보복정책을 파기(破棄)하고 직접 간접적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정책을 채택하기로 한 것도 공산권의 이러한 대(對)서방세계전략을 옹계 인식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상 크레믈린 영도층(領導層)이 새로운 대(對)서방세계작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어왔다.

미소를 띄우며 소위 평화공존을 설교하기 시작한 훨씬 전부터 스탈린 자신에 의하여 시시(示唆)되었다.

1952년 10월 그가 죽기 5개월전 스탈린은 비공산세계에 대한 새로운 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제19회 공산당 대회에서 중공과 동구(東歐)가 자본주의 기구로부터 분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구공업국의 시장을 축소시키며 서구 선진제국과 아세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후진, 또는 중진제국

판다는 것이었다. 오사카의 큼직한 직물 도매상의 점원이라고는 하나 약질로 생긴 그 청년의 적극성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비행기 속에서 어부라는 일본인 2명을 만났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 과연 어부답게 든든히 생긴 이 청년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어로(漁撈)작업을 하다가 급용(急用)으로 귀국하는 도중이라고 했다. 그들 말에 의하면 450톤 가량의 냉동시설을 가진 모선(母船)이 아프리카 서쪽 해상에 투묘(投錨)하고 있으며 4·50톤 짜리의 낚아빠진 소(小) 주정(舟艇) 여러 쌍이 고기를 잡아다 옮겨 실어서 모선에 가득차면 이태리나 독일 선박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사간다는 것이었다. 어로작업을 하는 그 소주정들은 다 썩은 것이어서 사용이 끝나면 그곳에 버리고 올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대개 2개년 계약으로 가는데 특히 의료 시설도 결핍되어 있어서 쓸쓸하고 두려운 일상을 보낸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중국요리점이 한집 있는데 그곳의 조리사가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중국인인지도 모른다. 그는 홍콩의 일류 요리점의 조리사로 있다가 신문의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해서 그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홍콩에는 두 명의 부인과 자녀 여럿이 있다고 했다. 요리점 한 구석에서 자고 먹고 용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버는 돈은 모두 집으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태국이나 콩고는 넓은 땅에 수출 물자가 많이 생산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토대가 있으나 인적 자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빈약하다. 그러나 라오스 같은 나라는 물적 인적 자원이 공(共)히 궁(窮)해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땅도 사람도 바짝 마르고 기름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 면적은 89,000 평방 마일에 인구는 3,000,000 가량으로 추산된다. 남북한을 합친 것과 비슷한 면적에 인구는 한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셈이다.

그와 같은 라오스의 후진성에 비해서 손바닥 만 한 메마른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 국민의 발전은 참으로 경탄을 금할 길 없다. 이스라엘은 면적이 8,000평방 마일 밖에 안되는데 그나마 반은 네게브라는 불모의 사막(砂漠)으로 되어 있는

과의 경제적 관계를 교란(攪亂) 내지 단절케하고 서방제국, 특히 미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스탈린은 이보다 30년 앞서 명백히 소련의 정치경제력을 아세아와 아프리카에 확대 시킴으로써 서구제국을 압도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후르시초프에 의한 유명한 스탈린 비판이란 것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지만 스탈린 시대의 종언(終焉)과 더불어 크레믈린 지도층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한층 교활한 정책을 공산권 내외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스탈린 사후의 크레믈린 지도방식은 네 개의 중요한 점에서 소련의 정책에 전술적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소위 사회주의에의 독자의 길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점에서 후르시초프가 불가피한 정세에 빨리 눈을 뜨고 이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1956년 동구 위성국 내에서 일어난 반소(反蘇)폭동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못했을 망정 모스크바로 하여금 그의 위성국에 어느 정도의 국가적

토지에 200여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된 이 나라가 어느 선진국가 부럽지 않게 발전하고 동남 아세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통상(通商)은 물론이고 기술 원조의 손까지 뻗히는 것은 그 물적 요건을 모두 극복하려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민 구성은 다 같은 유대인들이라고는 하나 불과 몇해 전에 전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그들이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 각색이고 종교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같은 유대교 중에서도 2,000년 전과 다른 없는 교리의 해석과 의식을 그대로 준수하는 보수주의파와 현대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개화주의파와 또한 젊은이들 사이의 자칭 비(非) 종교인 들로 상당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대외적으로 볼 때에도 수도 예루살렘이 양단(兩斷)돼서 시내의 가로(街路)에 바리케이드를 싸놓고 저쪽에는 요르단 군인들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으며 서쪽이 지중해에 면(面)해 있을 뿐 북·동·남·삼방(三方)을 역사적 상국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특히 통일 아랍 공화국의 공군이나 지상군과 대치(對峙)해서 극도로 긴장된 매순간을 보내야 하며 국가 예산의 약 40 퍼센트를 국방비로 쓰는 것으로 추측되는 등 그 여러 가지 애로는 우리나라에 못지 않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민생활의 어느 측면을 들여다보더라도 돼가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면목이 뚜렷하다. 그 사람들의 검박(儉朴)한 것은 생활 습성이 돼있고 사치(奢侈)란 남녀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모든 상점은 국산품으로 상표도 모두 국어인 헤브라이어(語)로 돼있다. 홍콩서 25달러로 살 수 있는 일제 트랜지스터·라디오에 123달러에 상당하는 가격이 붙어서 상점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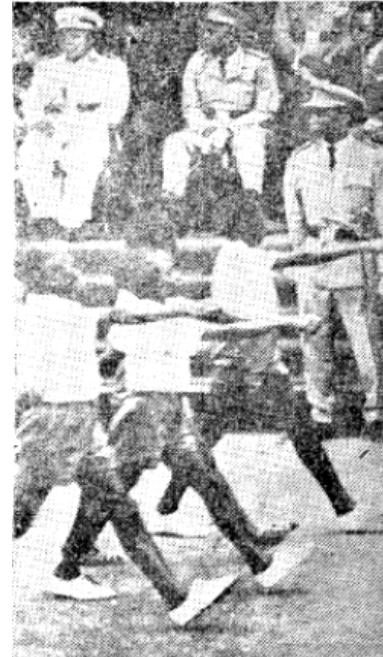
이 나라의 하이파라는 항구에는 큼직한 정유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차는 그리 흔하지 않다. 어느 날 밤중에 필자는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합승(외국에서 합승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밖에 아직 보지 못했다)을 타고 가던 도중에 합승이 고장(故障)이 났는데

독립을 전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케했다, 둘째로는, 크레프린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나라들은 곧 우리의 적대자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소련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중립제국을 서방세계로부터 분리시키고 가능하면 자신의 영향권 내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제공하고 정치적 침투공작을 활발히 전개 시키기 시작했다.

셋째로 소련은 개인의 강인성과 농민들의 중대한 경제적 역할을 간파하고 대 후진국 공작에 있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혁명의 전위(前衛)로 여겨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의 침투를 중요시하기에 이르렀다.

넷째는 스탈린에 의했던 냉전의 군사적 해석은 이제 폭을 넓혀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게 되었다.

결국 소련은 현재 후진상태에서 벗어나 조속한 물질적 진보를 갈구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제(諸)지역의 후진 도는 중진국가들에 대한 침투를 적극화함으로써



공고의 총배 대령이 소년들의 군사훈련을 사열하고 있다.

필자 옆에 허름한 양복에 노 타이·셔츠를 입고 앉아 있던 영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데는 놀랐다. 그는 트럭이라도 잡아타려고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녀복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받을 만큼 검소하다. 특히 이 나라는 남녀 모두 정병제도인데 하질(下質) 광목의 퇴색(褪色)한 군복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 올리고 샌달을 신고 대로가 좁다고 확보하는 여군은 외국 남자들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고갈(枯渴)의 계절이고 겨울이 녹색의 계절이다. 여름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데 산에는 본래 나무도 없이 석탄석 바위 뿐이고 지하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농장에 가나 수도(水道)로 물을 끌어서 미국서 잔디밭에 철수(撒水)하는 식으로 농작물에 철수를 한다.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면 농장만은 새파랗게 녹색의 불랭킷이 덮이고 그 주위는 모두 노랗게 풀이 말라 죽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 북쪽 끝의 요르단 강에서 150마일의

거리를 국도를 종단(縱斷)해서 직경 10피트의 파이프를

우선 이들 방대한 지역을 자유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비상한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정치 경계면에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이들의 서방세계로부터의 분리는 자유진영의 정비례적인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시도에서 소련을 선두로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직접 간접의 형태를 막론하고 군사적압력, 경제적침투, 심리적공세 등 일체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왔음은 전혀 부인만 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쿠바, 라오스 등의 사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케네디 미 대통령이 “오늘날 적은 한 발의 유도탄(誘導彈)을 발사함이 없이 그리고 한 사람의 정규군 병사를 국경 너머로 보냄이 없이 한 나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간접적인 침략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레프린으로 하여금 그러한 성과를 기대케하는 요인 중의 두드러진 것들로서 첫째 질병·무지 그리고 빈곤 속에 허덕여 온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나은 생활에의

문어서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 물을 추겨 경작지로 만드는 웅대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나라의 공업 농업 생산품은 멀리 아프리카 각지에 수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에 향한 외교 활동과 현지어 방송 등의 선전 활동도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기술 훈련을 받으러 이 나라에 와 있는 각종 인종도 큰 숫자에 달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경제 기술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단순한 국민들의 생활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믿어진다. 전체 국민이 살아야겠다는 한 가지 목표 밑에 한 편에 외세의 침략을 막고 한편에 건설에 매진하는 정신과 기풍을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해외 여행을 해본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과연 여행도중에 본국 생각을 할 때 마다 '큰일났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돼야할 것이다. 그것이 옳은 길로 동원되고 총집결 될 때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양양(洋洋)하다 할 것이다.

의욕이 팽배해 왔으며 그것이 그들 국가 내의 정치적 욕구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교묘히 이용될 수 있었으며, 둘째 중전 미

국의 지도층이 흔히 군사적인 방위면에만 치우쳐 왕왕 반공이란 것을 국호로만 내걸고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라도 이를 환영 지원하고 동국(同國)내의 약점을 무시한 경향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만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구(舊)정권이 모두 강력한 반공정책을 표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패와 무능으로 결과적으로 반공세력의 강화커녕 오히려 공산주의자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위험한 상태를 조성해 놓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더라도 수긍될 수 있는 일이다.

(상) 소 · 중공대립……저놈이 나를 생매장 할려나!
(하) 중공의 집단농장……가만있게 아침 식사 중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사실들을 고찰한다면 “그러면 반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스스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유세계는 소련을 선두로한 국제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아세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제(諸)지역, 그리고 서구제국들을 그들 수중에 장악하기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자유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도의적, 역량이 공산권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항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초미(焦眉)의 요청이 아닐 수 없다.

공산권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이 그들 총체적 역량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서방세계로의 단결된 역량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위(保衛)라는 공동의 목표로 집중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결속과 단결이 단순한 정권의 대표들의 연명(連名)으로 된 방위기구의 존재로서만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이에 습득했어야할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제적 공동목표의 달성이 비단 집권층만 아니라 관계제국의 전국민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이며 의욕적인 참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단결된 자세(姿勢)는 그들의 수요와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비(非)공산 후진 제(諸)국민들이 하나같이 염원하는 1, 공정하고, 널리 분배되는 경제적 발전으로부터의 혜택의 급속한 실현, 2, 인종·종교·피부의 색채를 초월한 전면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인정, 3, 민주적 독립정권의 확립과 유지 등이 자유세계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장될 수 있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보장의 권리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들에게 뿌리 박혀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세계지도층이 이제 자유를 위한 싸움은 반공이란 구호에 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960년대를 “발전과 진보를 위한 10년”이라고 부르고 군사면에 있어서의 방위의존경향을 지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면에 걸친 협조와 제휴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돌리며 재래(在來)의 반공체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인류의 행복, 개인의 존엄과 기회의 평등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의 방위와 반공을 위해 격려적(激勵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자유세계의 전통적인 문명은 지금 그 운명을 건 도전 앞에 당면하고 있으며 기승리의 보장을 쟁취할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다.”

공산주의를 삼제(剷除)하는 길은 자유세계가 반공을 위해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또 어느 정도 조속히 구체적 행동으로 연역(演繹)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국제방송 대미(對美) 계장(係長))

냉전 (상)

이창순

서언(序言)

- 1. 냉전의 뜻
- 2. 냉전의 특징
- 3. 냉전의 이론적 배경
 - (1) 냉전의 발전과정
 - (2) 냉전의 전쟁형태
- 4. 냉전의 전략적 고찰
 - (1) 일반적 고찰
 - (2) 정치적 국면
 - (3) 경제적 국면
 - (4) 심리적 국면
 - (5) 군사적 국면

1, 냉전(冷戰)의 뜻

냉전이란 말의 정의는 다양다기(多樣多岐)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나 경우에 따라서 상이하다. 우선 그 정의를 정치학 사전에서 인용하면 “일반적으로 무기 없는 전쟁, 때로는 신경전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직접 교전하는 열전(熱戰)과의 상대어이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금(現今)에 있어서는 한국동란(韓國動亂)과 같은 열전까지도 냉전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냉전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전(前)미국대표였던 뼈나아드·바루옥 이라고 한다. 그다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외교평론가인 월터·lipp만인데 그는 죠지·케난이 쓴 「소련 행동의 원천」이란 글을 반박(反駁)하는 논문의 제목으로 Cold War라 제(題)한데서부터 일약 유명해진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월터·립만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紙)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선전과 침투 협력과 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냉전은 사실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에서 또는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냉전은 사상전(思想戰)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냉전이란 단순한 사상전이 아니고 무력전에

이르는 일보직전의 실력행동까지도 포함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백림(伯林)[베를린]봉쇄(封鎖)라든가 요르단, 레바논 사상에 있어서의 미영군(美英軍)의 상륙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 미룬다. 하여간 냉전이란 말은 미소(美蘇)의 대립관계를 표현하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영국의 처칠경(卿)이 1946년 3월에 홀튼 연설에서 소련을 가리켜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래 세계는 미소(美蘇) 양대국을 각기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세계로 분열 대립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日)·독(獨)·이(伊) 등 파시즘 구축 국가를 공동의 적으로 싸운 바 있는 연합국의 일원인 미국과 소련(蘇聯)이 종전 후로 강화조약(講和條約)의 체결을 둘러싼 상호의견의 대립과 소련(蘇聯)의 공산 빨럭 형상을 위한 정치적 내지 군사적 압력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소의 대립과 소련(蘇聯)의 세계 적화(赤化) 목표달성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압력으로 양극화 된 세계는 한결같이 원했던 평화의 유지는 차치하고 전쟁상태와 같은 긴장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냉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 냉전의 특징

냉전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두 개의 세계와 냉전과의 관계를 명백히 구명(究明)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양극화 한 두

소(蘇) · 중공(中共)=북괴(北傀) 군사조약의 해부

유완식(俞完植)



김일성(金日成) 일행은 지난 7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소련(蘇聯)정부와 소위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 들려 7월11일에 중공과도 명칭이 똑같고 내용상으로 비슷한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두 개의 군사조약은 세계의 이목을 모으게 한 것이 사실이고 그 성격이 여러 가지로 설명

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군사조약의 중요내용은 첫째로 체결쌍방의 한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한편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쟁에 이르기 전이라도 어느 한편이 침략의 위협을 받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넷째로는 쌍방의 공동이익에 관계되는 일체의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개의 세계와 냉전은 상호 표리(表裏)관계에 있다. 환언하면 두 개의 세계는 냉전의 상태를 표시한 동시에 두 개의 세계가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 냉전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세계의 대립상태는 고전적 의미의 냉전상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양대진영의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또 이는 냉전의 완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기실(其實)은 상호대립상태를 계속할 결의를 굳게 하고 있다.

냉전의 영역을 넘은 본격적인 전쟁은 상호 이를 피하려고 한다. 이것이 전면전쟁에 함입(陷入)되지 않은 제한된 전쟁 상태 즉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고찰 할 때 한국전란 역시 냉전하에 있어서의 국지전이었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의 특징은

첫째, 이데올로기의 투쟁으로서 자유 대(對) 억압, 진실 대 허위, 종교 대 무종교, 개성의 존중 대 야만적 통제,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이념에 대하여 공산진영에서는 평화옹호자 대 전쟁도발자, 민주주의 대 제국주의, 민족해방 대 식민주의 이와 같이 그들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제멋대로 내리고 있다. 하여간 그말의 진의(眞意)가 어디 있던 간에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투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유효기간은 소련(蘇聯)과의 것이 10년 (만기 1년전에 폐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인데 대하여 중공과의 것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목적과 성격을 다음에 말하여 보기로 한다.

(1) 소·중공의 패권(霸權) 다툼인가?

소련(蘇聯)과 중공 사이에는 공산주의이론과 세계적화의 전술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작년 6월에 열린 루마니아 공산당 제3차 대회 이상 세상에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공산권내에서 더 많은 지보(地歩)를 닦아 놓기 위하여 암투하고 있는 것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바니아에 대한 영향의 강화를 위한 반목은 그 뚜렷한 실례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지가 어느 정도의 확실한 근거 밑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7월 7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유고슬라비아 외상에 대하여 소련(蘇聯) 수상 후르시초프는 알바니아와 외교관계를 끊도록 종용하였다 한다. 물론 소련(蘇聯)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알바니아가 소련(蘇聯)의 국제 공산주의의 노선을 따를 대신에 중공의 노선을 따른다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북한괴뢰집단에서도 소련(蘇聯)과 중공의 그러한 암투는 반영되어 왔다. 중공을 배경으로 하는 연안파(延安派)와 소련(蘇聯)을 배경으로 하는 김일성 일파의 지난날 정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연안파에 대한 김일성 일파의 가혹한 숙청은 한때 중공 지도부의 감정을 거슬렀다. 1957년 11월 세계공산당 대표자회의때 후르시초프는 마오쩌둥(毛澤東)과 김일성을 옆에 앉혀놓고 서로 감정을 풀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 내지 국가적 투쟁

거개(學皆)의 경우, 이데올로기의 투쟁은 민족적인 투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다루어야 할 것이나 미국과 소련(蘇聯)은 다 같이 수다(數多)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냉전은 세계적 규모로서 민족적 투쟁의식의 잠재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양그로 색슨 대 스라브, 이스라엘 대 아랍, 토이기(土耳其)[터키] 대 노서아(露西亞)[러시아] 등의 민족적인 투쟁과 현금 한 진영 내에서도 민족과 국민간의 투쟁은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대(事對)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또는 민족적인 투쟁에 있어서의 특징인 냉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그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왔는가는 후에 미루기로하고 이 냉전의 특징이 한국전란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또 웅변(雄辯)으로 설명되었다. 그것은 즉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구체적 체제인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간의 대립이었다는 점과 전면전쟁을 유발(誘發)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쌍방 모두 전쟁을 제한 또는 국한하였던 것이다. UN군이 침략을 저지하고 38선의 원상복구로서 쌍방이 휴전을 성립시킨 것으로도 또한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蘇聯)과 중공이 다같이 세계적화를 노리고 있고 또한 그들의 반목은 세계적화의 전술문제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임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진영과 대적하는 문제에 당면하여서는 서로 힘을 합하여왔다. 그리고 이 문제앞에서는 각자의 세력상의 이해관계도 서로 양보하곤 한다. 1959년 가을에 후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소(蘇)중공(中共) 간의 알력(軋轢)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견해차이만 한것에 불과하다고 대답한데에는 어느 정도 솔직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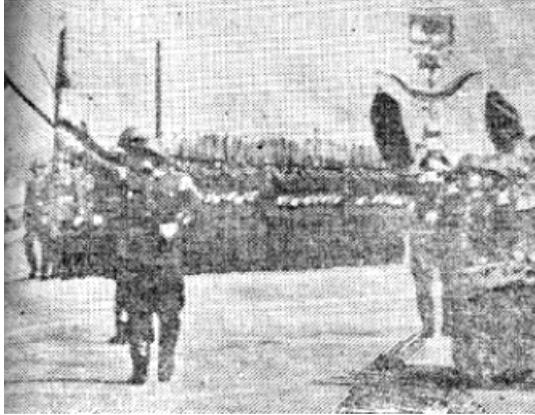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하면 소=북괴, 중공=북괴의 두 개의 군사조약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이것을 소·중공의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패권 싸움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소련(蘇聯)과 중공이 자유민주진영을 앞에 두고 또한 다같이 세계적화의 목적을 품고 있으면서 공산권내의 취약성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반목이 그렇게까지 심각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공산 군사공동체의 완성이다.

1955년 와루사와 조약에 의하여 소련(蘇聯)은 유럽 공산위성국과 군사공동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外)몽고(蒙古)와 중공과도 별도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괴뢰집단과는 아직까지 명문(明文)상으로는 군사공동관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실상으로는 북한괴뢰집단이 소련(蘇聯) 또는 중공의 무력 밑에서 명맥을 유지하여 왔고 따라서 군사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관계를 이어왔다.



침략을 위해 무장된 공산 동독군(東獨軍)

냉전초기에 있어 소련(蘇聯)은 정치적 군사적 또는 기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적 팽창 정책에 광분하여 왔다. 이에 대항하는 미국이 취한 긴급책은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것을 그 중요방침으로 삼아왔다.

3. 냉전의 이론적 배경

1. 냉전의 이론적 배경은 논하기 전에 간단히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

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영토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1947년 3월 12일에 소위 트르만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봉쇄정책으로 알려진 강경한 반공정책이 최초로 효력을 얻은 것이 터키와希臘(希臘)[그리스]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의 저지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경제적으로 뒷받침 한 것이 바로 유명한 1947년 4월의 마셜 플랜임은

후루시초프는 군사조약의 조인식이 끝난 다음 김일성에 대한 환영사를 통하여 “양국민들 간에 확립된지 오래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온 진정한 우호관계를 문서상의 기록을 통해 공고(鞏固)히 하였다.”라고 말 하였다.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번의 두 개의 군사조약에 의하여 북한괴뢰집단을 명약상으로 공산군사동맹체에 끌어 넣고 말았다. 이제는 공산 월맹(越盟)망녕 명문상의 군사공동체에 떨어져있다.

김일성 일행의 방소(訪蘇)에 앞서서 후르시초프는 공산월맹수상 판반·등을 모스크바에 초청하고 각별한 정중(鄭重)을 표시하였다. 후르시초프는 자신이 직접 그를 레닌그라드까지 안내하였을 뿐만아니라 모스크바의 관광시에도 몸소 그를 안내하였다. 판·반동의 귀국을 앞두고 열린 상례(常例)적 친선군중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월맹의 통일이 공산축의 조건에 입각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소위 피력(披瀝)하였다.

그러나 소련(蘇聯)은 공산월맹과는 이번에도 정식으로 군사조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어찌서 그랬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공산월맹과의 군사조약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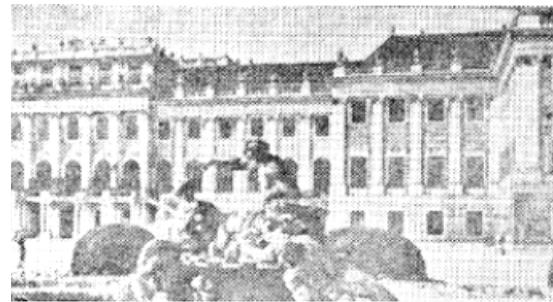
북한괴뢰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 언급한 후르시초프의 말과 같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라부라 그것을 맹문화하였는가에 문제가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5·16혁명에 당면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하여서는 종래의 선전공세에 의한 간접침략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고 생각한 끝에 북한괴뢰와 군사동맹을 맺는데 반하여 월맹의 정세로 보아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강력한 반공정책에 직면하게 된 소련(蘇聯)은 1948년 여름에 베를린 봉쇄를 자행함으로써 미소의 대립은 가일층(加一層) 격화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민주우방에 대한 경제원조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결과 베네룩스 등 5개국과의 공동방위 조약을 확대하여 미·영·불 등 4방 12개국이 참가한 소위 북대서양 방위조약이 1949년 4월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조인(調印)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50년 런던에서 NATO가 결성되고 초대 사령관에 아이크가 취임하였던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 5,000,000 소련(蘇聯) 지상군에 대적키 위해서 결성된 NATO의 성립으로 양 진영은 완전히 군사적으로도 대립하게 되어 냉전의 격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구라파(歐羅巴)[유럽]에 있어 자유진영의 방위체제가 강화될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비엔나의 쇼부론 궁(宮)-여기서 지난해에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와의 회담이 있었다.

아직도 자유월남에 대한 간접침략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여서 공산월맹과는 그러한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국제긴장의 고자세(高姿勢)

소련(蘇聯)이 목안의 가시로 된다는 서방 베를린의 자유시화(自由市

化)의 주장을 들고 베를린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련(蘇聯)이 1948년 이래 이번까지 3차에 걸치는 베를린 위기를 조성 하였다면 이번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지니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위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핵실험 금지회담과 군축(軍縮)협상의 장래도 암담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이번 두 개의 군사동맹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결속을 과시하는 것이며 무력적 배경 밑에서 베를린 문제에서 이미 들고 나온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즉 간접적 위협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서도 앞으로 자체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4) 극동(極東)의 반공체제의 방해로 노리는 것.

공산 군사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극동의 비공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이 반공집단방위체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케 할 목적을 품고 있다.

그러나 6.25 전란이 발발(勃發)하여 사실상의 열전(熱戰)으로 화(化)한 사실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와 같다. 한국전란은 전쟁형태의 견지에서 국지전이었으며 제한전쟁이었던 동시에 열전이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마렌코프가 영도(領導)하는 소련(蘇聯) 정부는 제19차 공산당대회가 채택한 양(兩)체제 간의 평화공존을 내걸고 주지하는바 평화공세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반면 한국전쟁에서의 휴전을 성립시켰고 군사적인 후퇴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후 1955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아세아 아블리가(阿佛利加)[아프리카]의 중립제국은 소위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였고 인도의 네루가 중공의 저우언라이(周恩來)와의 서장(西藏)지방의 통상교통에 관한 협정 시에 약속한 소위 평화 5원칙 즉 ①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 ② 상호 불가침(不可侵). ③ 내정(內政) 불간섭. ④ 평등 호혜(互惠). ⑤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채택하였고 또한

- (1) 기본적 인권, UN헌장과 원칙의 존중
- (2) 제(諸) 국민의 주권과 영토의 존중
- (3) 제(諸) 인종에 대한 무차별, 대소 국민의 동등한 권리의 승인
- (4) 내정 불간섭 불가침

작년 7월에 발효(發效)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대투쟁을 높일 것을 속셈으로 하는 동시에 동북아 군사방위조약의 체결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SEATO 동맹국들의 군사적 단결에 위협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라오스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앞으로의 라오스의 공산화 흥모(興謨)의 마당에서 SEATO의 군사적 개입을 그 성원국들로 하여금 주저케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극동에 있어서의 긴장 조성으로 자유국가 국민들의 중립주의노선에 자극을 주어보자는 야심도 숨어 있다 할 것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집단방위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자멸을 초래한다는 위구(危懼)를 품게 함으로써 양 진영에서 초연할 수 있는 중립주의를 지지케 하자는 것이다.

극동의 자유국가들의 이러한 중립주의에로의 이탈이 자유진영의 유대를 약박(弱北)시키고 공산적화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 북한의 영구적 지배를 목적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번 두 개의 군사동맹에서는 다 같이 군사적 공동방위를 다짐하고 있는 한편 쌍방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이나 어떠한 행동과 조치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정하여 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쌍방의 공동이익에 관련되는 일절의 중요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소련(蘇聯)과 중공이 이러한 조문(條文)의 유무에 불관(不關)하고 외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북한

- (5) 국련(國聯) 헌장에 일치된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 (6)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방위동맹 불가침.
- (7) 타국의 영토 및 정치적 독립 불가침
- (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9) 상호 이익과 협력의 촉진
- (10) 정의와 국제적 의무의 존중

과 같은 이상의 10개 원칙은 직접 평화공존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소련(蘇聯)의 평화공세에 호응한 것 같은 인상이 없지 않으며 A·A 제국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을 꺼려한 것이 틀림없다.

1955년 월 18일부터 23일에 궁(宮)한 제네바에서의 사(四) 거두회담(巨頭會談)과 1956년 10월에 닷셀이 스웨즈 운하의 국유화 선언으로 야기되었던 분쟁, 1957년 10월 4일 소련(蘇聯)의 스프튜닉 발사의 성공 1960년 5월에 개최된 바 있는 4대국 정상회담의 실패와 미국의 U2 첩보기사건 등은 냉전발전과정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건이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과 평화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며, 이에 따르는 냉전의 계속으로해서 대다수 약소국가와 민족은 신음(呻吟)하고 있는 실정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미소 강대국 중 어느 하나의 굴복만이 냉전의 종식을 의미할 것임은 물론이다.

괴뢰집단의 구축을 받으리라고는 세상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이 조문은 소련(蘇聯)과 중공이 일방적으로 북한괴뢰집단의 외교활동 앞으로도 자신들의 비위대로 묶어 놓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괴뢰집단이 소련(蘇聯)과 중공의 제시 밑에서만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정사실을 명문화하고 그러한 주종(主從)관계를 영구히 연장시켜 놓은데서 야심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김일성 괴뢰정권이 걸으로는 제법 안정되어 있는 양 과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할 것도 없다. 북한괴뢰집단이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욱만 더듬어 보더라도 이 사정을 알 수 있다. 포악한 독재로서만 반공 애국적 봉기를 억눌러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괴뢰집단 내부에서도 상이한 국제적 배경(소련(蘇聯) 아니면 중공)을 지닌 정권다툼이 치열하여 왔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괴뢰정권을 소련(蘇聯)과 중공의 군사적 위력으로 비호(庇護)하겠다는 것이고 혹 김일성정권인 다른 정권에 의하여 바꾸어지는 경우에는 이번 군사조약의 명문을 내들고 의연히 주종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새로운 정권의 소련(蘇聯) 또는 중공의 이익을 반대하는 조약의 체결화 기타의 행동을 구속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괴뢰집단 내의 친소(親蘇) 친중공(親中共)과의 세력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즉 중공은 더이상 김일성 일파가 친중공파를 탄압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련(蘇聯)으로서는 김일성 일파의 집권을 어떠한 세력으로서 침범 못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蘇聯)과 중공은 북한괴뢰집단과 함께 앞으로 괴뢰의 명맥



2. 냉전의 전쟁형태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이 냉전은 과연 전쟁의 한 형태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리 용이(容易)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군사전략 과정을 작성할 때에 교수들 간에 많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 도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냉전은 전면전쟁이나 제한전쟁과 같이 아직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상 양자(兩者)와는 구별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쟁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각 군대학과 특히 미(美) 국방대학에서는 3·4년 전부터 그 교정(敎程)에서도 냉전을 연구 과제로서 채택하고 있다는

을 위협하는 반공애국세력을 이 조약을 구실삼아 더욱 강력할 것이다. 중공과 북괴 간의 군사조약 제2조 1항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정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자유세계의 나라들 사이의 것이라면 조문에서 보여 준의미 그 이상으로 해석할 것이 못되고 따라서 각별히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공산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북한괴뢰와 관계되고 있는데서 문제로 되는 것이다.

즉 북한괴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강압할 수 없는 반공애국세력의 봉기가 일어나면 사실을 날조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제시와 원조 밑에 일어난 것이라하여 그 조약상의 명문을 내들고 소련(蘇聯) 또는 중공의 무력을 끌어 들이기를 서슴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억측이 아니고 그의 역사가 그렇게 보여 주고 있다. 어떠한 애국적 항거도 소위 제국주의와 결탁한 것이라 하여 숙청하고 말았다. 정권탈취를 음모한 박헌영(朴憲永) 이승엽(李承燁) 일당에게까지 소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구실 밑에 숙청하고 김일성 일당 자신의 영구집권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철의 장막 속에서는 제멋대로 세계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심보이다.

(6) 민주주의적 통일의 길을 막은 것이다.

공산측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통일만을 위하여 온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남한에 대한 선전공세의 여지가 있을 때에 소위 평화통일을 소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실로 5·16 혁명에 의한 반공체제의 강화는 그들의 간접 침략의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공군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역시 냉전의 중대함을 시인한 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냉전의 형태는 첫째, 정치, 경제, 사상 내지 심리전 등 비군사적인 부분과 둘째는 한정된 군사행동 내지 제한된 무력전의 둘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련(蘇聯)의 전략은 신축성과 융통성이 있다. 유명한 대전략가인 푸로시아의 크라우제비치가 말한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면 평화는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장이다.”라고 말한 사실에서 소련의 전략사상은 단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및 심리적인 각 분야에서 모든 비군사적인 투쟁형태를 군사행동과 통합하는 특수한 전략을 쓰고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은 전후 동 구라파(歐羅巴)[유럽]에 있어 정치, 경제, 군사 및 사회심리적인 압력을 교묘히 조정(調整)행사(行使)함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파란(波蘭)[폴란드], 홍아리(洪牙利)[헝가리], 불가리아 등 제국(諸國)을 공산화하여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소련은 전술(前述)한 바 세계 적화(赤化)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군사적으로 한국과

이러한 마당에서 공산측은 간접침략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본색 그대로 새로운 무력침략을 하여서라도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망밑에 두 개의 군사동맹을 맺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제시하고 우리 민족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인류가 지지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통일의 길을 막아버리고 보다 광적인 무력적 수단에 의한 공산화를 노리자는 것이다.

민족감정과 공산주의

소련은 헝가리에 있어서 교회(敎會)를 부셔버리고 그 뒤에 스탈린 동상을 세웠다. 나라의 문장에 소련의 문장을 첨가하였다. 관공청의 문전에는 붉은 별을 달았다. 유서있는 지명, 가도(賤道), 광장의 명칭을 스탈린, 레닌, 맑스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개인의 실내에까지 성모상을 떼게하고 스탈린, 라야꼬시의 상으로 장식케하였다.

헝가리 혁명의 원인의 하나로서 이와같이 소련이 헝가리인의 국민적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케한 것을 들 수 있다. 혁명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먼저 스탈린 동상의 파괴에 착수하였고 다음에 스탈린, 라야꼬시의 초상(肖像)을 떼어 내었고 그 다음에는 국기안에 그려져있는 망치, 낫, 보리뭉음을 오려내었다. 집집마다 게양된 국기에는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어져있었고 거리에 들고나온 국기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소련문장인 망치, 낫 그리고 보리뭉음을 오려내었기 때문이다. 또 헝가리의 내셔널 컬러인 적(赤), 백(白), 녹(綠) 3색의 리본을 저마다 가슴에 달고 있었다. 이 3색 리본은 자유의 전사라는 표시였던 것이다.

<금강(今岡)11낭(郎)저 헝가리 혁명에서>

인지(印支)[인도차이나]에서 무력전을 감행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실패하면 베를린이나 대만 등지에서 군사적 위협을 시도하기도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UN과 각종 국제회의를 통하여 때로는 평화공세나 경제공세를 자행하면서 자유진영과의 대결에서 이득을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의 조성을 획책(劃策)함으로써 표면에 나타난 것 등이 냉전의 한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냉전의 전략적 고찰

1. 일반적인 고찰

본래 전략이니 전략이론이니 하는 것은 전쟁 이전에 수립되었다가 체계화되어서 그 체계화되고 계획된 전략에 의해서 전쟁이 개시되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란 역사적 사실이나 이미 있었던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전략가들이 이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종래의 전략이요 전략이론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냉전에 있어서 전략이란 것도 아직은 완성된 이론으로서 이해할 수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세계 제2차대전시만 하더라도 신문 또는 시사용어에 불과했던 것이 양대전영 특히 미소(美蘇)의 전략으로는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심리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국제정세나 국제분쟁을 설명함에 있어서까지도 냉전이란 개념을 사상(捨象)하고서는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수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인 냉전의 이론화야말로 중대한 의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공(可憚)할 핵무기의 출현으로 전 인류의 파멸을 초래케 할 위험성을 보류한채 핵전쟁을 수행하는 것 보다도 냉전의 이론화와 체계화는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일반적인 냉전의 개념으로서 제2차대전의 종전처리의 문제를 위요(圍繞)한 미소(美蘇)의 대립은 미국을 위시(爲始)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주국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세계는 2대분(大分) 되었으며 이 양극화된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적대시함으로써 긴장상태를 조성하였고 각기 자기진영의 이익을 옹호하는데서 결과적으로는 냉전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서(東西)의 긴장 속에서 격화한 냉전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투쟁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것은 고전적 의미의 전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진영의 정책구현의 수단으로서 냉전이 지속되는 한 일종의 전쟁상태임엔 틀림없다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소(美蘇) 양대전영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열전(熱戰)에 못지않은 냉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이 냉전은

항상 열전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더욱 포괄적이며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냉전의 수행은 강대한 국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기반과 정신무장과 아울러 선전의 중요성도 또한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정치적 국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련은 대내(對內) 대외(對外)를 막론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기구가 확립되어 있다. 그들은 스탈린을 능가하는 후르시초프가 독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유진영에까지 조직을 통한 공산주의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또 그 좋은 예로서 1959년 6월 19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일본방문계획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使囑)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약소민족들의 민족주의와 독립을 열망하는 기운에 편승해서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케하여 공산화하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케하여 중립화를 획책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인공위성의 발사성공과 ICBM의 발전을 계기로하여 소위 스푸트니크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자유진영 내의 약소국들의 사상을 혼란케하여 불안을 조성케하며 A·A블럭 등 중립진영을 위협하거나 회유함으로써 그들과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서 대전 직후부터 소련은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하며 중공 및 북부월맹을 새로운 위성국으로 획득하였고 또한 통일아랍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동요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유진영은 UN을 통한 국제평화를 희구(希求)하고 있으며 상호 균등호혜의 원칙 하에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의 침략정책에 대비해서 1947년의 트루만 선언을 계기로 종래의 수세적(守勢的) 위치로부터 탈피하였으며 공산주의의 확대방지와 이미 공산화된 국가일지라도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려는 국민을 구출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여러 우방(友邦) 각국에 대한 자유민주제도의 육성과 경제원조 그리고 그 밖에도 공산침략으로부터의 방위와 정치적 보장을 위해서 NATO, CENTO, SEATO, ANZUS 등 집단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국과의 이변적 상호방위 및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영, 불, 소 등 4대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회의와 각국 수뇌들의 상호방문외교의 필요성은 냉전의 해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냉전이 정치적 투쟁임은 전술(前述)한 바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3. 경제적 국면

미소(美蘇)는 각기 자기진영의 제국(諸國)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후진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원조와 아울러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우호관계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냉전하에 있어 통합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뒷받침 하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소련을 위시(爲始)한 위성국들이 경제적 빈국에도 불구하고 인도, 통일이라프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중립진영제국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스탈린 사후(死後) 서방(西方) 측의 관심을 집중케 한 것은 소련의 새로운 경제전략이었는데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경제공세를 말한다. 그들은 후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의욕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1953년부터 1957년에 이르기까지 5개년에 걸쳐서 19억불에 해당하는 경제 및 기술원조를 하였는데 그 중 약 4분의3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것이었다. 소련이 제공하는 원조의 특색은 융통성 있고 연2분(分)이라는 저이자에 20년 내지 30년이라는 장기 차관(借款)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원조는 소련의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하겠지만 피(被)원조국에 대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과 또 원조가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대부분이 잉여농산물을 비롯한 소비재라는 점에서 수원국(受援國)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련은 중공업 시설을 비롯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를 피원조국의 요청에 응하여 중점적인 원조를 하는 까닭에 공업화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후진국의 구미를 끌게함으로써 도처에서 환영을 받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현상이다.

4. 심리적 국면

심리적이라 함은, 사상전(思想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심리전과 전술적인 심리전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말하는 심리적 국면은 냉전 하의 심리적 투쟁을 의미하므로,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국가정책의 선양(宣揚)등으로서 자기진영 내(內) 정신무장의 강화와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적측의 전의를 상실케하고 나아가서 중립진영을 자기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진영의 심리적 전략을 보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독제에 비하여 종국(終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관취(灌吹)시키며 이는 자유 대 억압 · 진실 대 허위 · 종교 대 무종교라는 상대적인 의미로서 표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근간으로 미국은 자유진영의 정책으로서 세계평화와 국제정의의 실현을 내세움으로써, 신생국가들의 민족의식과 반(反)식민주의에 편승하여 일시적인 인기를 노리는 소련의 평화공존이라는 기만(欺瞞)적 선전을 저지하는 한편, 자유진영의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핵무기로서 대(對)소포위전략과 종합적인 세력에 있어서 공산진영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사회심리적인 불안과 소련의 위협을 제거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인공위성과 달 로켓 및 ICBM의 발달을 선전하여 자유진영에 대하여는 공포의식의 주인과 특히 중립국가에 대하여는 영향의 증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성국을 총동원하여 간접 침략의 하나인 간섭과 게릴라를 투입하여 자유진영 제국의 정부기능을 약화시키며, 후방의 교란공작과 이데올로기적 사상통일을 방해하는 등 냉전하에 있어서의 적의 심리전략을 실사(實事) 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영후(令後) 더욱 그러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선전공작을 위하여 소련은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즉 작년 7월3일 워싱턴 발(發) AP동화통신에 의하면, 1959년 1년간에 공산진영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온 선전용 소포(小包)물 수(數)는 6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주로 공산국가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1,000,000통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며 1955년도에 비하여 근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5. 군사적 국면

그러면 군사적 국면으로 본 냉전의 전략적인 고찰을 하기로 한다.

이것은 정치, 경제 및 심리적 냉전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소 쌍방은 각기 자기진영의 집단방위체제와 개별적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싸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효과적인 방위체제로 강화하여 갈 것이다. 이와같이 방위체제는 동서가 다 같이 취하고 있는 바다. 양(兩) 진영의 방위체제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은 현재 소련 주변에 약 400개소의 군사기지를 부설(敷設)하고 있으며 이 기지에는 B47과 B52등의 전략폭격기를 배치함으로써 전시와 다름없는 체제하에 두고 있으며,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제공권(制空權)이 확보되었음을 과시함으로써 소련에 대하여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개 이상의 기동함대는 중거리 JET폭격기를 띄울 수 있으며 잠수함으로부터는 폴라리스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유사시에는

육해공군이 다 함께 사방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서구 및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에 대한 일시적인 공격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미국을 공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소련의 BEAR(TU-20)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항속력(航續力)(약700km)은 가지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음속에 미급하므로 격추 될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BISON(M4)과 BADGER(TU-16)는 도중에서 공중급유를 하지 않고는 공격이 불가능하다. 최근 소련은 바운다라는 대륙간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확실치 않다.

어떻든 미국의 전략공군은 항공기지 방공체제, 항공기의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우세하다. 설사 소련이 ICBM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단계에서는 미국도 동등한 역량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의 확보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인공위성과 ICBM 부문에 있어 미국에 대하여 선수를 쓴 후부터 일종의 미사일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진영에 대하여 공세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환언하면 소련은 인공위성이나 ICBM을 배경으로 한 협박과 유화(柔和)를 겸한 전략을 쓰고 있으며 소위 스포트니크 외교로서 자유세계의 집단안전보장체제 특히 소련의 주변기지망을 파괴하려고 맹렬한 외교 및 심리전을 감행하고 있다. 참고로 미소의 군사력현황을 다음 표에 비교해 보기로 한다.

(차호(次號) 계속)

〈위인 일화〉

나폴레옹과 그의 어머니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딧씨는 남자에 못지않은 여장부였지만 한편 나무랄 데 없는 충실한 주부이며 현모였다.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자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프랑스 대제국의 제왕이옵시다.”하고 어머니도 황제의 위신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어머니 레딧씨는 위엄있는 태도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 제왕의 어머니입니다.”하고 황제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폴레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알렉산더의 지혜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연소(年少)할 때였다. 호로시카라는 말 장수가 세계에서 이름난 명마(名馬)를 가져왔을 때 알렉산더의 부왕(父王) 필립왕은 마케도니아의 여러 기사(騎士)로 하여금 시험을 했으나 말이 워낙 사납게 날뛰는지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알렉산더가 뛰어나가 간단히 그 말 등에 올라탔다. 그는 말머리를 하늘로 치켜올렸다. 그것은 말이 지금까지 제 그림자에 놀라서 날뛰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알렉산더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 차렸던 것이다.

민주주의원리 세미나①

인간의 존엄성



1. 민주주의의 제(諸)원칙

근대민주주의는 서로 연관된 한 무리의 사상으로 성립되어 있다. 즉 개인의 존엄, 자유, 평등, 개인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사상은 보통 개인존엄이라고 불리우는 무한가치관이다. 여기서 가장 근원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자유, 평등 및 개인주의 등의 원칙이 모두 이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논리적발전(演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는 오직 하나의 원칙밖에 없다. 즉 그것은 개인의 무한가치의 원칙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른 원칙은 이 기본 원칙의 방계(傍系)적인 원리가 아니면 어느 일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의 무한가치관은 이와 같이 가장 기초(基調)적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하면 자유, 평등 다수결 등의 원칙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개인존엄의 원칙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궁극에는 개인존엄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직접으로는 개인의 자유, 평등 및 다수자 지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싸워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정리에서 차단된 파생적 원리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념적면에서 커다란 과오를 범하기 쉽다.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나머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가치가 평등가치보다 높다던가 이와 반대로 평등가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식의 가치질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즉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왜곡이 생겨난다. 자유, 평등, 개인주의 같은 여러 원리는 인격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면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니 인격을 떠나서는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들 여러 원칙 사이에는 모순이나 대립이나 가치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령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볼 것 같으면 양자는 결코 반대적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평등 가운데 참된 자유가 깃들며 자유 가운데 참된 평등이 깃든다. 평등을 떠나서 참된 자유는 없으며 자유를 떠나서 참된 평등 또한 없다.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평등이며 평등실현을 위한 자유가 아니면 안된다. 우리들은 평등을 상실할 때 자유를 상실하며 자유를 잃어버릴 때 평등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양자는 본래 그 참된 모습에 있어서 이와같이 일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들 두 개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히 일체적으로 파악되어오지 못했다. 18·9 세기와 같이 자유주의가 왕성하였던 시대에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절의 덕을 자유에다 돌리고 평등은 흡사히 진리나 진보의 적이 나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평등적인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자유로서 참된 의미의 자유는 아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일어난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물적조건의 평등화에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가치는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조건의 평등만이라면 노예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을 노예취급할 때에 더욱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오가 사상적으로는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표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는 필연적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먼저 민주주의의 첫째 원리인 인간존엄의 올바른 의의를 구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나 평등의 정당한 모습을 발견하기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2. 인간존엄성의 이념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은 존엄한 것으로 취급되며 개인의 권리는 신성한 것으로 존중되는 것이 첫째가는 절대 요건이다.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존엄이라던가 신성이라는 말은 신앙에서 오는 무한한 것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나 관념을 표현하는 말이다. 유한한 것은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존엄하다 단가 신성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이란 개인이 물적가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개인은 무한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일까?

개인의 무한가치라는 관념은 본래 기독교에서 생겨난 것이다. 기독교의 신학자(神學者)들은 대체로 이 관념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이라는 개념에 결부시켜 설명해 왔다.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애무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무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가사(假使) 이 이론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혼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먹이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것을 독단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리가 만무하다.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혼(魂)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인간의 도덕이다. 인간의 목적에 소용됨으로서만이 시인된다. 따라서 무한가치의 뜻도 인간본위의 입장에서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가치는 하나님이나 우주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전혀 인간에 대한 가치인 것이다. 고로 그것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생긴다. 인간이 욕구하지 않는 것에는 가치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고보니 가치란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무한가치라는 것을 자의대로 해석한다면 인격은 순전히 타인의 욕구의 대상과 평가의 대상만이 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각자가 평가의 원천인 자기자신에 부속시키는 가치 밖에는 없다. 크리스토는 이 사실을 ‘사람이 전 세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상실하고 자신을 손상하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갈파(喝破)하였다. 이것은 자기자신에 있어 자기 정신의 가치는 전세계의 가치 이상의 것 즉 무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는 자기에게 있어 어찌서 무한대의 가치를 갖느냐 하면 그것은 그가 세계의 다른 어느것에 적응하는 어떠한 가치척도를 가지고도 일체의 평가의 근원인 자기의 인격(육망의 총계)의 만족만은 소위 수단화할 수 없는 목적 그 자체를 이룸으로서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무한가치란 이와같이 각인의 인간된 고유의 지위에서 본래의 자기 자신에 부여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인간이 이상 누구 던지 자기에 대한 이 가치관에서 파악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의 무한가치관은 하등 신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된 지위에 대하여 불가분하게 생겨나는 것으로서 결코 문벌이나 생후에 얻은 지위 또는 자격같은 것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간의 고유가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인간의 자연가치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서도 계획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가치라고도 한다. 그것은 또한 목적 그 자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목적가치라고도 한다. 그 밖에 궁극가치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가 기독교나 서양 문명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더 올라가서 인간이 출현한 이래 항상 존재한 가치인 것이다. 각인은 자각했거나 아니했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인간된 고유의 지위에서 심리적 사실로서 자기에게 무한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기독교가 이 세계에 소개한 새로운 원칙은 자기에 부여되는 이 가치를 각인이 다른 모든 자기 즉 전인류에게 한결같이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도덕적 요청이다. 기독교가 이와 같이 개인의 무한 가치관을 전인류를 상대로 확장시킨 이론적 근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동정성우위관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동정심 즉 감정의 이입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정심이 있음으로서 타인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이쪽에서 싱글싱글 웃으면 상대방도 싱글싱글 웃는다. 인간감정의 총화(總化)는 그 사람의 인격의 심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정에 의해서 인격은 인격으로 이입된다. 이와같이하여 동정이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발견하고 자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와 비아(非我)와의 일치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간이라는 고유한 지위에서 자기의 인격이 무한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행위하고 있다. 동정심에 의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자기 가운데서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상대방도 나와 같이 무한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동정심의 교환은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각인은 동정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무한가치의 주체임을 의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실제의 의미는 타인의 욕망이나 목적이 자기 욕망이나 목적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욕망이나 목적이 실제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나 자신의 것으로 되어 나의 행동을 촉구함으로써만 즉 동정심이 작용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내가 공복으로 괴로워하는 한 통행인에게 한 사발의 밥을 주었다 고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나에게 이입되어 나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동정심이 없어도 단순한 이성적 의무관념에서 이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동정심에 의한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으로써만 현재의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감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의무관념에서 행위만을 형식적으로 모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방이라는 것은 그 원형이 없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원형은 동정심만이 이것을 잘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동정심은 감정이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좁고 더욱이 그 효력도 발현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급속히 약해진다. 이런 까닭으로 이성을 작용시킬 수 없는 순수한 동정심만으로는 사람은 근친자에게만은 무한가치를 느껴도 낯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내 자식에 대해서는 느껴도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무한가치관은 실제로는 사람은 모든 개인이 무한가치를 가진 것으로 느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가진 것으로 느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성적 판단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정성우위관이 요청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동정능력을 논리적으로 최대한까지 개발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일체의 행위를 지배하도록 한다면 우리들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은 무한가치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느껴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취급할 것이다. 이것이 즉 무한애의 권화(權化)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상으로서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첫째 원리인 개인의 무한가치관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원리인 애정우위관이 단순한 연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환언하면 민주주의의 기초정신이 동정 즉 사랑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용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관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도 이성 또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가 있다. 관용이란 우리들이 좁은 교유범위내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적 정서적 사랑과 구별되며 보다 이성화되고 사회화되고 보편화된 넓은 의미의 사회에서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럼으로 이것이 적극화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실현을 위하여 기회의 균등을 꾀하는 적극적인 결의로 화(化)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무한가치관은 논리적으로는 동정성우위관에서와 같이 이성우위관에서도 용이하게 연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이 실제로는 희랍(希臘)문명에서가 아니고 크리스토포 탄생 후에 기독교와 더불어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reymy만이 지닐 수 있는 사상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고대 희랍사람들에게는 이 관념이 없었던 것일까? 우리들은 흔히 어느 구체적인 결론을 함축하는 추상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때로 동기의 결여 때문에 그 결론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희랍사람들의 경우도 그 일례(一例)일 것이다. 이성은 간접적으로는 인간행위에 대하여 규범력을 갖지만 순수한 이성 그 자체는 의지라고 불리우는 감정 정서 및 의욕이 필요함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성우위사상은 개인의 무한가치관을 이론적으로 함축한다고는하나 다만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동기를 결(缺)하기 때문에 희랍사람들은 거기서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추출하지 못한 것 같다. 기독교의 출현과 더불어 동정 또는 관용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강조되어 왔으므로 개인의 무한가치관은 인간의 의식 가운데서 성장해 온 것이다.

다음에 이성우위관과 개인의 무한가치관과의 논리적 관계를 고찰코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의식하고 안하고 간에 누구나 자기의 무한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여기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성으로서 지도되는(자기를 객관화하는) 인간은 단순히 자기만이 아니고 타인도 또한 자기와 같이 무한가치를 갖는 것으로 반드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내가 무한가치를 갖는다 함은 나의 욕망이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에게 지상절대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된다. 즉 나에게 무한가치를 주는 것은 나 가운데 욕망이나 목적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나 즉 인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람은 동정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한 이성만으로서도 내가 욕망이나 목적의 주체라는 데서 자기에게 무한가치를 인정한다면 똑같은 이유로서 다른 나에게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만약 내가 이성우위관이 요청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으로 될려면 나는 모든 개인이 무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이성우위관은 인간이 본래 맹목적인 욕망이나 자의(恣意)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사려에 의해서 한정되어 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기만을 목적으로서 취급하고 타인을 전혀 수단으로서 다른 종류로 취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자기의 욕망이나 자의만으로서 행동하는 불합리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성은 나에게 욕망이나 목적의 주체인 인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니 다른 나인 타인을 달리 취급함은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성우위관이 명하는 합리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한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이 다른 모든 나(타인)도 똑같이 갖는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휴머니즘 혹은 이성의 심리적 우위관의 입장에서의 해석인데 칸트(1724-1804)는 그 자신의 학설에서

개인의 무한가치이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칸트도 희망정신을 쫓아서 이성이 인간성의 최고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성을 인간의 심리적 요소로서 보다도 비인간적 추상으로서 파악하려 한다. 즉 그는 이성을 우주의 법칙을 뜻하는 논리법칙으로 해석한다. 그는 말하기를 도덕이란 인간의 합리성의 표현이며 부도덕이란 비합리적 비논리적 모순된 행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성이 그의 철학에서는 보편적이며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즉 이성은 주관적 욕구나 자의를 초월하여 어떠한 욕구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성을 포함한 인격도 따라서 목적 그 자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쫓아 칸트는 너 자신의 너 자신의 인격 및 다른 모든 인격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고 결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라고 하였다. 이것은 도덕의 본질이 모든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서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칸트의 이와 같은 도덕법칙은 즉 개인의 무한가치관을 그의 철학 특유의 어구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무한가치관은 동정성 및 이성의 각우위관에서 직접 연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세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성은 동정의, 동정은 이성의 상반된 면을 이루어 양자가 단일 정신력으로서 작용하고 작용됨으로써 해서 보편적 도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단일정신력에 있어서 인식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성이며 정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동정으로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은 이러한 의미의 이성의 법칙이며 사랑의 법칙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궁극의 기초가 이성과 사랑 또는 관용정신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들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인식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인간존엄의 사회적 의미

다음에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무한가치를 인정하라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혹은 인격을 존중하라 하는 것은 제1의적(義的)으로는 개인을 목적 그 자체로서 취급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소극적면과 적극적면에서 개관(概觀)하고자 한다.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나 계급 또는 단체도 다른 개인이나 계급을 자기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도구화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적 요청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칸트 철학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이 있음으로써 해서 목적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환언하면 목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개개의 인간뿐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로 개인의 무한가치관 밑에서 최상의 가치를 갖는 것은 오직 개인뿐인 것이다. 사회나 국가 등 어떠한 개관도 오직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자기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만 그 의의와 가치를 갖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인 또는 그것의 총화인 국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국가와 같은 기관은 주인공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업 또는 도구로서 취급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국가 또는 그것을 지배하는 일부 특권계급이나 어느 개인이 목적이 되어서 일반 국민은 그것들의 의지에 봉사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거나 교육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무한가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목적과 수단을 바꾼 가치인식의 역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우리의 역사가 보여준 바 제(諸)정치체(政體)나 이것을 지지해온 일절의 지배적 이념은 일반 국민을 국가 또는 지배자를 위해서 도구화하는 반민주주의적 체제이며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정도의 차는 있을망정 주도력을 이성이나 사랑으로서가 아니고 의지 또는 강제에서 구함으로서 다만 힘으로서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인명이나 인격이나 인권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민주헌법으로서 비로소 유사 이래 처음으로 개인의 존엄성이 공인된 것이다.

기왕에 몇몇 나라에 존재하였던 노예제도와 같은 것은 인간을 다만 수단으로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였던 것이다. 링컨(1808-1865)을 위시하여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쟁까지 해가며 흑인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것은 단순히 흑인들이 노예로서 학대를 받아 불행하다는 이유뿐만은 아니었다. 노예의 대우를 제아무리 개선했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노예제도는 인격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예는 일체의 교환가치를 초월하는 인격의 무한가치라는 원칙을 깨뜨리고 상품으로서 매매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나 자혹심(自惚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자기의 무한가치관의 심리적 표상인 것이다. 무지한 야만인일지라도 이 무한가치의 의식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자기를 다만 상품화하고 수단화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자존심을 상하고 모욕감과 분격을 느낄 것이다. 자아의 자각이 증대하며 인격존엄의 민주주의적 양심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들은 노예나 그밖에 인신매매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적어도 사람을 상품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한층 강한 반감과 공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무한가치관의 적극적 의미는 각인의 인격완성 또는 복지 실현에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이 지상가치 실현에 소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데 있다. 인간의 여하한 도덕이나 관습, 법률, 제도, 교육 및 그 밖에 문화도 인격완성의 도덕생활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바지시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무한가치관이 잘 번져나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각인은 그 인생목적 실현에 최대의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도록 보장된다. 이에 반하여 인격의 존엄성이 이정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인격가치는 단지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나 기회는 당연히 부정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소위 기본적 자유권이 엄중히 규정되고 또한 보장되는 것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도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낙봉)

승공(勝共)을 위한 경제번영

이동욱(李東旭)



혹자는 말하기를 북괴경제(北傀經濟)는 대한민국 경제보다 낫다고한다. 기간(基幹)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에 있어서 북괴경제가 대한민국보다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북괴경제는 1967년에 완료하는 7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더욱 비약적인목표를 내걸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몽매에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5·16 군사혁명도 북괴보다 우월한 경제 번영

을 이룩하자는데 주지를 두고 있을진대 북괴경제의 동향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북괴경제보다 나은 경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북괴보다 나은 경제적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북괴경제를 알면 알수록 패배감을 깊게 할 수도 있겠으나 북괴가 여하(如何)히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여하히 현명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를 무찌를 수 있는 우수한 제도와 유리한 조건들 속에 있으니 겁날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북괴보다 우수한 제도이고 무엇이 북괴보다 유리한 조건들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따져보기로 하자.

1, 우수한 제도

① 사실이 더 귀중(貴重)

우리가 북괴경제보다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혁명정부에서도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를 택한 까닭이다. 경제성장을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필자도 한때는 생각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학생 지식인들 중에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제3차대전이 종전된 뒤 서독(西獨)의 기적(奇跡)이 발생하였고 가까이 일본서도 신무(神武)경기(景氣)니 암호(岩戶) 경기니 해서 기적적인 번영을 이룩한 뒤부터는 자유경제야말로 경제 번영을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생활 수준을 가장 능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입증이 났으나 저 막스엔겔스를 조종(祖宗)으로 받들고 있는 서독의 사회민주당 조차도 공산당선언(제1인터내셔널)이래 금과옥(金科玉) 조약 복음으로 삼아 오던 산업국유화정책을 제2차대 회에서 내동댕이치고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도록 당헌(黨憲)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자유경제냐 혹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냐 하는 논쟁에 중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경제성장률이 그들의 선전에 의하면 7%나 8%나 하지만 일본의 그것은 1959년에 18%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의 소득 배증(倍增) 계획은 연평균 성장률을 9%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과 자유경제를 제도로 삼고 있는 서구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제도로 삼고 있는 동구경제가 비교할 수도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은 자유경제냐? 혹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냐 하는 싸움에 흥미조차 느낄 수 없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19세기의 쇠괴 묵은 역사적 유물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슬픈일이다.

② 이론의 우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경제란 사유재산제도(생산수단의 사유)와 이윤추구(재산증가노력)를 위한 자유경쟁과 자유가격기구를 골자로 삼고 있거니와,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아끼고 조심성있게 다루고 나의 재산을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모든 창의를 다 동원하게 마련이니 사유 재산을 부인하고 자유처분(경쟁)의 여지가 없으나 다름없이 극히 좁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하에서 보다 능률이 더 날 것은 소연(昭然)한 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가격기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자유가격이란 자유경쟁가격이어서 파는 자와 사는 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파는 자들 간의 경쟁 사는 자들 간의 경쟁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정히 형성되는 법이니 그러한 경쟁가격은 궁극적으로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격을 내리는 경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도 필정(必定)의 이론이다. 자유가격 기구가 어떤때는 소비자들 골탕먹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긴 눈으로 볼 때에는 소비대중에 봉사하는 제도라는 것을 아는 인사(人士)는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가격제 도하에서 어떤 산업을 먼저 개발하고 어떤 산업을 뒤에 개발하느냐? 하는데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윤이 많을수록 국민에게 더 필요한 산업이므로 자유가격기구 하에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산업을 개발하는대로 자동(自動)하게 마련인 것이다.

물론 이익이 많다고 해서 아편장수를 해도 좋다던지 사치품만 만들어도 좋다는 따위의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으니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계안에서만 기업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한계선은 사전에 국가계획 하(下)에서 분명히 확정(劃定)되어야 할 것도 물론이다.

서독서의 기적(奇跡)도 자유경제를 현명한 계획하에 운영한 소치(所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③ 구(舊)정권의 경제체제

구정권 하의 경제체제는 자유방임경제 였다고들 한다. 그래서 북괴경제는 변영을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이꼴이라고들 한다. 이러한 견해에는 착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정권 하의 경제를 자유방임경제라고 함은 자유방임경제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인사들의 말이라고 본다. 자유방임경제라고 함은 허업인들이 제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구(舊)정권 하에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유를 준 적은 없었기에 말이다. 무역상들을 모리배(謀利輩)라고 치지만 수출허가 없이 수출을 시킨 예가 있으며 수출허가없이 수출을 시킨 예가 있었던가? 구 정권하에서 잘못된 것은 허가해 줄 것은 허가를 안해 주었고 허가를 안해 주어야 할 것은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구(舊) 정권하의 경제체제가 자유방임은 아니고 무계획적인 통제경제이었거나 제한경제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무슨 5개년 계획이니 3개년 계획이니 하는 것들로 떠들었으나 그것과 경제행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러므로 구(舊) 정권하의 경제체제는 자유방임경제도 아니요 계획경제도 아니요 계획적인 자유경제도

아니요 억지로 이름을 붙이려면 혼란경제라고 할까 혹은 마구탕 경제라고 할까 이러한 구(舊)정권의 경제체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북괴경제와 대결할 수 없을 것이니 여기에 5·16혁명의 동기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16 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는 강력한 계획성을 가미한 자유경제에 의하여서 북괴를 물리칠 수 있는 경제 변영을 이룩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물론 옳은 주장이지만 이를 서독이나 일본서처럼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요(要)할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기적을 내지 않으면 안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도 서독서처럼 일본서처럼 계획적 자유경제를 옳게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재삼(再三)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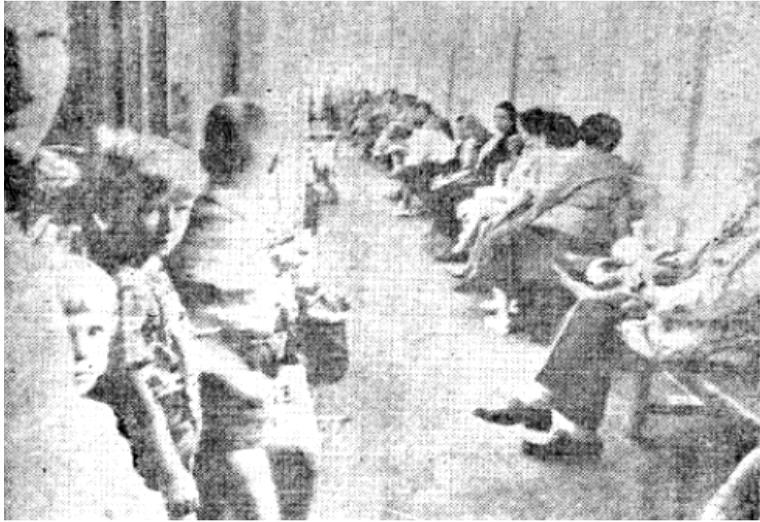
2, 유리한 환경

앞서 북괴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보다 능률적인 계획적 자유경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였거니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북괴와의 경제대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이 풍부하여야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공급이 넉넉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에 있어서 남한이 북괴보다 뒤진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유연탄(有煙炭)이 북한에만 있고 남한에는 없을 뿐이지 여타 자원에 있어서는 남이나 북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정확한 자원지식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① 인적자원의 비교

북한의 인구는 950만(萬)인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2,500만이니가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비교는 절대 숫자로만 할 수 없고 1인당 평균으로 하여야 하니가 생활수준이 어느 편이 더 높으나 함은 인구가 많다 적다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이 날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노동력부족으로 경제건설에 대단한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함은 일본에 있는 교포들 중에는 옳게 일 할수 있는 사람은 몇사람이 안되는데도 이를 다 데려갈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북한에 노동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은 북괴가 경제건설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을 의심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앞으로 북한경제가 더 전진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막바지인 것을 다룰수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인구가 1959년 통계에 의하면 32%라고 하거니와 여기서 광공업(鑛工業)인구로 이동할 것이 있기는



↑ 사진 설명
서(西) 백림(伯林)[베를린]시 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독 피난민들

하겠으나 대수로운 것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농지는 대한민국의 그것과 같아서 기구화하기에 부적(不適) 할 뿐만 아니라 밭과 달라서 논에 기구화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리고 기구화를 촉진시켜서 노동력을 절약하자면 기구생산이 족하거나 소련에서 원조를 가져와야 할 터인데 소련은 북한보다도 서구에 접하고 있는 동구공산제국의 경제 번영이 더 다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으로 북한에 줄 것이 신통치 않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체고 동독 등 공업국들의 원조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 발등의 불을 끄는데 벅찬 것이 실정이며 여유가 있으면 다른 동구공산국들에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화급(火急)한 것도 자연의 정리(情理)일 것이다. 그러니깐 농촌기구화에 의하여 노동력부족을 메운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겼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절약하는 방법은 공공업과정을 오토메이션화 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산주의나라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것은 그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탓이라고 본다. 즉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임금이 비싸지는 것을 오토메이션으로 노동을 절약하고자서는 채산(採算)을 맞출 수가 없음으로 오토메이션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익이란 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음이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처럼 오토메이션화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련에서조차

폭발 전야(前夜)의 동독

폭증하는 피난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독 난민성(難民省)이 7월1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동(東) 백림(伯林)[베를린]에서 서 베를린으로의 피난민은 7월9일의 일요일부터 10일의 월요일에 걸친 만 1일간에 2,400명 11일에는 약1,000명이라는 전후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고 한다. 여기에 2일부터 8일까지의 피난민수 4,670명을 가(加)하면 10일간에 실로 8,000명 이상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해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서 베를린의 피난민 등록당국은 동독 학교들이 10일부터 방학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의 이유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최근 동독에 있어서 경제적 정치적 불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동독에 있어서 정신적 위기는 1953년 6월 반공 의거(義舉) 직전과 흡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난민의 격증(激增)은 동독이 소련권 최전선에 위치하여 서방측의 발전상에 직접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러시아의 괴뢰로서의 자체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자유진여영 대하여 억지 추향으로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지

오토메이션이 보잘것 없으니 북한에서는 아마 이득한 잠고대다. 그러므로 오토메이션화에 의한 노동력절약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업자문제가 당장에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들에게 직(職)을 주기만하면 경제를 비약적으로 번영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노동부족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올 것을 내다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일에 그런때가 온다면 58% 농업인구에서 약 20%를 광공업인구로 떼와야 하겠는데 대한민국이 자유기업주의를 그대로 견지하는 한 미국·일본·서독 등에서 쓰고 있는 오토메이션을 그대로 따올 수 있음이니까 노동력절약에 의해서 노동력 부족은 거뜬히 극복된다고 본다.

② 자본 원조 경쟁

남북의 경제경쟁은 대한민국이 자유우방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얻느냐? 북괴가 공산제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얻느냐? 하는 경쟁이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북괴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고 중공과도 대동소이한 동맹을 맺었거니와, 이는 형식은 군사동맹이지만 실속은 북괴가 우월한 경제 번영을 꾀하는데 있어서 소련과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동독의 고통스러운 입장을 옹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라 할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의 실패 - 본 년말까지는 서독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떠벌리던 울부리히트 당(黨) 제1서기의 소위 공약이 전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해짐과 동시에 식료품을 비롯해서 가택 공업소비재의 부족이 여기저기서 비난의 적이 되어 드디어 7월초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종래 내걸었던 계획경제의 실패를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소위 국가계획위원회를 개편하여 장기계획위원회와 소위 인민경제회의를 만들어 주먹구구식의 급조적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그 성과 또한 불문가지(不問可知)일 것이다.

둘째 내핍(耐乏)정책의 강행 - 부족한 소비재의 증산을 도모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그들 계획경제의 근본은 여전히 군수중공업에다 두고 개나 돼지 같은 빈궁생활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불만 - 기술자의 서독으로의 피난민 수는 작년의 3배인데 놀라운 사실은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그 4분의1을 점하고 있으며 의사나 지식층의 피난민이 격증일로(激增一路)에 있다.

최근 동 베를린의 경시청(警視廳)이 동 베를린의 복음과 대화를 개척하는 것을 금지한데서 '종교의 자유'를 강압하는데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은 폭발적으로 높아져 노동자들까지도 거의 양성적(陽性的)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공산당 지방기관지까지가

중공이 힘껏 도와 준다고 한 협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군사동맹을 표면으로 내세운 것은 북괴의 경제 건설 노력을 자유 국가들이 특히 대한민국이 알지 못하도록 눈가림 하려는 잔꾀에 불과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공산위성국들한테서 많은 원조가 들어 올 것을 내다보는 것은 환한 일인데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소련을 제외한 공산국들은 제 발등의 불도 못 끄고 있는 주제에 남을 원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것이지는 않지만 1953년 휴전 이래 공산국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조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체코는 발전소를 만들어 주었고 헝가리는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 주었고 파란(波蘭) 폴란드 철도와 차량을 동독은 제철소를 만드니 약6억불이 공장 등을 세우는데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김일성(金日成)이가 경제 번영을 획책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식을 쓸 것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국들이 그동안 원조한 것이 약 7억불이나 된다니까 지금은 공산국들의 경제도 발전을 하였을 것이므로 10억불 원조 쬐는 어려운 것이 아닐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저평가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조는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소련의 소위 평화초안은 독일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던가 '소련의 서 베를린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동 베를린으로부터의 피난민의 봉쇄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따위의 소련의 대독(對獨)정책 비판이 실려 있음은 우리로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7일 이래 동독정권이 동 베를린시민의 서 베를린으로 가서하는 노동별이를 강압하고 서 베를린에의 민간항공기의 항행관리의 요구 복음과 교회에 대한 탄압 등 한층 더 동·서독간의 접촉을 절단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독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와 같이 동독의 움직임이 어늘 일면에서 베를린에 대한 소련의 소위 강경정책과 직결하고 있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보다도 동독자신이 위기해결의 강압적 술책으로서 소위 채국정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주)

◇동반자

1956년 4월 동 베를린의 시장이 서 베를린 시회의원들을 서 베를린에서 동 베를린 지구로 통하는 정보터널을 시찰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때 서 베를린 시장인 윌리 브란트만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자기가 선택하는 호위자를 동반한다는 조건이 수락된 후에야 초청에 응하였다. 그런데 서 베를린 시장의 응낙서한에 기재된 이름들은 모두 동독이나 소련 당국에 의해 정치범으로 구금될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원조는 군사적 원조였으므로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는 미미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번 케네디 정부는 후진국들에 대한 경원(經援)을 개발원조를 주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한국에 대한 원조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체험을 생각해보면 대수로운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이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42개의 후진국들을 다 도와주어야 하니까 한국에 돌아올 뻔이란 큰 액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도 정해둔 이치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만 원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영·서독·이태리·호주·캐나다·일본 등 제국에 대하여 응분의 원조를 구하여야 하겠으나 문제의 열쇠는 한국이 수원태세(受援態勢)를 옹게 갖추느냐? 하는데 달려 있으니 수원태세를 옹게 세우지 못하면 의당 받을 수 있는 원조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원태세를 옹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비니지스라이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니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는 적절한 시책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통상항해조약을 투자회망국들과 빨리 맺으며 외국서 차관(借款)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차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 주었다가 부담을 하게 되면 한은(韓銀)이 건달 수가 없지 않느냐고 이를 반대할 자도 있었으나 국제적 대차(貸借)관계에 있어서는 차압도 못하고 공매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갚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신용이 떨어진다고 하는 폐해밖에 없으므로 과히 겁낼 필요까지는 없다. 게다가 상황기한을 30년까지는 연장시킬수가 있으니 한은이 보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지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가져 오는데 있어서 한은이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은 20억불이고 30억불이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니 북괴가 소련서 무엇을 가져오건 걱정할 필요가 털끝만치도 없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리라, 국역에 한해서만 한은이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유경제를 주축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논법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영(民營)만이 북괴보다 빠른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경제를 택한 것은 자유경제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보다 국민복지를 보다 많이 보다 빨리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까닭을 두었다 하였거니와 게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시설)원조도 북괴보다 많이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남과 북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것을 내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경제를 옳은 계획에 의하여 운영할 때 그리고 자유우방의 원조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노력에 실패하지 않을 때 개가(凱歌)는 대한민국쪽에 올 것이다.

(필자·동아일보 논설위원)

★공산주의하(下)의 대학

부다페스트 대학에서는 레닌이즘, 스탈린이즘의 학습에 태반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강의도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각 전문서도 물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일관되어 있다. 대학규정에서는 종교과정은 수의(隨意)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종교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과목을 택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다. 만일 종교과목을 택하면 카아텔 (성분(性分)대장(臺帳))에 기입되고 장래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또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일 시간에 스포츠 경기나 문화집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예가 많다.

부다페스트 대학에서는 때때로 영화 연극의 입장권이 배부된다. 그러나 그 영화, 연극은 한결같이 소련의 작품들이다.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에 헝가리에서 상연된 흥행물의 90%가 소련에서 보내온 것이다. 그래서 소련제 문화범람에 식상한 헝가리 청년들은 소련것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기 방학은 2개월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휴가는 2주간도 안된다. 한달은 군사훈련이고 2주간의 이른바 사회주의 대건설을 위한 육체노동의 의무가 있다. 헝가리를 탈출한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의 한 여학생은 공산주의하에서는 인간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맑스, 레닌 주의만 배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전연 무의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맹종(盲從)과 맹동(盲動)의 지역

피뢰군 생활을 박차고

정낙현(鄭洛賢)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양단된 채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아직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땅이면서 남의 땅이 되어버린 저 북한 땅에서는 조그마한 자유도 찾아 볼 수 없어 국민들은 공산 독재정권하에서 공산당에 맹종 맹동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되풀이 하고만 있다. 이같은 학정을 나의 젊은 양심은 좌시할 수 없었다. 공산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고 공산 독재자들과 싸우려던 나자신부터 우선 자유를 찾는 과

감한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 적은 힘이나 마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였던 것이며 드디어 1960년 8월 3일 11시 45분을 기해 기수를 남으로 돌려 몽매에도 그리던 북한탈출을 계획한대로 결행한 것이다. 내가 이곳 자유의 천지 남한땅을 밟은 것이 벌써 1년이 되는 오늘 탈출 전 7년간의 피뢰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적어 그들의 흥책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

나는 선천사범전문학교 2년을 수료하고 18세되던해 즉 1954년 8월 26일 괴로 공군에 입대하여 동년 10월 1일에는 만주동북 길림성 연길현 연길시에 있는 중공군 10항공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가 바로 피뢰들이 비리에 부치고 있는 소위 군관학교인 것이다. 비밀보수라는 미명 하에 중공군 솜바지를 입고 신병훈련 3개월을 거쳐 본격적인 기본훈련 과목으로 들어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앞세우는 소위 당정치학, 노동당투쟁사, 공산당사를 비롯한 일반과목과 항법학, 사격학, 폭격학, 공중전술 등 항공기술과목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의 과목을 마치면 비행대대에 배치되어 기종이 상이한

3개 대대에서 각각 6개월씩 훈련을 끝내고 소위로 임관된다.

그런데 이들은 학생시절부터 기술과목보다 정치과목에 총력을 집중시키는바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기술보다 머리가 붙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청강자에게는 싫건 좋건간에 청강을 강요할 뿐만아니라 정치과목에 한하여 졸업기의 성적이 좋아야만 앞으로 전투부대에 배치된 후 발전이 빠르다는 등 위협적인 설득을 가하고 있다. 마침 내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때부터가 사회적으로나 군내부에서나 괴뢰집단의 가장 심한 혼란기였다고 보여진다. 즉 괴뢰정권 내부에서는 김일성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파벌투쟁과 군부내에서는 폭등을 일으킬 준비가 성숙되어 가던 시기이다. 이때 이를 눈치챈 김일성은 괴뢰집단내의 최창익, 박창욱, 서휘, 이필규, 윤공흡 등 괴수급의 숙청을 위시하여 말단 지방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숙청선풍을 일으켰다. 이때 괴뢰군부내에서도 김을규(총정치국 부국장)를 비롯해 평양을 공격하려다가 사전탄로된 4군단의 강평산(중장)등 수십명의 장성급과 수백명의 고급장교들이 체포 처형되었다.

이와 같이 혼란한 때라 부대에 따라서는 훈련일 1개월씩 중지하고 소위 사상검토 사업 등을 밤을 세워가며 감행하였다. 그 실례로서는 제 4폭격기사단에서는 중앙당 소위 지도클럽이 회의를 지도한다고 내려왔는데 자지도 않고 당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책상을 두세개 고이고는 그 위에 조금 의심된다고 생각되는 자를 올려놓고는 3·4일씩 심사를 계속하였다. 여기 올라서는 자들은 전부 고급장교들이었는데 사병들을 시켜 때리기도 하고 차기도하고 심지어 발밑을 불로 지지는 발광까지 하였다. 이렇게 반복괴집단 음모가 대대적으로 탄로되자, 괴뢰집단은 공공연하게 인민군은 김일성의 군대라고 규정하고 종전군내정치부를 통하여 군내의 당을 움직이던 것을 인민군 당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당에 의한 강한 통제를 받게 만들어 놓았다. 민족보위성 당위원장은 보위상이 겸무하고 집단군에서 군단까지는 등부대 지휘관이 겸무함으로써 완전히 김일성의 줄개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당을 정비

〈위인일화〉

◇벽(壁)구멍과 독서

전한(前漢) 원제(元帝)때 (주위(柱位) 기원전 49년-33년) 재상이었던 광형(匡衡)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며 틈만 있으면 공부에 열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책을 사서 볼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다른 집에 고용(雇傭)사리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배의 일을 해서 책을 살 궁리를 하였다.

그러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언제나 명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경(詩經)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흔히 딱딱해지는 것이 일수인데 광형이 시경을 해설하는 것을 듣고 있을 양이면 지루하지 않고 웃게 만들었다.

그는 낮에는 아무래도 노동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밤뿐이었는데 난처한 것은 등잔불을 켜려 하여도 기름이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가지 꾀를 내어 벽에다

재강화한 이들은

1개월에 2회이상 소위 초급당총회 (사병당원 포함)

1개월에 1회 훈련총회

10일간에 1회 대대훈련총회

배주 중대훈련총회

매주 토요일 군관학습회 (오후 4시간 철학, 정치경제학, 당투쟁사)

매주 당학습회 2회

배주 강연회 1회

일일 분조회, 일일 사병총회 등 이회에도 집단모임을 제외한 개별운동등 이루어질 수 없는 회의가 거듭되었다.

여하튼 매일 집회가 없는날이 없으며 영외장교들도 매일밤 9시~10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가게 되는 형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각 개인의 행동을 억압제한하는 것은 첫째 잡념을 없애고 반항심을 제거하며 둘째 당밖에 모르는 맹종자로 만들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치하에서 가장 가소로운 것은 밀정적인 소위 정치부원이란 자들의 소행인데 대부분은 소학교나 겨우 나와 농사나 짓던 자들로서 이들은 회의할 때마다 장교에 대한 사병들의 인신공격이라도 무조건 접수하라는 철부지 소리를 하는 것이며, 민청원인 조종사와 당원인 하사관을 대우함에 있어서도 당원인 하사관을 제1위로 인정하고 장교인 조종사를 제2위로 인정하는 몰지각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회의때 조종사를 공격하기를 “조종사면 다냐? 잘난게 무엇이냐? 네 몸은 당의 몸이다. 너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닌 기술을 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인간을 짐승과 조금도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로 말하면 우리는 그 소의 힘을 이용하고 고기를 먹고 있다. 자동차로 말하면 그것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의 수고를 더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조종사들이 김일성이나 공산당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소나 기계 같은 물건이 되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사병들에 대한 대우관계를 살펴 보면 보통 복무기간이 4-5년인데 외출이라면 집단적으로 1년에 1-2회 있을 뿐

구멍을 뚫고 옆집의 불빛이 숨어들게 해놓고 거기서 책을 읽었다 한다. 물론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크게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책을 움직여 가면 서 읽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원(馬援)의 용기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난경(難境)에 처했을 때이고 참다운 체력은 노년에 나타난다’

후한(기원 25-220)때 마원이라는 사람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광무제(光武帝)(주위(柱位) 25-75)때 이 사람은 출세에 출세를 거듭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만큼 체력이 좋았으며 무사답게 강한 일을 좋아했다. 황제도 어지간히 기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마원과 뜻이 맞았다.

“저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황제는 이렇게 그를 칭찬하였다.

그런데 그때 안남지방에 징측(徵側)이라고 하는 신흥종교의 무녀가 있었는데 그자가

휴가는 당원을 제외하고는 제대할 때까지 갈 엄두도 못낸다. 때문에 괴뢰군 사병들은 진급시켜주는 것보다도 휴가를 보낸다면 더 좋아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당원과 비당원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현격한 대우의 차이를 또한 내가 직접 겪고 목격한 괴뢰군 조종사들의 실태를 들어 그것을 살펴볼까 한다.

부대나의 생활에 시달리는 조종사들은 개인적인 발전을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며 군관학교 시절에 배운 것조차 복습할 여가가 없다. 아침 다섯시에 일어나면 여섯시에 비행장에 나가 12시에 훈련을 끝내고 부대에 들어와 강평, 저녁에는 회의나 당 학습회를 자기 전까지 하고 나면 목욕은커녕 제때의 취침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얽매어 생활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기 운전수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지휘관이란 자들의 대부분은 무식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조종사들에게 이론적인 면에서 압도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계급적으로 내려 누름으로서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실제적인 항법계산이나 폭격계산 등을 함에 있어서도 지휘관이란 작자들은 어물거리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적당히 해치우려는 경향이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량으로 양성되는 북한괴뢰군 조종사들에 비하여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을지 모르나 이론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장비와 전략 전술을 항상 연구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세련시킴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 공군 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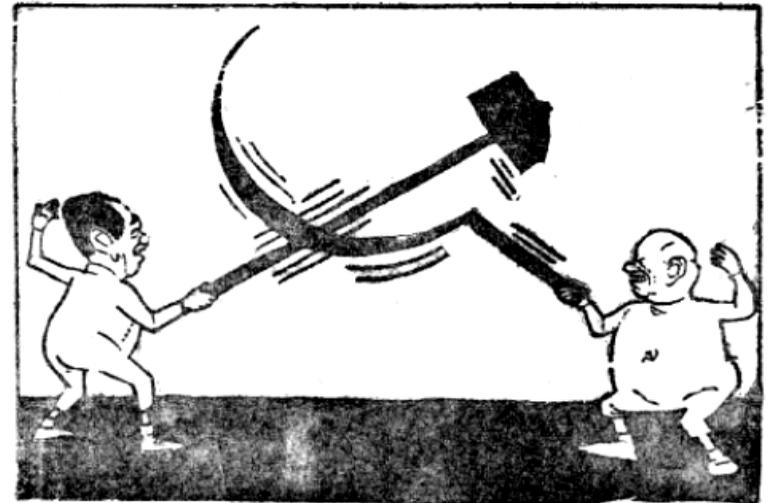


↑ 지휘는 내가 할테야



↑ 내것이다! 아니 내것이다!

↓ 덤빌테면 덤벼 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어 점점 사람들이 그 무너에게로 몰려 들었다. 그리하여 종내에는 모반을 기도(企圖)하기에 이르러 황제는 마왕에게 복파(伏波)장군이라는 칭호를 주어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는 용기 충천(冲天)해서 먼저 주육(酒肉)으로 군사들을 고무하고 해로로 안남(安南)을 향하여 징축의 반란군을 모조리 평정하였다. 이렇게 성공한 마왕은 내친김에 무릉오계(武陵五溪)부근의 만족(蠻族)들도 정복하도록 해달라고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그가 이미 62세의 노령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남방의 더운 지방에 있는 것은 건강상 좋지 못할것이라는 배려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분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갑옷도 입고 말도 타 보여드리겠습니다”하고 애원하자 황제는 웃으면서 “그렇다면 어데 한번 해보아라”라고 하자 그는 지체없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아직도 건전하다는 것을 과시(誇示)하였다.

“과연 용맹한 사람이다”라고 황제에게서 칭찬받은 바원은 기쁜 마음으로 남방으로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호두산이라는 곳까지 다달아서 더위에 지친 끝에 불귀(不歸)의 객이 되고 말았다.

시(詩)

폐허(廢虛)

황금찬(黃錦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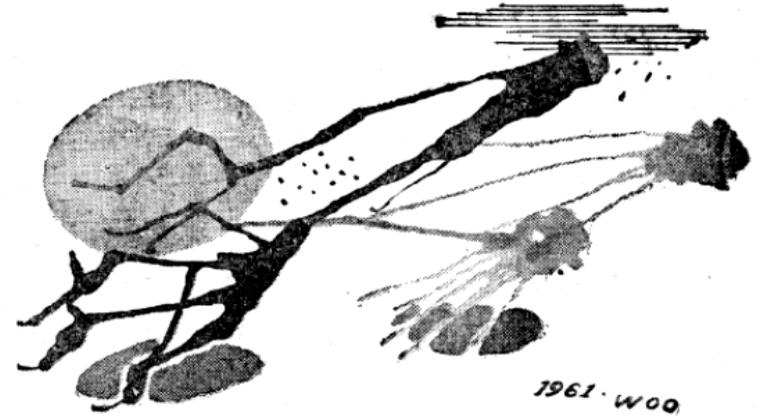
무너진 돌각담 모퉁이에서
 살구꽃이 피는 것과,
 허허한 땅을 뚫고 새싹이 솟는 것과,
 모래와 돌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길가에선 풀잎에서 이슬 방울들을……

창공의 용사들은 하늘을 갈고,
 창해의 용사들은 바다를 갈고,
 땅의 용사들은 대지를 갈고,
 여기에서 솟아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풀이요, 나무요, 꽃이요, 열매이다.

한밤에 꿈을꾸고, 꿈속에서 날아보듯이 폐허된
 마음 위에 자라나는 것은 명명하라.

그리고 기폭을 하늘에 띄라.
 바람을 타고 흔들어라.

썩은 못에서 피어나는
 이 백련화 한송이를 보라.
 이것은 4월, 그리고 5월이요,
 그것은 다시 6월이다.
 이 폐허의 땅에 꽃한송이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창작】

탁류(濁流)를 헤치고

김광주(金光州)

〈1〉

어느 모로 뜯어 보아도 정말 불품없이 생긴 마담이었다.

사람사람마다 심미안(審美眼)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 마담한테 반해서 가끔 난데없이 나타나는 얼간 같은 위인이 있다는데는 별어진 일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첫째로 북어 대가리나 젓가락 짝같이 빼빼 마른 여자는 나는 딱 질색이다. 그것은 내자신이 친구들과 목욕을 같이 가서 옷을 벗고 알몸둥아리가 되면 ‘마른 숫닭을 털을 뜯어 놓은 것 같다’는 표현밖에 받지 못할 지경으로 빼빼 마른 까닭에, 나처럼 마른 여성은 보기도 싫다는 심리작용인지는 몰라도

이 마담은 확실히 빈약할 지경이 아니라 애처로워 보일 지경으로 몸에 살이 라곤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옷을 벗겨 놓으면 가느다란 뼈만 앙상하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첫인상 밖에 줄 수 없는 호리호리하고 나긋나긋한 허리체가 움켜쥐면 한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뒤로 돌려 세워 놓고 바라다 보아도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둔부(臀部)가 있나 없나 하고 의심해야 할 정도로 허리 아래의 곡선을 찾을 수 없으며,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 세워 놓고 보면 뒤와 마찬가지로 가슴의 곡선이 드러날리 없었다.

둔부의 선을 찾을 수 없으니 유방(乳房)의 선인들.

“바람벽이군! 바람벽야!”

어떤 사람이 남에게 들릴까봐 겁내어 이 마담의 양가슴을 형용한 말이었다. 여자를 보면 당장에 섹스 어필이니 뭐니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여자의 외관이란 봉만(丰满)한 유방과 둔부의 옷속에 숨겨져 있는 투실투실하다든지, 몽실몽실 하다든지, 오동통 하다든지 하는 선의 여유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여성이란 우선 체구에서 풍기는 무형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된 모양이다.

속담에 ‘밥이 불지 않는다’는 말이 그것인 것 같다.

그런 육체에서 풍기는 선의 여유가 없다면 여성이 남성과 달리 지니고 있다는 매력이란 송두리째 죽어보리는 것도 사실인 모양이다.

“재수 없어! 난 저 여자의 쌀쌀스럽게 찌푸린 얼굴만 마주 쳐다보는 날이면 하루종일 재수가 없거든! 오늘도 수금되는 짝이 노랗는데!”

멀찍하니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손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손님도 내가 보는 한도 안에서는 일년 열두달 별로 빠져볼 날이 없는 이 K다방의 고객들이었다.

이 마담은 우리가 매일 한번씩 들리지 않으면 어쩐지 허전하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습성이 되어버린 M동 뒷골목 K다방의 소위 얼굴마담이었다.

약 칠팔년 전에 이 K다방이 처음으로 개업을 한 이래 손을 꼽아보면 주인이 벌써 다섯 번째나 바뀌었으니 이 소위 가오 마담이나 얼굴 마담이니 하는 것도 주인이 바뀔때마다 적어도 한 두 사람씩은 - 그렇고 보면 여덟 번째로 대하는 K다방의 마담인 것이 틀림 없었다.

이 마담이 K다방을 직장으로 삼고 나타난지 일주일쯤 되던 날, 나는 비로소 이 마담의 성이 채(蔡)라는 것을 누구에겐지 듣고 알게 되었다.

‘채 마담’

아무런 특수한 존재가 될 까닭이 없었다.

몸이 지나치게 말랐고, 거기 따라서 얼굴이 유난스럽게 쌀쌀 스텁고 매정스러워 보이며, 성격도 지극히 까다로워 보이고 각쟁이같이 보인다는 이 여성의 외관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나이는 마흔 다섯 살이라고 소문이 났었다.

또 거기 따라서 환경도 밝혀졌다.

여자의 경우-특히 다방을 직장으로 삼고 새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다방에 모여드는 손님들이 제일 먼저 궁금증을 금치 못하는 것은 싱글이나, 더블이야 하는 데 있었고 그것이 나이 듬직한 사십대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이 까닭모를 호기심을 남성들에게 던져주는 모양이었다.

누가 조사해온 신원조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채마담은 분명히 싱글이고,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이 막연히 다방에 퍼진 소문이었다.

마흔 다섯 살이라면 요즘 유한 마담들의 연륜으로는 늙은 편이 아니고 도리어 원기 왕성한 원숙기에 들어서는 나이라고 하겠으나 채마담의 얼굴은 확실히 볼품이 없는 얼굴이었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알미운 인상을 줄 지경이었다. 늙었다거나 낡았다거나 그런 형용보다도 채보담의 얼굴에는 분명히 고달픈 생활의 흔적이 낙인처럼 찍혀 있는 것만 같이 그의 인생 전체가 나른하고 맥이 빠진 것 같은 인상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어딘지 모르게 던져주는 것이었다.

두 볼이 여위었다고 할 지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살점이라고는 없는데다가 광대뼈가 다소 불그러져 나왔으며, 새카만 두 눈동자만이 전신의 신경의 총 집결체라는 것처럼 항상 깜짝깜짝하고 초점을 정할 못하고 이 손님 저 손님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은, 일견해서 지독히 신경질ियो, 알미웁고 방정맞아 보이기도차 하는 여성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매일 그 K다방엘 쉬는 날이 없이 드나들었지만 한번도 이 채마담이 어떤 손님의 옆자리에 가서 나란히 앉아서 된소리 안된소리 지껄여 대거나 손님들의 말대꾸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오후.

그것이 바로 소위 부정선거가 실시되기 사오개월 전 어느날 이었다고 기억된다.

친구 너더 댓이서 K다방의 구석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서 한담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평소와는 달리 다방 손님들의 시선이 다방 출입구로 쏠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자연 우리들의 시선도 그편을 바라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타난 것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체격이 건장하게 생긴 사십 미만의 신사였다.

그 뒤를 따라서 얌전하게 들어서는 삼십대의 똑똑하게 생긴 청년.

친구지간 같지도 않았고, 형제지간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거만스런 걸음걸이로 다방안의 넓적한 면적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무슨 조사나 하러 들어온 사람같이 휘둘러 보면서, 하필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 옆자리에 와서 자리잡고 앉는 사십미만의 신사의 태도는 건방지고 안하무인인 인상 그것 뿐이었다.

자리에 같이 앉는 것도 황송하기 이를 데 없다는 듯이, 그 신사와 마주 쳐다보고 앉았는 삼십대 청년의 태도는 비굴하리만치 패기가 없어 보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이 신사의 직업이나 신분을 마음대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어느 회사의 사장? 중역?

그렇지 않다면 관계(官界)의 국장(局長)급쯤 되는 인물?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흔히 할 수 있는 평범한 관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앉아 있던 옆자리에서는 예기치 못한 풍경이 벌어졌다.

이 사십미만의 거만하게 생긴 신사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멀찍하니 떨어져 있는 카운터대에 기대서 있던 채마담이 어떤 손님에게도 일찍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한 버릇인데……우뚱하니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같이 선 채로, 고개를 까딱까딱 해 보이면서 이 신사에게 알은체 비슷한 태도를 해보이는 것이었다.

이 정도라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은 없었을 것이다.

다방 마담이 다방을 찾아 온 손님에게 이는체를 했을 정도라면.

그러나 이 순간의 채마담의 표정에는 이상하게 심각한 빛이 감돌고 있을 것을 숨길 도리가 없었다.

부끄럽다는 표정인지?

곤란하다는 표정인지?

혹은 만나서는 안될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는 표정인지?

그 어떤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시커먼 한줄기 선이 찰나적으로 채마담의 얼굴 한복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감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음 순간, 사십미만의 그 거만스런 신사는, 그 역시 반갑다는 것인지? 네깻년이 별 수 있느냐? 하는것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가장하는 것인지? 그 어떤 것인지를 분간키 어려운 찡긋하는 미소를 큼직한 입가에 띄우면서 한편 눈을 찡긋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 찡긋하는 눈초리는 역시 인사라기 보다는 추파의 범위안에 드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채마담은 치맛자락을 환편 손으로 매만지면서 땅에 끌릴까 조심조심하는 걸음걸이로 이 거만한 신사 앞으로 걸어와서 우뚱하니 섰다.

“여기 좀 앉아요! 참, 오래간만인데……이 다방에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일찌감치 찾아뵙는다는 것이……바빠서, 자연 오늘에야……”

이주 정중한 인사 같으면서도 다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대사였다.

채마담은 대답도 없이 다소곳이 그 신사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어떻게, 각하께서, 그 바쁘신 몸에, 이런 다방엘 다?”

채마담도 고 야무지게 생긴 입으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얌전하게 인사말을 받아넘기는 것이었다.

“마담! 각하! 각하! 하지 마시우! 이런 다방에서까지 그놈의 각하소리! 듣기 싫어서, 헛! 헛!” 거만한 신사는 마음에도 없는 너털 웃음을 치는 것이었다.

“각하를 각하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호호……”

채마담도 역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은 아닌 모양이었다.

“호음! 그건 그거구, 이 다방에서 제일 비싼 것이 뭐요? 아무거나 좀 주시오!”

신사가 또 위협있게 명령했다.

사과 벗긴 것이 큼직한 접시에 한 접시.

그리고 무슨 쥬스 따위가 커다란 컵으로 두 개 놓여졌었다고 기억된다.

거만한 신사는 스트로우를 천천히 빨아 올리면서 자못 정중한 음성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때 어느 다방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대화에 불과했다. 가령 다음 같은 따위의.

“정말 널찍하고 기분 좋은 다방인데……언제부터 여길 나오시게 되셨요?”

"한 열흘 됐을까요? 저는 저지만 어떻게 여길 들리셨어요? 계신 곳에서 가깝지 두 않은 곳엘……참 영광인데요……이상한 일인데요……"

"헛!헛!헛! 채마담은 언제나 나를 보면 놀려먹구 싶은게지? 처음 만났을 때 두 그러시더니……떨기는 뭐……지프차가 잠시 수고하면 되니까……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모처럼 몇 시간 한가한 틈을 타서……그렇지! 유 비서!"

동의를 해달라는 것처럼 거만스럽게 생긴 신사는 삼십대의 청년을 쳐다 보면서 기분이 자못 상쾌한 모양이었다.

"하하하……유비서! 정말 오늘은 히트를 한 대 쳤단말야! 그따위 자식이 내 앞에서 딱딱딱딱하면서 눈의 가시같이 구는 꼴은 도무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무슨 히트를 치셨나요? 요즘은 야구도 하시는 것 같군요! 호호호……"

채마담은 또 한번 마음에도 없는 어색한 웃음을 웃어주면서, 피할 수 없는 손님이니 싫어도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을 역력히 나타내면서 넓은 홀에 꽂찬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무섭기라도 하다는 것처럼, 초점 없는 시선을 함부로 이리 저리 굴리고 있었다.

"헛!헛!헛! 내가 야구를? 히트란 야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야구에선 히트 보단 홈런이 더 멋진 것이 아냐? 채마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히트인지 모를거야, 또 알 필요도 없고……허허허……"

거만스럽게 생긴 그 신사는 정말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다는 듯 자못 통쾌한 표정으로 연신 너털웃음을 치는 것이었다.

각하!

비서?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농담인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구, 더군다나 비서를 대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 거만한 신사의 직업이 무엇인 것쯤은 어긋비슷하게 추측도 할 수 있지만, 단지 한가지 히트 라는 것은 뭇을 말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언제, 한번 한가할 때 조용히 만납시다! 내가 저녁을 한턱 내두 좋구!"

큰 접시에 벌려놓은 사과 쪽도 몇 개 집는 척 하다 말고, 신사는 점잖게, 그러나 항상 그 거만스럽게 어깨를 으스대는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삼십대의 암전한 청년이 공손히 뒤를 따라서, 그 거만스런 신사를 앞장 세우고 K다방 문밖으로 사라지고,

이어서 지프차의 클락션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다가 깨끗이 멀어질 무렵.

다방안에서 웅성대고 있던 여러 손님들의 얼굴은, 이상스럽게 긴장함이 일시에 풀렸다는 듯이, 서로 쳐다보고 수군수군, 까닭 없는 적대시같은 눈초리를 하고 다방출입구와 채마담을 번갈아끔 바라다 보면서 입을 삐죽해 뱉는 사람도 있었다.

"뺏히는 자식이 저렇게 건방져?"

누군지 내 옆에서 나지막 하면서도 날카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구석 저구석에서 오가는 쑥덕 공론.

"이 사람이, 말 조심해! 지금 그게 바로 XX장관……몰라? 요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 기세가 등등한 사람……"

"호음? 그래서 그렇게 거만스럽군! 그런데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 뭇이 답답해서 이런 다방 구석에서 한바탕 빼기고 가는거라지?"

"그야 채마담한테 반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

"키키!키키 저런 말라갱이 여자한테 반하는 자식도……"

"그건 모르는 소리. 돈 있고 세도까지 쏘는 사람들은 여자에게 있어서도 변태적일 정도로 이상한 매력을 찾아 다니거든…… 음식도 이 세상에 있는 가지 각색을 골고루 먹어보고 싶은 취미와 꼭 같이……살찌고 탐스럽고 투실투실한 여자에게서 싫증이 나면, 칼날같이 날카롭고, 쇠끝같이 쟁쟁하는 음성에도 육체에도 이상한 매력을 느끼는 수가 있으니깐……"

"그건, 정말 모르지, 서로 수작하는 품을 보니깐 상당히 숙친한 사이 같은 데……"

"호음? 사람의 일을 누가 알 수 있나? 채마담이 지금 XX장관의 '이건'지도 모르지!"

어떤 손님은 앞에 앉아 있는 친구만 알아 차리라는 듯이 새끼 손가락을 한 들한들 흔들며 보였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채마담이 지금 그 장관이라는 사나이의 세컨인지도 알 수 없다는 암시였으리라.

내 자리에 모여 앉은 몇몇 친구들의 입에서도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나가버린 거만한 신사에 관한 화제가 끊어져 갈 무렵에야, 나의 머리속을 번개같이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다.

XX장관.

어디서 언젠가 꼭 한번 본 일이 있던 사나이.

희미한 기억이 그제서야 내 머릿속에 되살아 났다.

분명히 그 사나이이다.

그리고 석간 파는 아이들이 다방 구석으로 몰려들 무렵이야, 얼마전에 그 XX 장관이라는 거만스럽게 생긴 사나이가 히트를 쳤다는 의미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 혼자만의 추측 같지만 했으나, 몇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간 다음에 이 추측이 들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석간신문들은 제 일면에 과히 크게 취급은 하지 않았으나, 어떤 신문도 빠뜨리지 않고 이단짜리 꼭 같은 중요한 기사를 취급 했었다.

그것은 외국공관에 상당한 요직으로 가 있던 어떤 외교관 한 사람이 그날 저녁때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으나, 그 보다 더 독자들을 놀랜 사실은 그가 서울에 채 도착되기도 전에 면직 처분이 내려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건방지게 생긴 신사는 무슨 암투인지는 몰라도,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외교관 한 사람을 잔인하게도 귀국하는날, 면직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벼슬 자리를 띄어버려 놓고,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고, 히트를 쳤다고 다방 구석에까지 나타나서 자못 도도한 기분으로 떠들어댔던 모양이었다.

②

그것이 분명히 여름철이라고 기억이 되니까, 이 XX장관이라는 거만스럽게 생긴 사나이가 K다방엘 다녀갔던 때로부터 또 다시 이삼 개월전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우연히 서울 장안에서 유명한 저 청파장(淸波莊)이라는 댄스홀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정말 우연이었다.

서울 장안에 살면서도 청파장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이 살아온 시골뜨기가 바로 나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발단은 나보다 더한 시골뜨기 진짜 시골뜨기부터 해야만 될 것이다.

우리들, 나와 나의 친구 S씨와, 둘이서는 그를 시골뜨기 사장이라고 곧잘 불렀다.

그는 나의 친구 S씨의 죽마지우였지만 나와는 초면인 사이였다.

S씨의 말을 들으면, 그는 부산 태생으로 그곳에서 자수성가로, 지금은 수억 대의 현금을 굴리는 기업체를 가지고, 깨끗하게 순전한 개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너더 댕번쭝, 난데없이 서울에 나타나서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돈을 물쓰듯 뿌려보고 또 다시 훌쩍 내려가서는 몇 달씩 소식이 없는 피상한 친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또한 나의 친구 S씨라는 것이었다.

지독하게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다. 그날도 나와 S씨는 K다방 선풍기 앞에 앉아서 가까스로 더위를 피해가며 한담을 하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는 택시에 납치를 당한 셈이었다.

이 시골뜨기 사장이 서울 M동 한복판에 표연히 나타난 것이었고, S씨를 납치해 가는 김에 덧붙여서 나까지 자동차에 태워버린 셈이었다.

굳이 사양했으나, 그 시골뜨기 사장보다도 S씨의 성화같은 유혹을 박차버릴 도리가 없어서 나도 도깨비에 홀린 사람처럼, K다방 문밖에 잡아놓은 택시 안으로 잡혀 들어갔다.

“따분하게 이 더운 날 다방구석에 앉아 계시면 뭘 하시우! 부산 사장이 모처럼 나타나서 같이 기분을 내자니 못이기는 체하고 우리도 한번 끌려 다녀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S씨는, 일행 세 사람을 태운 자동차가 어디든지 풀 스피드로 달리는 도중에 어떻게 그렇게 눈치 빠르게 잡아내는지, 길가고 있는 시인 W씨와, 화가 H씨까지 차를 스탑시켜 가지고 한테 태워 가지고 방향도 모르는 곳으로 덮어놓고 달리는 것이었다.

이래서 일행은 다섯명이 되었고, 택시가 스탑 된 것은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청파장-무시무시하게 굶다란 돌기둥이 서 있는 정문앞 광장 이었다.

청파장이란 무슨 신기로움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곳은 아니었다.

이층 댄스홀 면적이 무지무지하게 넓고, 네온, 선풍기, 밴드 따위들이 대규 모로 시설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분좋은 특색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다.

단지 한가지, XX장관이 외빈, 내빈들의 교제 때문에 가끔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서 유명한 유흥장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때 우리 일행들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있었을리 없었다.

일행 다섯명 가운데서 춤을 출줄 알고 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시골뜨기 사장과 S씨 뿐이었다.

댄스홀에다 갖다 놓은 시골뜨기 사장은 시골뜨기가 아니었고, 우리들 서울 사람나와 화가 H씨와, 시인 W씨가 도리어 시골뜨기가 되어서, 눈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댄스홀 풍경을 구경하면서 차디찬 맥주만 쭈스럽게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댄스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이 점점 선정적으로 돌아가며 여름밤이 완전히 어두워서 열시 부근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춤 못 추는 우리편 셋이서는 맥주를 서너병씩 마시고 나서, 남의 구경만 하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같이 앉아 있기도 쑥스럽고 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를 극력 주장했으나, 시골뜨기 사장은 막무가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술상을 차리고 기분 좋게 한잔 마셔보자고 우리들의 손목을 놓아주려 들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래층 넓직한 다다미방 한 칸을 치우고 와이셔츠까지 벗어 부치고 런닝 셔츠 바람으로 주연이 베풀어진 셈이었다.

다섯 남자 가운데 접대부가 칠팔명이나 섞이어 앉게 되었으니 좌석이 떠들썩해졌을 것은 물론, 시골뜨기 사장은 기분이 거나해 가지고 접대부의 무릎 짝을 쳐가면서 노랫가락까지 뽑으며 서울에 오래간만에 올라온 기분을 실컷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해이 너, 나 할 것 없이 술이 거나해졌을 무렵, 우리 방보다도 더 떠들고 노래를 하고 장구까지 쳐가면서 주홍에 겨워하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옆방이었다.

일본식으로 지어진 이 방들은 소위 후스마라는 얇다란 장지로 이방 저방이 막혀져 있을 뿐이었다.

사실 저편 방의 떠드는 품이 좀 도에 지나쳤고 옆방에 누가 있던 없건 안하무인 격이었다.

잠자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좌중에서 제일 먼저 술기운이 뻗치기 시작한 시인 W씨가 농담비슷하게 주성비슷하게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옆 방 손님들 좀 조용합시다!”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옆방에서는 벼락같은 고향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방 친구들도 어지간히 술이 취한 모양이었다.

“무엇이 어찌고 어찌? 감히 남의 방의 주홍을 깨뜨리는 놈이 누구냐?”

지금 생각하면 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XX장관이라는 그 거만스럽게 생긴 신사였던 모양이다.

“뭣이, 어찌구 어찌? 놀이라니? 말조심해!”

시인 W씨가 술취한 기분에 런닝셔츠 바람으로 벌떡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섰다.

벌컥 장지문 한짝이 저편에서 이편 술상으로 나자빠지며 난장판을 이룬 것이었다.

저편에는 십여명의 굵직굵직한 손님들.

접대부가 또 그만큼.

무슨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시인 W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XX장관이라는 사나이의 먹살을 잡을 기세로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찰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가지고 뛰어 내려온 청과장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힘으로 양쪽방이 몇분되지 않아서 처음같이 갈아 앉기는 했다.

그때 저편 방에 있던 십여명의 접대부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지금의 체마담의 얼굴을 본 일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잊어버렸던 허잘것 없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 건방지게 생긴 신사의 옆에 붙어 앉아서 싸움이 크게 벌여질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말리고 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체마담이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이 자리를 양보하고 후퇴하기로 했다.

일생 다섯 사람이 제각기 술맛이 젓혀진 표정을 하고 청과장 현관 밖으로 나올때야 지배인은 뒤를 따라 나오면서 시인 W씨의 귓전에다 대고 누구 들을세라, 겁내는 듯이 한마디를 뚱겨 주는 것이었다.

“그게 누구라고 함부로 건드리세요 바로 현재 XX장관, 아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시더라도 오늘밤에는 조용히 돌아가시급쇼, 다음 번에 꼭 한번 다시 들리셔서 기분 좋으시도록……새 접대부들도 그랜 많이 몰려들테니까요! 하하하……”

지배인 자신도 쓰디쓴 웃음을 띄웠고 시인 W씨는 그제야 그게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여전히 굴할 리가 없었다.

“치, 장관이면 장관이지……뭣이 어쨌다는 거야?……같은 술집, 같은 좌석에 앉았으면 다 같은 주객에 지나지 못하는 거지!”

세상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도 않은 기억의 한 토막.

일년도 못되는 짧은 동안에 개곳이 사라져 버린 허잘것 없는 기억의 한 토막. 그것이 우연히 되살아난 셈이었다.

어느 요정의 무수한 접대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름도 성도 기억 되었을 리 없이 내 눈앞을 꼭 한번 스치고 지나쳐버린 체마담이 오늘날 K다방의 얼굴마담이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나의 기억력 속에서는 좀체로 찾아내기 힘든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우연한 기회에 체마담을 직접 대하지 않았던들, 이런 기억은 통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3)

그 거만스럽게 생긴 신사가 K다방에 나타났다가 돌아간지 사오일도 못되어서 체마담도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또 세월은 흘렀다.

세월은 변한 것이었다.

4·19를 겪고 나서도 또 두달이 넘는 세월이 흘러 간 무렵이었다.

어느 여름날.

지루하던 장마가 개이고 난지 며칠째.

불덩어리 같은 태양 광선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극성을 떨고 내리쬐이는 오후, 나와 친구 S씨는 어떤 잡지사 한군데를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숨이 가빠오고 땀이 비오듯하는 더위를 견딜 도리가 없어서, A로(路) 코너에서 아무 데나 다방 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선풍기 바람이 잘 쏘여지는 자리를 택하고 앉아서 아이스커피 한잔씩을 시켜놓고 땀을 드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다방이었다.

우리가 늘 다니는 M동 뒷골목 K다방보다는 세감절이나 면적이 넓고 시원하고 화려한 다방이었다.

한창 더울때라 그런지 자리가 텅 비었을 정도로 손님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전축 언저리에만 십여명의 손님들이 둘러 앉아서 더운것도 잊어 버렸다는 듯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부정선거 원흉들의 몇 번째인지 공판 실황을 중계방송하고 있는 판이었다.

별써 몇 번째인지 우리들은 그들의 비굴한 변명의 답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거기 귀를 기울이고 싶은 흥미도 없었다.

“……어찌 어찌해서……그렇게 하자고 모의를 했고, 그것을 진두에 나서서 몸소 명령하고 지휘했다는 것이 피고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준엄한 재판장의 음성의 뒤를 이어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극력 부인하고 있는 피고 한 사람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수차 들어 온 몇 달전의 그 거만한 모습으로 K다방에 나타났던 사십미만의 그 거만한 신사. 또 그보다 몇 달전에 청파장에서 시인 W씨와 옥신각신한 일이 있던 바로 그 XX장관이라는 사나이의 음성이었다.

“흐음, 이 더위에 고생들 툭툭히 하시는군!”

친우 S씨가 무심히 한마디를 던지면서 아이스커피에 꽃핀 스트로우를 쭈욱 빨고 있을 때 난데 없이 다가서는 여자가 있었다.

채마담이었다.

K다방을 더나간 후 소식을 모르는 채 우리들의 옆두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바로 그 채마담이었다.

다방이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인지는 몰라도 채마담의 그 가냘픈 몸집은 정말 꼬챙이 같아 보였고, 얼굴에도 여전히 입술의 루즈를 빼놓고는 별다른 화색을

찾아 낼 수 없었다.

우리들은 이 여인을 몰라봤다.

이 여인이 먼저 우리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저를 잘 몰라 보시겠지마는 저는 잘 알구있죠. 어떻게 이 다방엘 다 들리셨어요? K다방의 사수(死守)파들이 아니세요? 호호호……”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붙이며 옆자리에 앉아버린 채마담은 그 공판 중계 방송에 가끔 귀를 기울이는척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한 듯한 표정을 하고 대강 다음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 것이었다.

“두분께서는 전혀 기억에서 사라지셨을 일이지만……저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K다방에 제가 얼마동안 나가있던 동안에도 두분 선생께서는 저를 못 알아 보셨겠지만, 저는 나가던 첫날부터 알아차리고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했으나, 그때만해도 세상이 세상이었으니깐요……정말 소설같은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고지를 들어주지 않을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신데요?”

나보다도 친우 S씨는 더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몇 달전에 두분 선생님과 또 다른 세분과 청파장에 놀러 오셨던 기억은 아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S씨는 동시에 똑같은 말로 반문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아랫층 15호실방 기억나세요? 저는 방 호수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그때 바로 16호실 손님들과 술들이 취하셔서 옥신각신 하시다가 헤어지신 생각이 나세요?”

“흐음? 그런 일이?”

우리들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던 대수롭지도 않은 기억을 더듬어 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감히 어떤 놈이’하고 호통을 치던 것이 바로 지금 저사람……공판정에 끌려나온 원흉 중의 원흉이라는 저 사나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세요? K다방에서는 손님들이 저와 저 사나이와 무슨 특수한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터무니도 없는 억측들을 한다고 해서……저는 깨끗이 그 다방을 떠나버린 것이예요!”

“……”

채마담은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요령 부득이어서 나와 S씨는 입을 꼭 닫은채 할 말이 없었다.

“인제, 정말 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세상 사람이야 믿어주던 아니 믿어주던 그 까짓것이 내게 상관될리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청탁을 분명히 가리고 흔탁한 환경을 헤치고 넘고 디디고 물리치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청파장에 매일 나와 있는 집대부로 보셨을 것이지만 저로서는 그날 밤이 난생 처음이요, 또 마지막으로 남자들의 주석에 앉아본 것이었어요. 어떤 친구 하나가 있어서 하룻밤 나가 앉아서 몇 시간만 술을 따르는 척 하면 일금 만환을 문제 없이 벌 수 있다기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간 것이, 그것도 공교롭게 바루 저 XX장관이라는 사람 옆에 앉혀져서 술을 따르게 되었지요.……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개 아버지는 이북서 생이별을 한 채로, 월남을 해서 그것 하나를 가진 고생을 다 해가며 키웠지요. 마산 어느 대학에 이학년이죠. 이번 사건에 다리를 다쳐 가지고 아직도 도림병원에 있는 중이지만. 어미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깐, 애당초에 멀쩡하니 떠어 버려서 지방 대학엘 넣어버렸지요. 그날도 아들 녀석에게 돈을 몇 환만 부쳐 주어야 할 일이 생겨서, 며칠 동안을 곰곰이 생각다 못해서 속수무책인지라, 비장한 결심을 하고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 청파장엘 생전 처음으로 나갔던 밤이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두분 선생님께 하느냐구요? 이건 제가 깨끗한 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예요. 여태까지의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그뿐예요. 술잔이 왔다갔다하고 주석이 어울려서 들어갔을 무렵에, 이 XX장관이란 작자가 넋지시 옆구리를 지분지분하는 눈치가 슬쩍 잠깐만 복도로 나가자는 눈치였어요. 저는 비록 생면부지의 위인이지만, 점잖은 사람으로만 알구, 또 술도 그다지 취하지는 않았기에 억지루 따라 나갔더니 결국은 보증수표 이십만환짜리를 제 손에 슬며시 쥐어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는 두분 선생께서 더 잘 아실거 아녜요. 저는 깨끗이 거절했어요. 보증 수표를 사절에 접어서 노타이 가슴 포켓에 두말없이 집어넣어 주었지요. 이것은 보선 목이 아닌 다음에야 제 마음속을 뒤집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분 선생님께서서는 믿어주실 거예요. 그것두 좋아요, 불과 이십만환 돈이지만, 그것을 깨끗이 거절할 수 있는 정신의 줯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마음편히 중계방송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채마담의 이야기가 중단되는 것과 꼭 같은 시각에 라디오 소리도 딱 끊쳤다.

(끝)



한국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盡力)하고 있는 미공군 6146 군사고문단의 단장이 교체되었다.

사진은 8월 5일 본부광장에서 거행된 동고문단장 이취임식 광경

우(右)로부터 김참모총장, 구 단장 J.W.브래드워드 대령, 신단장 L.F.스텝슨 대령.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調監室
發行人·空軍大領 朱貞鎬
印刷處·空軍敎材廠
印刷人·空軍大領 金石桓

코메트 第47號

4294年8月25日 印刷

4294年8月31日 發行



THE COMET

김문학

공군6451
94.2.1/김문학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